국립국어원 2017-01-32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673-01

한국수어교원 양성용 교재-농문화와 농사회

한국 농사회의 이해

국립국어원

목 차

제1장 장애학과 농인 ····· 11

1. 들어가며 ····· 12
2. 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 ····· 12
3.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 ····· 14
4. 청각장애라는 명칭의 한계 ····· 16
5. 청각장애를 만드는 사회 ····· 18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 19

참고 문헌 ····· 22

제2장 농사회의 개념과 특성 ····· 24

1. 농사회의 개념 ····· 25
   1) 인간 사회 ····· 25
   2) 공동체로서의 농사회 ····· 25
   3) 농인 ····· 27
   4) 농 정체성 ····· 30

2. 농사회의 특성 ····· 32
1) 농 문화의 결정체인 수어 ····· 32
2) 문화적 특성 ····· 35
참고 문헌 ····· 36

제3장 농인 가족에 대한 이해 ····· 39
1. 농인 가족의 구성과 문화 ····· 40
1) 농인 가족의 구성 ····· 41
2) 농인 가족의 문화 ····· 41
2. 농인 가족의 의사소통 ····· 43
3. 구성 형태에 따른 농인 가족의 특징 ····· 46
1) 농인 부모와 농인 자녀 ····· 46
2)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 ····· 47
3)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 ····· 48
4) 농인·청인 형제 관계와 부모의 역할 ····· 49
4. 농인 가족 지원 ····· 50
참고 문헌 ····· 52

제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 55
1. 일제 강점기의 농사회 ····· 56

1) 농교육기관의 태동 ····· 57
2) 일본인 중심의 농인 자조단체 ····· 59
2. 광복 이후의 농사회 ····· 60
1) 농교육기관의 설립과 성장 ····· 60
2) 농인 자조단체의 성립 ····· 63
3) 농인 종교기관의 창립과 성장 ····· 67
3. 1980년 이후의 농사회 ····· 69
1) 농교육기관의 새로운 변화 ····· 69
2) 농인 자조단체의 발전과 도약 ····· 71
3) 농인 종교 기관 ····· 78
참고 문헌 ····· 84

제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 85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86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 ····· 86
2) 농인 관련 주요 조항 ····· 86
3)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 상황 ····· 88
4)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보고서 및 민간보고서 ····· 88
5) 국내 장애계에 미친 영향과 과제 ····· 89
2. 한국수화언어법 ····· 90

1) 제정 과정 ····· 91
2) 법 제정의 의의 ····· 92
3) 한국수화언어법 구성 및 주요 내용 ····· 93
3. 기타 법률 ····· 94
1) 사회복지사업법 ····· 94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94
3) 장애인복지법 ····· 95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95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95
6)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96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96
8) 장애인연금법 ····· 96
9)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96
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97
1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97
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97

제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 98

1. 농인 관련 법인 ····· 99

1)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 99
2) 사단법인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 99
3)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 100
2. 농인 복지관 ····· 100
1) 청음회관 ····· 101
2) 삼성소리샘복지관 ····· 101
3)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 102
4) 제주도농아복지관 ····· 102
5)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103
6)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 104
3. 기타 기관 ····· 104
1) 107 손말이음센터 ····· 104
2)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 ····· 105
3)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 106
4) 열린 책장 ····· 107
5) 사회적 기업 AUD ····· 107
6) 코다 코리아 ····· 108
참고 문헌 ····· 108

제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 110

1. 농인의 문화 예술 접근성 ····· 112
2. 농인의 표현 문화 예술 ····· 114
1) 시각·촉각 예술 ····· 116
2) 공연 예술 ····· 117
3) 문학 ····· 122
4) 미디어 예술 ····· 125
3.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활동 ····· 127
1) 참여와 향유의 스포츠 ····· 128
2) 관련 단체 및 주요 행사 ····· 129
참고 문헌 ····· 130

제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 133

1. 국제기구 ····· 134
1) 세계농인연맹 ····· 134
2) 세계수어통역사협회 ····· 139
3)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 140
2. 국제 교류 현황 ····· 140
1) 세계농인연맹 활동 ····· 140
2) 세계농인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 활동 ····· 141
3) 세계농인연맹 청년회 활동 ····· 142

4)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활동 ····· 143
참고 문헌 ····· 144

제9장 4차 산업혁명과 농사회의 변화 ····· 145
1. 4차 산업혁명의 이해 ····· 146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 ····· 146
2) 4차 산업혁명의 사례 ····· 149
2. 4차 산업혁명과 농인의 삶 ····· 154
1) 4차 산업혁명과 삶의 질 ····· 154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농인의 삶 ····· 156
참고 문헌 ····· 157
더 읽을거리 ····· 158

제1장 장애학과 농인

(요약)

본 장은 장애학의 관점에서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에 초점을 맞춰 농과 장애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에 대한 인식과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에 대한 인식의 차이, 그리고 청각장애라는 장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인의 관점에서는 청각장애에 주목하는 반면, 농인의 관점에서는 청각장애보다 농인은 수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엮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청각장애인이라는 범주는 청각장애인 내부의 다양한 언어적 차이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관점에서 볼 때 청각장애는 들리지 않는다는 신체적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어를 모르는 청인과 관계할 때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농인과 청인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사회적 장벽은 듣지 못한다는 특성을 손상으로 간주하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장애와 손상은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다. 농인이 경험하는 여러 사회적 불리를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농인은 청인처럼 되기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는 사회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수어를 사용할 권리, 수어로 배울 권리도 보장될 것이다.

1. 들어가며

최근 한국수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종종 접하게 된다. 한편, 대부분의 농인은 장애인 등록을 하며, 여러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 한쪽에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문화와 수어를 강조하며, 또 일각에서는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강조한다. 본 장에서는 언뜻 보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상황과 주장을 장애학적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장애학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치료나 극복보다는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아래에서는 장애학적 관점에서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농인에 초점을 맞춰 '농과 장애'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청인의 관점에서 바라 본 농

지금까지 농 또는 농인은 의료, 특수교육·사회복지 분야에서 주로 다루어졌다. 이들 분야에서 농은 특히 청각장애라는 하나의 장애 카테고리(분류·유형) 안에서 존재해 왔다. 청각장애는 다시 난청과 농으로 구별된다. 여기서 난청은 청력의 일부가 남아 있는 조금은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농은 전혀 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난청에 비해 농은 청각장애가 더 심한 중증장애로 간주된다. 이 때 정상 청력은 하나의 기준이 되며, 청각장애는 정상 청력을 잃은 결여의 상태를 말한다. 농은 난청에 비해 정상 청력에서 더 많이 일탈된 상태로 인식된다. 청인(듣는 사람)이 농을 소리가 없는 세계와 어떻게 연관 짓고 있는 지에 대해 할란 레인(Harlan Lane)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농인은 어떤 상태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먼저 음이 없는 세계에 자신을 놓는다. 그러면 완전 무서운 세계가 전개된다. 이런 공포는 농인 커뮤니티에 대해 우리들이 투영하

는 고정 관념과 극히 잘 합치한다. 고독하며, 혼란스러우며, 누구하고도 의사소통할 수 없으며, 의사소통 수용력도 없는 것이다(Lane, 1993; 長尾 et al., 訳, 2007: 91에서 재인용).

농인은 자동차의 경적 소리도,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사람으로 인식된다. 농인은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다. 나아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이며,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농은 불행의 산물이며, 농인은 불쌍한 사람으로 동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인식은 의료, 특수교육, 재활복지의 기저에 있는 장애 인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장애학의 주요 이론인 사회모델을 주창한 마이클 올리버는 장애 모델을 개인모델과 사회모델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한 바 있다(Oliver, 1996). 장애의 사회모델이란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있다고 보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 사회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김도현, 2009; 조한진 편저, 2013)

〈표 1-1〉 장애 모델

개인모델	사회모델
개인적 비극 이론	사회적 억압 이론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개인에 대한 처치	사회 행동
의료화	자조
전문가의 지배	개별적 집합적 책임
숙련가	경험
적응	주장
개인적인 정체성	집단적 정체성
편견	차별
태도	행동
보호	권리
통제	선택
정책	정치
개인적인 적응	사회적 변화

※ 출처: oliver, M.(1996: 34)

최근 들어 의료, 특수교육, 재활복지 영역에서는 더 이상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인 손상으로 보지 않으며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정상 청력이라는 기준에서 얼마큼 일탈되어 있는가를 논한다는 점에서 이미 농은 '부(負)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에서는 청각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조기 진단이 강조된다.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는 일종의 신생아 보호 프로그램의 하나로 다루어지며, 때로는 유전성 난청 검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청각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조기 진단은 청각장애를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하여 청각장애와 청각장애로 인한 음성언어 습득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각적 자극을 위해 보청기 착용이 시도되며, 보청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인공와우 수술이 이루어진다. 청각적 보상과 음성언어 습득이 강조되는 이 구화주의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가능한 한 정상 청력을 지닌 사람에 가깝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방편이다. 특수교육에서 사회적 환경을 어떠한 형태로 논한다 하더라도 이미 '듣지 못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낫다'는 '신체의 우열'이 작동한다. 듣기 어려운 것을 듣고 말해야 하는 부담은 개인이 지며, 듣기 어려운 사람은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는 전문가의 조언과 통제가 강조된다. 듣지 못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다는 이데올로기(이념·인식)가 지배하는 한 농인은 끊임없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곽정란, 2017 : 146).

3. 농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농

농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는 농인들이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기무라 하루미(木村晴美)와 이치다 야스히로(市田泰弘)가 발표한 '농 문화 선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 '농인이란 일본어와 다른 일본수어를 말하는 언어적 소수자다.' 이것이 우리들의 '농인'에 대한 정의이다.
>
> 이것은 '농인=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즉, '장애인'이라는 병

> 리적 관점에서부터, '농인=일본수어를 일상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 즉, '언어적 소수자'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이다(木村·市田, 1995=2000 : 8).

여기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이 부정되며, 자신들은 일상생활에서 일본어와는 다른 언어인 일본수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자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존의 의료, 특수교육, 재활복지에서 부의 산물로 논해진 들을 수 없는 상태인 농은 더 이상 부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기무라 하루미와 이치다 야스히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중도실청자와 달리 선천성 농인에게 있어 '농'은 갑자기 닥친 재난이 아니다. '농'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자기 자신의 일부이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증거'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농'은 치료해야만 하는 '장애'가 결코 아니다. 유전성 농인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유전성 농을 예방한다'는 사고방식의 근본에는 우생사상이 있고 거기에는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가로놓여 있다(木村·市田, 1995=2000: 12).

듣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소리가 없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예상과 달리 농아동을 낳기를 희망하는 농인 부부가 농사회에는 존재한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농인인 농인 가정(Deaf family)의 경우 가족 내 언어는 수어이다. 수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 안에서 의사소통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농아동은 듣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데 이들 중 농학교를 다니게 된 농아동은 다른 농아동과 접촉하면서 수어를 습득한다. 따라서 농아동 사이에 의사소통의 장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농학교를 졸업한 농인은 농사회의 농인을 만나 농 문화를 익히고 그들의 가치관을 익힌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어통역이나 자막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의 사회적 억압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농인은 이러한 사회적 억압이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억압에 고생을 한다고 해서 흑인이 백인이 되고 싶다고 하지 않으며(예외도 있지만), 유대인은 그리스도교인이, 여성은 남성이 되고 싶다고 하지는 않는다. 각각 단지 억압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을 뿐이다. 농인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커뮤니티를 가지는 것이며, 질 높은 집합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長尾 et al., 訳, 2007 : 92).

즉, 농인에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인은 수어라는 언어를 매개로 엮인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례로 교육부는 88올림픽을 앞두고 농학교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일반적인 교명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때 서울농아학교는 서울선희학교로 학교명을 바꾸었다. 그러자 서울농아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은 학교명 변경에 반대를 했다. 반대 이유에 대해 서울농학교 졸업생인 강주해 목사(농인)는 “우리가 새 교명에 실망과 불만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이름이 주는 평범함 때문이다. 서울선희학교. 얼핏 들으면 보통 건청인 아이들이 다니는 일반학교로 밖에 연상되지 않는다”(강주해, 2002; 79-80)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서울선희학교는 동문들의 지속적인 교명 복원 노력에 힘입어 2002년 ‘서울농학교’라는 교명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일례는 농을 둘러싼 청인과 농인의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 청각장애라는 명칭의 한계

청각장애인이라는 보다 일반적이고 친숙한 범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인은 왜 굳이 농과 난청을 구분하는가? 듣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농 역시 청각장애의 일부이지 않은가? 청각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농과 난청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에 대해 기무라 하루미와 이치다 야스히로는 ‘농 문화 선언 이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문제는 다양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장애인'이라는 말에 의해 안일하게 하나로 취급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우리가 '농인은……언어적 소수자이다'라고 보려는 이유는 농인이 언어를 공유하는 것에 의해 견고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자면 언어를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는 일정의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각에 '장애'가 있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청각장애인'이라는 말로 농인과 그 외의 사람들을 한데 묶어 버리는 것은 농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의 본질을 보기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이라는 말에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다른 사람들을 동일시해버려 폭력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木村·市田, 2000: 397-398).

청인이 청각장애인을 떠올릴 때 가지는 단일한 이미지와 달리 청각장애인 내부에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청력의 정도, 실청 시기, 교육 환경, 가정환경, 주위의 언어 환경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 구화(음성언어)를 할 수 있는 난청인, 한국어를 습득한 후에 청각장애인이 된 중도 실청인 중에는 한국어를 말하면서 수어 단어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 또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거나 보청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 중에는 구화만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필담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농인 부모 밑에서 자라거나 농학교를 나와 일상생활에서 한국수어를 주로 사용하는 농인이 있는가 하면 농사회에서 한국수어를 사용하더라도 수어를 모르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구화를 같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청각장애인 내부의 언어적 차이를 무시한 채 '청각장애인'이라고 통칭해 버리면, 오히려 개개인의 언어적 요구가 보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곽정란, 2017: 27). 다시 말해, 한국어가 아닌 한국수어를 자신의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입장에서 볼 때 '청각장애인'라는 명칭은 자신의 언어적 요구를 무시하는 명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청각장애를 만드는 사회

그렇다면 농인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는 말인가.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라는 주장은 혹여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일례로 농인을 장애인이라는 병리적 관점으로부터 언어적 소수자라는 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꾀한 일본의 '농 문화 선언'은 장애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가나자와 다카유키(金澤貴之)는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이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해도 분명 농인이 놓여진 사회적 상황을 생각하면, 농인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그 '장애'가 생기는 방식이 극히 이질적이며, 언어적·민족적 마이너리티가 놓인 상태와 극히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농인의 '장애'는 청인과 관계하는 것에 의해 생긴다는 점이다. 역으로 말하면, 농인은 농인끼리 있을 때에는 '장애'가 존재하지 않으며, 나아가 농인 집단 사이에 청인이 소수로 끼여 있다면, 역으로 청인이 '장애'를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金澤 2006=2012: 222-223).

다시 말해,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는 들리지 않는다는 신체적 장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수어를 모르는 청인과 관계할 때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농인에 비해 청인은 사회적 다수파이며, 이들 다수파는 수어를 배우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을 겪지 않는다. 사회적 다수파에 속한 듣는 사람들은 자신을 청인이라고 부를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농인은 수어를 모르는 사회적으로 우위에 놓인 청인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차별을 경험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어의 사회적 지위를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 지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는 청인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 수많은 정보는 듣는 사람에 맞춰서 제공된다. 이에 비해 수어로 제공되는 정보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나아가 수어를 제1언어로 하는 사람이 음성언어에 기반한 읽기·쓰기를 청인 수준으로 구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농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청인 수준의 읽기·쓰기를 요구한다. 청인 수준의 읽기·쓰기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진학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것은 농인을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게 만든다. 결국, 농인이 장애인이 아니라 언어적 소수자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 사회는 농인을 장애인으로 만들고 있다.

6. 장애를 만드는 사회

사회적 불리에 의해 장애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문화적 관점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듣지 못한다는 손상 그 자체는 여전히 병리적 관점 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이와 관련해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노라 엘렌 그로스(Groce, 2003)는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유전적인 이유로 농인 출현율이 높았던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 "그들 두 사람은 다 청각장애인이 아니었던가요?"라고 나는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
> "예, 가만 생각 좀 해봅시다. 그들이 그런 것 같네요"라고 그 노인은 대답했다.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군요."
>
> 미국 본토에서는 심각하게 들을 수 없는 것(profound deafness)은 정말로 하나의 장애(a true handicap)로 여긴다. 그러나 나는 하나의 장애는 그것이 출현하는 지역사회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임을 제안한다. 우리가 비니어드의 청각장애인들을 장애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데도 그들은 확실히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양키(영국 이민자의 별명-옮긴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면에 자유롭게 참여했다. …(중략)…
>
> 섬의 한 노인은 "나는 청각장애인을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

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소"라고 이야기했다.

비니어드에서 청각장애인의 위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묘사는 아마도 80대의 한 할머니의 표현으로, 할머니가 소녀였을 때 청각장애로 장애인이었던(handicapped by deafness) 사람들에 대해서 질문하자 할머니는 "오, 그들은 장애인(handicapped)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듣지 못하는 사람(deaf)이었지요"라고 강조하면서 말했다(박승희 역, 2003, pp. 36-37).

이 섬에서는 농인만이 수어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농인 출현율이 높았던 이 섬에서는 청인들 역시 어릴 때부터 농인과 접하면서 수어를 배워 농인과 대화 할 때는 수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농인과 청인 사이에 언어적 장벽이 없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이 섬에서 농은 장애가 아니라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특성의 하나로 수용되었다. 노라 엘렌 그로스는 이 섬에서 농인은 일상생활을 포함해 교육, 경제적인 측면 등 모든 생활 장면에서 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 사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농인과 청인 사이의 언어적·사회적 장벽이 듣지 못한다는 특성을 손상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는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며, 손상 역시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 이와 관련해 아베 야스시는 "장애학은 사회적 장벽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신체의 '손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장벽과 손상의 구별에 만족해 '손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제대로 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충분한 논의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적한다(あべ, 2015: 28). 아베 야스시는 '신체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장애를 수많은 인간의 복잡한 다양성 가운데 하나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폐증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자폐증만이 '질병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질병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다. 감기, 백혈병, 다운증, 자폐증, 심장병 모두 생물로서, 인간으로서 다양한 것이며 특별한 것은 아니다. 단,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질병과 질병이 아닌 상태를 구별하는 것이며, 그것은 각각의 문맥에 따라 정당성이 있으며 또는 부당한 구별인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질병이라고 하지 않는 것도, 각각의 관점과 목적에 따른 것이며, 상대적인 논의이다(あべ, 2015: 28).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듣지 못한다는 상태 역시 어떤 상황과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손상이 되기도 하며, 하나의 개성이 되기도 한다. 청인과 농인 사이의 언어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서 구별이 없었던 마서즈 비니어드 섬에서는 손상은 하나의 개성으로 존재하였다. 반면,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어야 하고, 교육·경제적 측면 등에서 차별을 겪는 사회에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손상이 된다. 아베 야스시는 '신체적 손상을 실체화 하지 않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어떤 것'을 장애로 인식할 것인가 아닌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장애로 간주할 것인가', 또는 '왜 장애로 간주되는가'라는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목적'과 '문제의식'이다. 즉,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문맥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성별을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성동일성 장애'라고 명명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장애'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전환수술이라는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장애는 '장애'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단지 그것뿐인 것이지만 그러나 '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일컫는 말로도 사용될 것이다. 때문에 '장애'라는 말에 어떤 의미 또는 뉘앙스를 주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장애'의 인식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 색맹을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색맹이 있는 사람들의 취업 범위를 한정한다는 대책을 세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색맹이라는 장애를 낳는 것은 사회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보편적 색상 설계(Color Universal Design)을 지향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あべ, 2015: 31).

농인은 언어적 소수자임과 동시에 장애인이다. 장애인으로 인정됨으로써 일을 할 때 수어통역을 해 주는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어를 사용하는가. 구화를 사용하는가를 떠나 청각장애인으로서 공통의 요구를 사회에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1종 운전면허 취득은 청각장애인이라는 한 목소리로 요구하지 않았던가. 그렇지만 한국에서 살아가는 농인은 한국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언어적 소수자이다. 농인을 언어적 소수자로 바라보고, 농인을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농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농인의 언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농인이 경험하는 여러 사회적 불리를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농인은 청인처럼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 부담은 언제까지나 농인의 몫이다. 그렇지만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는 사회제도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면, 병원·관공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 수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학교에서 한국수어로 배울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는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참고 문헌

강주해 (2002).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개정증보판). 서울: 농아사회정보원.

김도현 (2009). 장애학 함께읽기, 서울: 그린비.

조한진 편저, 강민희·정은·조원일·곽정란·전지혜·전희경 저 (2013), 한국에서 장애학하기, 서울; 학지사.

あべ・やすし(아베 야스시) (2015).『ことばのバリアフリー――情報保障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障害学』, 東京: 生活書院.

金澤貴之(가나자와 다카유키) (2006=2012). ‘聾教育という空間’, ましこ・ひでのり編著, 『ことば、権力、差別(新装版) ――言語権からみた情報弱者の解放』、東京: 三元社, 217-234.

木村晴美(기무라 하루미)・市田泰弘(이치다 야스히로) (1995=2000). ‘ろう文化宣言――言語的少数者としてのろう者’, 現代思想編集部 編,『ろう文化』, 東京: 青土社, 8-17.

木村晴美(기무라 하루미)・市田泰弘(이치다 야스히로) (2000) ‘ろう文化宣言以後’石村多門 訳『聾の経験――18世紀における手話の‘発見’』東京: 東京電機大学出版局, 396-408.

クァク・ジョンナン(곽정란) (2017).『日本手話とろう教育――日本語能力主義をこえて』日本: 生活書院.

Groce, N. E. (2003). 마서즈 비니어드 섬 사람들은 수화로 말한다, 박승희 역. *Everyone Here Spoke Sign Language*, 서울: 한길사. (원전은 1985년).

Ladd, Paddy (2007). 『ろう文化の歴史と展望――ろうユミュニティの脱植民地化』, 長尾絵衣子(나가오 에이코)・古谷和仁(후루야 가즈히도)・増田恵里子(마스다 에리코)・柳沢圭子(야나기사와 게이코)訳. *Understanding Deaf Culture : In Search of Deafhood M.* (원전은 2003년).

Lane, H. (1993), *The medicalization of cultural Deaf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Fisher, R., & Lane, H.,(eds) Looking Back, Hamburg: Signum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ory to Practice*, London; Palgrave.

제2장 농사회의 개념과 특성

(요약)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하고 인간답게 사는 공동체가 실현된다. 농인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이루어진 농사회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공동체 내에서 공용어인 '수어'와 의사소통 매체를 통해 공동의 목표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아울러 청인 사회와도 상호작용한다.

농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첫째는 청각장애에 대한 의료적 보상을 필요로 하면서 청인에게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를 '청각장애인'이라 부른다. 둘째는 청각장애와 상관없이 농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언어적, 문화적 독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를 '농인' 또는 '농아인'이라 부른다. 농 정체성에 대해 글리크먼(Glickman, 1993)은 청인중심정체성, 주변정체성, 몰입정체성, 이중문화정체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는데, 성장과정에 따라 농 정체성이 다르게 발달할 수 있다.

농사회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청인사회에서는 음성언어를 사용하지만 농사회에서는 수어를 사용한다. 농인들은 주류사회 속에서 음성언어만을 쓰는 청인과 잘 어울려 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수어에 대한 오해도 많다. 대표적으로 수어를 알면 전 세계 농인들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수어는 한국어의 보조적인 언어라는 것, 수어는 제스처나 팬터마임과 같다고 여기는 것 등이 있다. 사실 수어는 음성언어만큼이나 분명하고 고유한 언어 체계가 있다. 그리고 수어를 사용하고 경험함으로써 그들만의 농 문화가 형성된다. 병리적 관점에서의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는 보청기, TV 자막, 수어통역 등이 있고, 사회문화적 관점과 관련된 것들에는 농교육, 수어 연극, 농인 뉴스, 농인 신문, 농인협회 활동, 농인선교 등이 있다.

1. 농사회의 개념

1) 인간 사회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사람을 뜻하는 한자 인(人) 자를 보면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을 본 떠 만든 것이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처럼 인간은 항상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한다. 또한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어울리며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고 살 때 비로소 인간답게 사는 한 공동체가 실현되는 것이다.

인간은 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운다. 이러한 언어가 없으면 소통의 장애로 인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인간은 한 사회에 소속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동의된 언어를 통하여 사회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 필요한 지식을 얻는다. 즉, 약속한 언어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질서와 규칙, 역사,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를 배워 나가게 되고 자신의 삶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2) 공동체로서의 농사회

공동체(Community)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 즉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79).

공동체로서 농사회는 자신들의 공동체보다 훨씬 규모가 큰 청인 공동체 안에서 음성언어 대신에 시각언어인 수어로 소통하는 농인들의 모임을 형성하고 있다. 농공동체가 형성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농(聾)이라는 상호 동류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 상호 인정된 언어인 수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유롭고 쉬운 의사소통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성인 농인들이 자신과 같은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청인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이다(김칠관, 윤병천, 2011). 이런 이유로 농인들은 청인들과 섞이기보다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는 농인들끼리 모이게 됨으로써 농인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1960년대 발행한 「언어적 원리에 입각한 미국수어사전」에서는 농사회를 언어적 소수집단으로 설명하고 있다(Stoke, 1965). 농사회는 청인사회와는 달리 수어로 소통하는 점을 가장 독특한 현상으로 들고 있다. 결국 농사회는 '수어'라는 언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동질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경험함으로써 공통의 연대감을 가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농사회는 미국 사회 내에서 소수집단으로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한인사회 조직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이준우, 2004). 미국 내 한인사회의 한인 구성원들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한인들은 미국 지역 사회에서 한인회를 조직하여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역할을 한다. 이와 비슷한 형태로 한국 내 한국농인들은 다수 집단인 청인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 문제, 교육 문제, 취업 문제 등에서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를 해결하고자 농인들도 농사회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되었고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요구가 해결되도록 서로 도우며 봉사활동을 한다.

사회학자 힐러리(Hillery, 1955;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에서 재인용)는 94개의 '공동체' 정의들 중에서 다음 세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선정하였다.

첫째, 공동체는 특정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공동체의 지형은 공동체가 그 기능 방식을 정한다.

둘째, 공동체는 회원들의 사회생활과 책임을 스스로 조직할 자유가 있다. 구금시설과 정신병원과 같은 기관은 한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상생활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그룹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셋째, 공동체는 공동 목표를 공유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

력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각 공동체는 자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목표는 동등한 고용 기회, 더 큰 정치 참여 또는 보다 나은 지역 사회 서비스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인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일하기도 하고 청인사회와 상호 작용하며 다양한 사회 및 정치 활동을 함으로써 농공동체를 형성한다. 농공동체는 청인 공동체와는 달리 소속된 지형의 범위가 훨씬 넓게 형성되는데, 미시적으로는 내 가족이나 내 이웃에서 거시적으로는 지형을 초월하여 농인으로서의 공동 목표를 공유하며, 국가와 민족 간 연대를 넘어서는 거대한 농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농사회의 구성원은 하나만이 아니다. 농인만이 농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농인 사회와 함께 생활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획득한 난청인과 청인도 농사회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농아인협회의 경우 농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어통역사, 정부나 사회단체와 연락하는 등의 행정업무를 하는 청인들, 어린 시절 청각보조기기에 의존하여 생활하였거나 성인 이후 실청을 한 난청인들도 있다. 이들은 농인이 아니지만 농인들과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면서 농인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농사회에 대한 초기 정의는 청력 검사 결과, 농수준의 청력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만을 그 범위에 넣었지만 현재는 농인과 관련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Ila Parasnis, 1996).

결론적으로 농사회(Deaf community)는 '수어'라는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공통의 목표와 문화를 공유하는 농인들과 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청인들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농인

농인(Deaf)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의료·병리적 관점(Medical Model)과 사회문화적 관점(Social-cultural Model) 두 가지가 있다.

(1) 의료・병리적 관점(Medical Model)에서의 농인

병리적 관점은 농인이 가진 청각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청각장애를 바라보면 농인은 청인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각장애 보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존재이다.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수어사용은 배제된다.

청각장애란 소리를 듣는 청각 기관이나 소리를 듣고 뜻있는 말로 해석하는 중추 기관에 이상이 생겨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병리적 관점에서는 농인을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이라고 말하는데, 청각장애 정도에 따라 '농인'과 '난청인'으로 분류한다. 이것은 청각장애를 분류하는 기준인 청력 손실 정도, 청력 손실 시기, 청력 손실 부위의 세 가지 기준 중 청력 손실 정도에 따라 나눈 명칭이다.

〈표 2-1〉 청각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16)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청력 손실치를 기준으로 농인과 난청인을 나누면 농인은 청력손실 정도가 90dB이상인 최고도 청각장애인을, 난청인은 그 이하의 청력손실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청각장애는 아래 표와 같이 다섯 단계로 분류한다(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3).

〈표 2-2〉 청력손실 정도에 따른 청각장애 분류

정도(Degree)	청력 손실치(dB)	언어 이해 능력	언어 지체 학년
경도 (Mild)	27 - 40dB	흐리거나 작은 말소리를 잘 듣지 못함	-1.95
중등도 (Moderate)	41 - 55dB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대화는 이해, 학급 토의의 50% 정도는 이해 못함	-2.93
중고도 (Moderately severe)	56 - 70dB	큰 소리의 대화만 이해, 집단 토의는 하지 못함	-3.53
고도 (Severe)	71 - 90dB	30cm 이내의 큰소리만 이해	읽기 점수가 16세에서 4.9학년 이하가 88% 정도
최고도 (Profound)	91+dB	큰소리도 이해하지 못함 소리의 진동에 거의 의존	

한편 최근 농인 당사자들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이 아닌 '청각장애인'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장애를 우선해서 명명하는 의료·병리적 관점에서 자신들을 '청각장애인'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수어와 농 문화를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의미하는 '농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농인은 청력에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니며, 한국어와는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진 한국 수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2) 사회문화적 관점(Social-cultural Model)에서의 농인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의 농인은 농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언어와 문화, 전통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농인을 청각장애의 정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인식한다. 그래서 수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간주한다.

농 그 자체를 하나의 문화적, 인류학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움직임은 196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우드워드(Woodward, 1982)는 농의 문화적 가치의 관점에서 농(聾)을 설명하면서 농인과 청인 간의 차이는 청력 손실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문화적 차이라고 주장하였다.

레이건(Reagan, 1990)은 농인을 규정하는 기준을 청력 손실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농인의 생활 방식과 같은지, 다른 농인처럼 행동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농인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병리적 관점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농인 스스로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관점은 스토키(Stokoe, 1960)에 의해 농인들이 사용하는 미국수어(American Sign Language)가 언어학적으로 인정을 받으면서부터이다. 또한 ASL이 미국언어학회로부터 언어로 인정되면서 농인들은 주류언어와는 구별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적 소수 집단으로 이해받게 되었다.

4) 농 정체성

농 정체성(Deaf Identity)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수어를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면서 농교육 현장에서 농학생에게 수어와 음성언어를 동등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이중문화접근(2Bi-Approach)이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농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통한 인식 개선 결과 중 하나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다양한 농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들이 농청소년의 교육과 복지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농 정체성(Deaf Identity)이 농인의 심리사회적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이규식, 권순황, 2002; 김명희, 2002; 최성규, 2005). 농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글리크먼(Glickman, 1993)이 제시한 농 정체성 유형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표 2-3〉 Glickman의 농 정체성 유형

구분	준거집단	농에 대한 시각	농 사회에 대한 시각	정서적 특징
청인중심 정체성	청인 (Hearing)	병리적	전형적	절망, 우울
주변 정체성	유동적 (Switches)	유동적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으로 변화	혼란, 갈등

몰입 정체성	농인 (Deaf)	문화적	긍정적, 비상호교환적	청인에 대한 분노 농인에 대한 사랑
이중문화 정체성	농인 (Deaf)	문화적	긍정적, 개인적, 통합적	자아수용, 농인집단에 대한 자부심

(1) 청인 중심 정체성(Hearing Identity)

병리적인 관점에서 농을 이해하는 정체성으로, 이 유형의 정체성을 가진 청각장애인은 스스로가 청인에 비해 열등하다고 생각하며 청인의 삶의 양식을 따라 가려는 경향을 많이 나타낸다.

(2) 주변 정체성(Marginal Identity)

이 유형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농에 대해 혼돈과 양가감정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고, 농인 사회나 청인 사회 모두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농인과 청인 누구와도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로 인해 농인 사회와 청인 사회 어디에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소속감을 갖는 준거집단이 자주 변하는 특성이 있다.

(3) 몰입 정체성(Immersion Identity)

이 정체성은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두 문화 중에서 농인 문화와 농을 강조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정체성에 속하는 농인은 청인 세계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농인 세계를 이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청인 중심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달리 몰입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병리적 관점에서 자신이 듣지 못하는 상태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의 관점으로 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가진 문화인으로서의 농을 강조하는 경향이 짙다. 농인은 항상 옳고 청인은 항상 그르다는 사고나 태도가 몸에 깊이 배어 있어서 청인과의 비교에서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며 청인들에게 적대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리고 대개 청인들의 일반적인 가치와는 다른 형태의 가치 체계를 나타낸다. 즉 수어가 음성언어보다 더 우위에 있다거나, 농인들은 오직 농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거나, 농학생

대상 교육이나 상담은 농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수어를 하면서 말을 동시에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청인 세계에 대한 분노가 있으며, 이 분노는 이중문화 정체성에 도달하면 감소하게 된다(Glickman, 1993).

(4) 이중 문화 정체성(Bi-cultural Identity)

이 정체성을 가진 농인은 농을 문화의 차이로 인식하며, 청인 문화와 농인 문화를 모두 존중하고, 두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식하는 특징을 갖는다. 몰입 정체성에서 나타나는 청인 사회에 대한 분노는 없으며, 오히려 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지향한다. 따라서 수어와 음성언어(자국어)를 함께 존중하며 의사소통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한다.

이러한 농 정체성들을 간략하게 정의해 보면 농 정체성이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농인을 소수집단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농인 집단에 대해 갖는 일체감이라고 할 수 있다(Lucas, 1989). 병리학적인 관점에서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구분한 글리크먼(Glickman)의 4가지 농 정체성의 유형을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무엇보다 농인들 스스로가 어느 유형에 속하든지 관계없이 농인과 농인, 농인과 청인과의 원만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농사회의 특성

농사회는 청인사회와는 달리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며, 농사회와 농 문화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청인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며, 공통의 연대감을 가지는 등의 여러 특성이 있다.

1) 농 문화의 결정체인 수어

청인사회에서는 음성언어를 사용하지만 농사회에서는 수어를 사용한다. 농인들은 주류사회 속에서 음성언어만을 쓰는 청인과 잘 어울려 살기가 쉽

지 않다. ‘말하기’와 ‘말 읽기’를 훈련받은 일부 농인이나 난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청인들과 일정 수준의 대화는 가능하지만 깊은 대화를 나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수어’의 언어적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수어는 만국 공통어가 아니다.

수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수어가 전 세계 공통어냐는 것이다. 수어는 만국 공통어가 아니다. 한국어가 영어와 다르듯이 한국수어(KSL), 미국수어(ASL), 일본수어(JSL)도 각기 다르다. 세계 유일한 농인대학교인 갤러댓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전 세계 농인들이 쓰는 수어가 271개인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Gallaudet University, 2011). 특히 미국수어(ASL)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가봉, 케냐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나라의 농인들은 미국수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문화 기호에 맞게 새로운 수어를 첨가하여 미국수어와 혼합해서 사용한다.

(2) 수어는 손짓 언어가 아니다.

「손짓, 그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 책을 펴낸 저자 이노미(2009)는 ‘손짓언어는 음성언어를 보조해 주는 비언어이다’라고 말한다. 손짓 언어는 ‘언어적 메시지를 대신하는 비언어로서의 손짓으로 손을 움직여 감정과 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전달하는 비언어 행위’라고 하였다. 즉 손짓 언어는 내면적 사고와 심리 상태, 가치관의 언어적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는 상징적 동작 기호로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성립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 체계가 분명한 수어는 청인이 이해하는 손짓 언어와 같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수어가 손짓 언어와 같다고 본다면 수어는 음성언어의 일부로서 음성언어를 보조해 주는 비언어가 된다. 수어는 농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각 언어이다.

(3) 수어는 제스처나 팬터마임이 아니다.

제스처는 말의 효과를 더하기 위하여 몸짓이나 손짓으로 표현하는 행위

로서 몸짓, 엠블럼, 팬터마임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제스처와는 달리 수어는 언어체계가 있다. 수어는 단어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형태라서 도상적이지만 엄연히 관습화되고 언어적 제약이 있다(이준우·남기현, 2014). 예를 들어,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 손끝을 접촉하고 나머지 손가락을 편 양손을 상하로 움직이는 한국수어 [은행]이 마치 돈이 쌓이고 줄어드는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이는 언어적 약속에 의한 것이다.

(4) 수어는 음성언어의 보조적 내지 종속적 수단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수어를 농인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다. 수어를 독립된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음성언어를 보완하는 손짓 언어, 제스처 정도라고 생각한다. 수어에도 제스처나 손짓과 몸짓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음성언어에서 비음성적 요소로 사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어에서도 비수어적 요소로 사용된다.

(5) 수어는 문법 체계를 갖춘 언어이다.

모든 언어는 자의성, 분리성, 생산성, 역사성, 전위성, 문화적 전달 측면에서 독자적 특성을 갖고 있다. 수어도 수어만의 독자적인 이러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수어에서 [학생]이라는 낱말은 수어기호와 의미 간에 자의적 관계를 갖고 있다. 수어는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분절성을 지니고 있다. 수어에는 음성언어의 음운론에서 대응되는 수운론(Cherology) 차원에서 수어소(chereme)들을 분석할 수 있으며(Stokoe, 1960), 수어소를 기본 단위로 하여 일정한 결합 원리에 따라 의미를 생성해낸다. 수어의 생산성은 [집] [가다]라는 단어를 배열해 '집에 가다'라는 평서문의 문장을 생성하거나 [아직]이라는 수어 단어를 첨가해 '아직 집에 가지 못했다'는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어에도 컴퓨터, 인터넷과 같이 시대를 반영해 새로운 단어의 언어적 수어 어휘가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가 변하거나 없어지기도 한다. 즉 수어 어휘는 경제성 원리에 따라 간편하고 수월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필요한 수어는 생성되고 불필요한 수어는 사멸되는 역사성이 있다(국립장애인도서관, 2013).

2) 문화적 특성

문화란 복합적인 전체로서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사회 구성원에 의해 획득되어진 습관과 능력의 총체이다(Tylor, 1871). 랄프 린톤(Ralph Linton, 1955)은 '문화란 한 사회의 총체적 생활방식이다.'라고 규정했다. 크로버(Alfred Kroeber, 1952)와 클럭혼(Clyde Kluckhohn, 1952)은 '문화란 인간 그룹의 특징적인 성취물로서, 예술품을 포함해서 상징에 의해 획득되고 전수되어지는, 행동을 위한 내연적이고 외연적인 패턴'이라고 하였다. 선교인류학자인 폴 히버트(Paul G. Hiebert, 1995)는 문화를 '사회를 특징짓는 행동, 사상, 생산물의 학습된 패턴의 통합된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즉, 문화란 사람들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방식 혹은 인간의 공동 사회가 이룩하여 그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농 문화도 '농사회에서 농인 구성원들이 학습하여 공유하는 가치 있는 삶의 양식 및 표현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1) 청각 문화와 시각 문화

시각문화권에서 자란 농인들의 의사 표현이나 제스처 및 고유한 행동의 특징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농 문화와 통합된 배경을 갖고 생성된다. TV에서는 화면 밑에 제공되는 수어 통역이나 농인들이 악기 없이 수어로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농인들이 눈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인들은 어떤 연회에서 감동적인 연설에 박수를 친다. 그러나 농인들은 감동적인 연설에 박수를 치는 대신에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흔든다. 듣지 못하는 농인들에게 박수를 쳐 소리를 내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두 손을 들고 흔드는 것은 시각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시선 응시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 접촉(터치)의 의미와 사람과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방법', 그리고 '시각을 기반으로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병리학적 관점에서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농 문화

농 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청인 문화와 공존하지만 청인 문화에 완전히 유입된 문화가 아니라 독자적인 문화 형태를 띤다. 병리학적 관점에서는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 인공와우, 언어치료, 청능 훈련 등과 같은 치료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청각 기능을 이용해 듣기와 말하기를 잘 해야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대신에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이 수어를 배우고, 농교육을 받으며, 수어 연극이나 미술과 같은 농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수어 연구와 같은 학술 활동과 나아가 농인 선교와 같은 종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수어를 배우고, 농교육을 받으며, 수어 연극과 미술과 같은 농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수어 연구와 같은 학술 활동과 나아가 농인 선교와 같은 종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농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농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수어라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인간다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인간과 인간을 서로 연결해주는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이다. 그 언어를 통하여 인간은 새로운 문화를 지속적으로 창조해 나간다. 농 문화 형성에 수어가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고 문헌

강창욱 외 (2013).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모델 개발. 국립장애인도서관.

계기훈 (1999). 한국 농아 역사. 서울: 반석인쇄사.

김명희 (2002). “청각장애인의 농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각장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병하 (1985). 특수 교육의 역사적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김성태 (2011). 선교와 문화. 서울: 이레서원.

김칠관·윤병천 (2011). 수화통역개론. 파주: 양서원.

대한장애인복지회 (1988). 선진 복지 정책. 서울: 대한장애자복지위원회.

한국농아인협회 (2000). 농아인과 사회. 서울: 반석인쇄사.
이규식·권순황 (2002). 농문화 관점에서 본 청각장애 지원 프로그램 구안. 난청과 언어 장애, 25(2), 3-18.
이노미 (2009). 손짓, 그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 서울: 바이북스.
이준우 (2004). 농인과 수화. 서울: 인간과 복지.
이준우·남기현 (2014). 한국수어학개론. 경기: 나남.
임지룡 (2006). 말하는 몸 감정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서울: 한국문화사.
최성규 (2005). 청각장애학교 교사의 농문화에 대한 종단적 태도 비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57-7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 (2012). 청각장애아동교육. 양서원.
홍기영 (2000). 인간의 문화와 하나님의 선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Baker, C. & Battison, R. Ed (1980). *Sign Language and The Deaf community:* Essays in Honor of William C. Stokoe. Silver Spring MD: National Association of the Deaf.
Cokely, D. & Baker-Shenk, C. (1991). *American Sign Language A Teacher's Resource Text on Curriculum*, Methods and Evaluation.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Gallaudet University (2011). http http://libguides.gallaudet.edu/content.php?pid=114804&sid=991940.
Glickman, N. S. (1993). Deaf Identity Development: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Theoretical Model.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Hiebert, Paul G. (1995). *Cultural Anthrop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Hilery, G.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 of agreement. Rural Society, Vol. 20.
Through Deaf eyes. the National Endowment of the Humanities.. https://www.youtube.com/watch?v=tJeAG8tZyf4.
Kroeber, A. L. & Kluckhohn, C. (1952). *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Papers*. Peabody Museum of Archaeology & Ethnology, Harvard University, 47(1), viii, 223.
Linton, R. (1955). *The tree of culture*. Vintage Books.
Lucas, C. (1989). *The Sociolinguistics of The Deaf Community*. NY: Acade

mic Press.
Lucas, C., & Valli, C. (1989). *Language contact in the American Deaf co mmunity*. In C. Lucas (Ed.), The Sociolinguistics of the Deaf communit y.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McNeill, D. (2000), Introduction, In D. Mcneill (Ed.), Language and Gestur e Introduction, 1~10,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tzger, M. (2000). *Bilingualism & identity in deaf communities*. DC: Galla udet University Press.
Reagan, T. (1990). *Cultural considerations in the education of deaf childr en*, In D. Moores & K. Meadow-Orlans (Eds.), Educational and develop mental aspects of deafnes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 s, 73-84.
Stokoe, W. C. (1960). *Sign language structure*. University of Buffalo.
Stokoe, W. C. (1972). *Sign and culture: a reader for students of america n sign language*. Silver Spring MD: Linstok Press.
Stokoe, W. C. (1992). *Simultaneous Communication*, ASL, and Other class room Communication Modes. Silver Spring MD: Linstok Press.
Stokoe, W. C. (2001). *Language in Hand, Why Sign Came Before Speech*.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Stokoe, W. C., Casterline, D. C., and Croneberg, C. G. (1976). *A dictionar y of american sign language on linguistic principles*. Silver Spring MD: Linstok Press.
Tylor, E. B. (1871). *Primitive Culture*. Volume 1. London: John Murray. Wi kipedia에서 재인용
Valli, C. (2005). *The Gallaudet Dictionary of American Sign Language*. Wa 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Woodward, James (1982). *Beliefs About and Attitudes Toward Deaf People and Sign Language on Providence Ireland*, How You Gonna Get To He aven If You Can't Talk With Jesus, on Depathologizing Deafness , Silv er Spring, Md.: T. J. Publishers Inc.

제3장 농인 가족에 대한 이해

(요약)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상호 작용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가족 문화를 형성하는 곳이다.

농인 가족은 농인 아버지와 농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청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과 농인 아버지와 농인 어머니와 농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 농인 아버지와 청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농자녀와 청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청인 아버지와 농인 어머니 밑에서 농자녀와 청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청인 아버지와 청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농자녀와 청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 청인 아버지와 청인 어머니를 중심으로 농자녀가 있는 가족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최근 확장된 가족의 개념을 적용한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농인 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총 4개의 부분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농인 가족의 구성과 가족 문화를 통해서 농인 가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친밀감을 유지하며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가족 간 의사소통이 농인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농인 가족의 구성형태에 따른 가족 간의 특징에 대해 기술하면서 당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네 번째는 실효성 있는 농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인 가족이 가지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면서 농인 가족 지원을 위한 사회적인 책무와 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였다.

가족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로서 혼인, 혈연 및 입양이라는 관계로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보편적이었다. 또 한 가족 구성원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 등 각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의사소통(Burgess & Locke, 1953; 고영복, 2000; Mohammadjavad M. & Abdolbaghi M., 2012)하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가족 문화를 형성한다.

최근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혼 가족, 재혼 가족, 무자녀 가족, 조손 가족, 소년소녀가장 가족, 결혼이민자 가족, 한 부모 가족, 기러기 가족, 심지어는 사회적인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동성애 가족까지 그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개념도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서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정서적인 연대를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집단(정현숙・유계숙, 2001)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농인 가족은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 농인 부모와 농인 자녀, 부모 중 한 명의 농인을 중심으로 한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 청인 부모를 중심으로 한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의 구성과 같이 가족 구성원 내에 한 명 이상의 농인이 포함된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더불어 현대적인 의미의 가족 개념을 적용하면 더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2016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 제12조(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농인 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농인 가족의 구성과 문화

인간이 아동기에서 노년기를 거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단계로 개인적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가족도 신혼기부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독립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규모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건에 따라서 구분되며 일정한 과업이 주어진다. 여기에서는 농인 가족의 구성과 가족 문화를 통해서 농인 가족의 의미를 살펴본다.

1) 농인 가족의 구성

가족 구성원 중 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농인 가족이라고 한다. 농인 가족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무자녀 농인 가족은 부부 모두 농인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이 농인인 가족이다. 유자녀 농인 가족 구성은 조금 더 복잡하다. 부모 모두가 농인이면서 자녀가 농인 혹은 청인만 있는 경우와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가 함께 있는 세 가지 형태와 부모 모두가 청인이면서 농인 자녀만 있거나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가 모두 있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다음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농인이면서 농인 자녀만 있거나 청인 자녀만 있는 경우, 그리고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가 함께 있는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이때, 부부 중 한 명이 이민자일 경우 다문화 가족의 형태도 겸하여 구성되며, 그 외에도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가 농인 가족에게도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인과 청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가장 많지만 드물게 농인만으로 구성된 가족도 있다. 해외의 경우 9세대에 걸쳐 농인만으로 구성된 가족들의 사례도 있으며 이 경우 '농 가족(Deaf family)'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농인 가족의 유지를 기대하기도 한다. 한국의 농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인 가족의 형태는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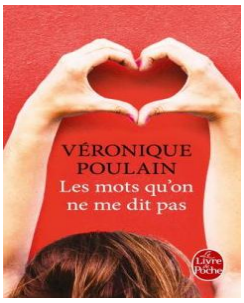
2) 농인 가족의 문화

대다수 농인 가족은 농인만으로 구성되기보다 농인과 청인 구성원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인 가족 내에는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가 공존하게 된다.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의 특징 간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시각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와 청각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일 것이다. 농인은 주로 시각적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적응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청각만이 세상

을 이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농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시각적이고 공간 중심적인 사고가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런 반면 청인 문화는 듣기와 말하기에 의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며 청력 손실은 사회에서 소외되는 원인이 된다고 여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농인 가족의 구성원들은 문화적 충돌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두 개의 서로 다른 문화를 수용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지속적으로 부적응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농인의 경우 청인 가족과 생활하면서 청인 문화와 농인 문화 사이에서 이중문화로 인한 문화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김경진, 2007).

농인끼리 결혼을 해서 부부라는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고 가정생활의 기본 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신혼기에 농인 부부는 배우자의 원가족 중의 청인 구성원과의 사이에 이질적 가족 문화로 인한 갈등뿐만 아니라 농 문화와 청인 문화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자녀 양육 및 가사 분담의 재조정과 부모 역할에 적응하는 출산 및 양육기와 자녀의 교육 방침 마련 및 지도를 해야 하는 자녀 교육기가 되면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 또는 청인 부모의 농인 자녀 간에 부모-자녀 간 문화적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된다.

특히,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Hearing CODA: Hearing Children of Deaf Adult)의 경우에는 이중문화로 인하여 문화적 갈등을 겪는 시기가 있지만 오히려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를 둘 다 자신의 문화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코다 베로니크 폴랭(Véronique Poulain)의 자전적 이야기인 한국어판 「수화, 소리, 사랑해」라는 도서의 서문에 그러한 내용이 잘 담겨져 있다.



※ 출처:http://www.livredepoche.com/les-mots-quon-ne-me-dit-pas-veronique-poulain-9782253017493

나는 두 개의 언어로 말한다. 내 안에는
두 개의 문화가 살고 있다.
말소리와 대화 소리, 음악 소리가 있는 '소리'의 낮.
수화와 소리 없는 대화, 시선만이 오가는 '침묵'의 밤.

두 세계로의 항해.
말과 수화.
두 개의 언어.
두 개의 문화.
그리고
두 개의 나라.

이처럼 의사소통 수단의 결정에 따라 언어와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접하는 문화도 달라진다(최성규, 1997).

안타깝게도 농인과 청인 가족 구성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인 가족의 구성원 간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인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농인 가족 안에서 농인과 청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데에는 농인 가족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정도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농인 가족의 의사소통

사람은 언어나 비언어적 수단으로 생각과 감정, 정보 등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유하며 산다. 가족 구성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서로를 이해하고 친밀감을 유지시켜 주며 끈끈한 연대감을 형성하게 해준다. 이와 반대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족 간에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는 농인 가족은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나 음성언어뿐만 아니라 독화, 필담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병행한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농인인 경우에는 농인 부모가 사용하는 수어가 자녀들의 1차 언어로 자리 잡기 때문에 가족 간의 의사소통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김경진, 2007),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은 주 양육자인 청인 부모가 수어를 잘 모른 채 음성언어를

사용하므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청인 부모들이 농인 자녀를 위해 수어를 배우거나 사용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다(김경진, 2007). 그래서 청인 부모 밑에서 양육되는 농 청소년은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 상호간의 기본적 신뢰감 형성이나 공감적 이해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수 있다(이준우, 2003). 최근에는 농인 자녀와의 대화를 위해 청인 부모가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청인 부모가 농인 자녀와 수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 하는 가족은 매우 드물다.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서는 주 양육자인 부모가 수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청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수어를 배워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다. 그 사례로 법정의 수어통역사를 다룬 일본 작가 마루야마 마사키의「데프보이스」한국어판 해설에 코다 영화감독 이길보라는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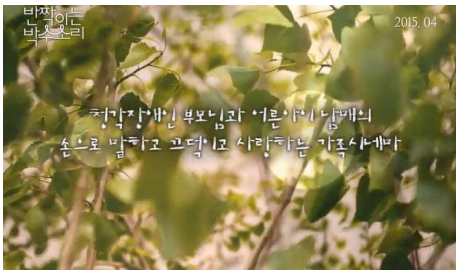
> 그들은 잘 알고 있었다. 아무리 불러도 부모는 들을 수 없다는 걸.
>
> 그러니 그 누구보다 더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이다.
>
> … 중략…
>
> 나는 코다이다. 입말 대신 얼굴 표정을 움직여 손으로 말하는 언어,
>
> 수화 언어를 배우며 자란 코다.
>
> 나는 입말 대신 손으로 옹알이를 했다.
>
> 엄마는 수어로 말을 가르쳤고
>
> 나는 엄마의 눈을 바라보며 부모의 언어를 익혔다… 중략…
>
> 나는 부모로부터 수어를 배웠고 그것은 나의 모어이자 첫 번째 세계가 되었다.
>
> 그러나 어린이집에서 음성언어를 떠듬떠듬 배우면서부터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손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장애' 혹은 '다름'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중략…

나는 청인이면서 동시에 농인이었다.

그런 나를 코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된 건 한참 자라고 난 후의 일이었다.

“침묵의 세계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말의 세계와 정면으로 부딪혀야 했다”



“두 세계를 넘나들며 살아온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림 3-1] 이길보라 감독의 영화 <반짝이는 박수소리>(2017) 중에서

농인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농인 가족이나 문맹 농인 가족인 경우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데 외국인이나 문맹 농인이 한국수어도 글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의사소통만 이루어져 심각한 어려움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 또한 농인 가족의 농인 구성원은 청인 가족 구성원이나 친척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농인 가족 중 농인이 단 한 명뿐인 경우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에 참석해서 가족이나 친척과 인사를 나눈 다음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고 혼자 TV를 시청하거나 스마트 폰을 사용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다행이 가족 중에 농인 구성원이 두 명 이상일 때는 청인 가족들과 여전히 분리되기는 하지만 농인 가족 간에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어서 소외감을 덜 느낀다.

가족과의 의사소통 방식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알아본 오인혜·정은희(2011)의 연구는 부모가 농인인 경우 자녀가 청인이거나 농인이거나 모두 가족 간에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수어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다만 어려운 내용은 필담이나 몸짓을 사용함으로써 가족 간 대화 내용 중 70-80%를 이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부모가 청인인 농인 가족은 농인 자녀가 구화 사용이 어려워 구화 이외의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소통 내용의 20-30%만 이해한다고 밝혔다. 수어나 구화처럼 좀 더 빠르고 수월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필담이나 몸짓보다 더 많은 사회적 지지를 유도한다는 결과(이형열, 2007)도 있다.

3. 구성 형태에 따른 농인 가족의 특징

1) 농인 부모와 농인 자녀

최근 국제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외국 농인과의 교류가 잦아지는 추세이다. 그 때 외국 농인이 한국 농인에게 으레 하는 질문은 그들의 자녀가 농인인지 청인인지에 대한 것이다. 질문에 청인이라고 답변을 하면 안타까워하고 농인이라고 하면 축하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청인들이 이런 상황을 본다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농인 부모와 농인 자녀 가족을 매우 불행한 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바로 수어의 언어적 지위와 농인의 사회적 지위와 연관되어 있으며, 농인이 살아가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하지만 청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농인 부모와 농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대부분은 부모 자식 간에 수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든 가족이 농사회를 기반으로 생활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사고와 정보를 가족끼리 교환할 수 있어서 가족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기도 한다.

물론 음성언어가 주류인 우리 사회에서 농인 부모가 농인 자녀를 키우는

것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농인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에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기 힘들어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농인 가족 구성 형태에 비해 농인 자녀에 대한 충격이 적은 편이어서 자녀의 장애 수용 과정이 짧고 이후에도 자녀가 교육적으로 높은 성취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를 하며 빠르게 적응한다.

2) 농인 부모와 청인 자녀

상당수의 농인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농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청인 자녀를 출산(Moore & Levitan, 2003; 이혜숙·이미혜, 2005; 오인혜, 2011; 이미선, 2015)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제한적인 경험과 정보 부족, 의사소통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동화책 읽어주기, 이야기하기 등 자녀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정서적 돌봄이나 자녀의 친구 엄마들과의 교류 등에서의 어려움(김정희·정은주, 2012 ; 백은령 등, 2009)을 호소한다. 그러나 농인끼리 결혼함으로써 청인 세계와 단절된 농인 부모는 청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통해 다시 청인 세계와 소통(장유리·서홍란, 2015)하게 되어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편이다. 또한 청인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 친척집으로 보내지는 바람에 농인 부모가 양육의 주도권을 갖기 어려웠던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 농인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수어를 보고 자라므로 자연스럽게 부모의 언어를 익히고 사용하게 된다. 물론 모든 청인 자녀들이 수어에 능숙한 것은 아니다. 부모와의 교류 정도, 가족 안에서의 역할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청인 자녀들 중 일부는 성장하면서 부모의 의사소통의 통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전화를 받고 거는 것 뿐 만 아니라 학교 교사와의 상담, 은행 거래, 일반 행정 처리 등 어린 자녀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어통역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서 청인 자녀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손주영(2010)의 연구는 부모-자녀 역할 전도가 심할수록 자녀의 심리적 부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통역을 수행하게 될 때는 더 예민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역할에 대한 농인 부모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다.

코다 중에는 농인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의 꿈을 접고 부모 옆에 남아 있거나 평생을 부모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도 많이 있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Najarian-Souza(2010)가 제안한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 캠프, 즉 코다와 코다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3) 청인 부모와 농인 자녀

Mitchell과 Karchmer(2004)에 의하면 농아동의 약 96%가 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다(Iren 외, 2016). 일반적으로 청인 부모는 농인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아이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양육에 대한 무력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장애를 수용하게 되기까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다. 의사소통을 포함한 청인 부모의 양육 태도는 농인 자녀의 발달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농인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주위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박지숙, 2015).

우리나라에서는 수어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언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청인 부모는 농인 자녀의 수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어를 배우는 것은 곧 음성언어를 배울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시각 언어인 수어를 가르치려고 하기 보다는 인공와우 시술과 청능 훈련 또는 언어치료와 같은 구어적 접근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다. 이것은 자녀가 성장한 이후 음성언어와 수어 중 어느 하나도 유창하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의사소통에 한계를 느끼게 만들거나, 나아가 사회심리적 어려움까지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농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한 것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 농인의 교육 환경은 통합 교육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령기 농아동은 주로 일반학교에 진학하게 된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농아동은 교우 관계, 심리적 부적응 등의 이유로 농학교로 전학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것은 청인 부모가 자신의 농인 자녀가 청인처럼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녀의 특성과 관계없이 부모가 선택한 구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결과이다. 즉, 농인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수어와 구화, 그리고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다가 자신의 모어인 수어로 소통하는 농사회로 회귀하려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농인·청인 형제 관계와 부모의 역할

(1) 농인 형제가 청인 형제에게 미치는 영향

가족 중에 농인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형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일반적으로 형제간의 영향은 부모의 양육 태도, 출생 순위, 형제의 성별, 그리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농인 형제가 있는 청인 형제들은 또래보다 책임감, 인내심, 배려심, 공감 능력 등이 뛰어나다.

대부분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를 같이 양육하는 경우 부모는 농인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청인 자녀에게만 집중하느라 농인 자녀에게 무관심한 경우도 있다. 부모가 농인 자녀에게 과도하게 집중하는 가족의 경우 청인 형제는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부모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가정을 떠나 독립생활을 하려고 하거나 부모에게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행동인 것 같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가정에서 벗어나려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농사회에서 농인 형제와 생활하며 성장한 청인 형제들이 수어통역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통해 농인 형제가 청인 형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

(2) 농인·청인 형제 사이에서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

인간의 기초적인 사회·정서적 발달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에 거의 이루어지며 부모의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모든 자녀들이 자신들과 개별적인 유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제간에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형제간의 어려움은 부모가 간섭해서 해결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인 자녀를 위해서 청인 자녀들이 무엇인가 많이 하도록 역할을 주는 것은 좋지 않으며, 각자의 역할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인 자녀를 다른 청인 자녀와 비교하거나 특별하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형제는 한 나무에서 핀 꽃처럼 하나의 꽃이기도 하고 각자 다른 꽃이기도 하다. 하나의 가족 속에서 함께 한 형제들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거나 지나치게 방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동등하게 대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반 가족들과는 달리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와 가족 구성원은 그 역할이 중요하며 부담이 크다.

4. 농인 가족 지원

가족 지원이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건강가정기본법'(2004)을 제정하고, '모자보건법'(1989)을 '한부모가족지원법'(2007)으로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2007)을 제정하는 등의 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출범(2005)으로 가족 문제에 대한 정책 수립은 물론, 현대적 가족 개념을 반영한 다양한 정책 수행이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인 가족의 현실이 반영된 농인 가족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사회의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 가족은 결혼, 임신, 출산으로 시작하여 점점 그 구성이 확대되는 만큼 농인 가족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즉, 가정의 출발점인 임신, 출산, 양육에서부터 생애 주기별 지원이 필

요하며, 농인 가족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실효성 있는 농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농인 문화와 청인 문화가 공존하는 농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각 구성원들은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면서 정체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수어나 구화 등 의사소통 방법이 통일되지 않아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셋째, 농인 부모가 청인 자녀(코다)에게 연령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수어 통역의 부담을 주면서 발생하는 가족 역할 전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넷째, 농인·청인 형제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농인 자녀를 갖게 된 청인 부모에게 균형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인 가족만이 가지는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의료적 정보, 양육 및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농인 부부와 농인·청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육, 상호 교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전문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지원정책은 2012년 사회적으로 약화된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되어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아이 돌봄지원사업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농인 산모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장애 부모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 미만의 청인 자녀를 대상으로 음성언어 중심의 언어 발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대다수 농인 부모가 학습 서비스만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독서지도 및 심리상담 서비스 등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인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어 발달 서비스도 새롭게 도입되어야 한다.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시도협회 및 지회 또는 농인 복지관에서도 다양한

농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인 가족의 기능 강화 프로그램', '농인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프로그램' 등이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농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없거나 비정기적인 경우도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참고 문헌

고영복 (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권선영 역 (2015). 수화, 소리. 사랑해! 베로니크의 코다(CODA) 다이어리, Véronique Poulain저 (2015). Les mots qu'on ne me. 한울림스페셜.

김경진 (2007). 농인들의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249-260.

김성혜 (2012). 농아인 부모의 자존감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농아인 부모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례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우·이미옥 (2000).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과 장애의 심리적 극복과의 관계. 한국가족 복지학, 6, 101~127.

김정희 외 (2012). 여성장애인 가족지원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김혜경 외 (2010). 가족 복지론. 공동체

마루야마 마사키 (2017). 데프 보이스. 황금가지. 한국어판 해설 이길보라.

박미정 외 (2011). 농중증·중복장애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2), 91-113.

박병은 (2001). 학령전 건청 자녀를 둔 청각장애 부모의 양육 욕구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숙 (2015). 청각장애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경험 연구.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은령 외 (2009). 여성장애인의 모성경험 특성 및 출산력 결정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11, 113-149.

베로니크 폴랭 (2015). 수화, 소리, 사랑해!. 한울림스페셜.

손주영 (2010). 청각장애 부모를 둔 건청자녀의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염동문 외 (2004). 청각장애인 부모의 건청 자녀 자녀에 대한 양육 부담.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5(2), 357-380.
오인혜·정은희 (2011). 청각장애인 가족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경험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3(3), 409-435.
오혜정 (2016). 가족지원-가정중재에 대한 청각장애유아 어머니의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8(4), 151-175.
오혜정 (2017). 청각장애 및 비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경험과 비장애자녀를 위한 가족지원 요구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8(4), 239-263.
이길보라 (2017).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
이미선 (2015). 청각장애인 부부의 결혼생활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7(3), 125-150.
이미선·김경진 (2000). 장애영유아 가족지원 방안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이원숙 (2016). 가족복지론. 학지사.
이정우 외 (1992).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학지사.
이준우 (2003). 한국 농 청소년의 농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형열 (2007). 취업직종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4), 263-291.
이형렬 (2011). 장애청소년 근로자의 직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장애와고용, 21(1), 5-34.
이혜숙·이미혜 (2005). 농아인가족의 의사소통 특성과 자녀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3(1): 57-78.
장유리·서홍란 (2015).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부모의 건청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29: 197-218.
정승희 (2011). 청각장애유아 가족의 양육경험과 가족기능에 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현숙·유계숙 (2001). 가족관계. 학지사.
조성연 (2009). 가족관계. 양서원.
최성규 (1997). 청각장애아의 출현에 따른 가족과 사회의 영향: 청각장애 문화와 일생에 관한 소고. 난청과 언어장애. 20(1), 151-169.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1998). 청각장애 부모들의 욕구와 지원방안. 청음연구, 98-01.
Burgess, E.W. & H.J. Locke (1953). *The Family,* New York, American Book Company.
Leigh, Iren W., Jean F. Andrews. & Raychelle L. Harris. (2017). *Deaf culture : exploring deaf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PLURAL PUBLIS

HING.
Levinson, Daniel J.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 Alfred A. Knopf, Inc.
Mitchell, R. E., & Karchmer, M. A. (2004). Chasing the mythicalten percent: Parental hearing status of deaf and hard ofhearing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Sign Language Studies*, 4(2), 138-163.
Mohammadjavad M. & Abdolbaghi M. (2012). The Impact of Family and Social Classon Efficiency of Arts Education and Learning. *Middle-East Journal of Scientific Research* 11 (8): 1068-1077.
Moore, Matthew S. and L. Levitan. 2003. *For Hearing People Only: Answers to Some of the Most Commonly Asked Questions about the Deaf Community, Its Culture, and the "deaf Reality"*. NY: Deaf Life Press.
Najarian-Souza, C. (2010). "Deaf Mothers: Communication, Activism, and the Family."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30(3). http://dsq-sds.org/article/view/1279.
Olsen, D. H. & Defrain, J. (1994). *Marr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Mountain View, CA: Mayfield publishing Co.
건강가정기본법 http://www.law.go.kr/법령/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수화언어법 http://www.law.go.kr/법령/한국수화언어법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장 농사회의 역사적 변천

(요약)

본 장은 한국 농사회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하였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농사회가 형성되었던 초기부터, 성장하고 발전하고 도약해 나가는 과정을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 1980년 이후로 나누었다. 각 시기에 농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농교육기관, 농인 자조단체, 농종교기관의 성격과 특징을 기술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최초의 농교육기관인 평양맹아학교가 로제타 셔우드 홀(R.S.Hall)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최초의 관립 교육기관인 제생원이 설립되었다. 또한 최초로 한국인이 세운 평양광명맹아학교가 있었다. 이 시기에 농인 자조단체로는 일본인들이 중심인 된 조선맹아협회와 일본농인협회 조선지부가 조직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국·공립 농학교와 전국에 많은 사립 농학교가 설립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 세운 제생원은 국립맹아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초대교장으로 윤백원이 취임하였다. 윤백원은 지문자를 창안하여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농사회의 지도자들은 농인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단체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조선농아협회를 창립하였다. 조선농아협회는 이후 협회 내부의 상황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대한농아협회, 한국농아협회, 한국사회복지연합회 농아분과위원회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역할과 활동을 하면서 본래의 설립 취지를 유지해 나갔다. 이 시기에 최초로 농인 기독교 기관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내에서 농인들이 모여 농아인 전도부를 창립하였고, 농인 천주교 기관으로 독일인 카리타스(한국명: 허애덕) 수녀가 돈암동 성당 내에 농아교리반을 개설하였다.

1980년 이후는 농사회의 변혁과 발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농교육기관에서는 일반학교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농학교 교육과정이 실시되었다. 농인 자조단체인 한국농아복지회는 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주요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한국농아복지회는 이후 현재의 한국농아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시기에 농인들의 신앙 공동체인 기독교, 천주교의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지고, 농인 불교 기관도 창립되어 활발하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농사회는 농인이 한 개인으로만 존재했을 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농인과 농인이 만나서 교류와 소통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농사회가 생겨나게 된다. 농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농인,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인 수어, 농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념이나 행동양식인 문화다. 그리고 농사회는 농인들이 함께 하는 인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농인이 언어적으로 소통이 단절되었던 시대, 사회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던 시대, 문화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였던 시대에서는 진정한 농사회의 형성은 어려웠다.

농인이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라는 공간을 벗어나 확장된 공간에서 다른 농인을 자유롭게 만나게 된 곳은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였다. 농인들은 학교에서 같은 언어로 의사소통하고 공부하고 감정을 나누며 유사하게 행동하며 사고했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농인이라는 정체성과 서로 협력하게 하는 유대감을 갖게 해준 곳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농학교는 농사회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즉, 농학교는 이후 농인의 복지와 자활, 권익을 위한 자조 단체를 만들고, 농인의 신앙공동체인 농종교기관이 세워질 수 있는데 큰 힘과 영향을 주었다.

이 장에서는 한국 농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농교육기관, 농인 자조단체, 농종교기관들이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 그리고 1980년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태동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제 강점기의 농사회

19세기 후반 외국의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통하여 선교 활동을 하였다. 선교사들은 여러 병원을 설립하고 곳곳에 학교를 세웠다.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강제적으로 국토와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농교육기관이 세워지고 자주적이지는 않았지만 농인 자조단체가 시작되었다.

1) 농교육기관의 태동

(1) 최초의 농학교 평양맹아(平壤盲啞)학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농교육이 실시된 것은 1909년 로제타 셔우드 홀(R. S.Hall)에 의해 시작되었다. 홀은 미국에서 온 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평양에 부인 병원과 한국 최초의 간호학교를 설립하였다. 1894년부터 평양에서 맹인을 위한 교육에 헌신하다가 중국 산동성 체후(현재 연대)에 있는 계음학교를 방문하게 되면서 농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체후의 계음학교는 1887년에 밀즈(A. T Mills) 선교사가 세운 중국 최초의 농학교였다. 홀은 한국에 돌아와 이익민을 중국의 계음학교로 보내어 농교육 방법을 연수하도록 하였다. 이익민이 귀국하여 1909년 평양맹학교 내에서 농학생들을 모아 농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평양맹학교는 평양맹아학교로 발전하였다.

평양맹아학교에서의 농교육은 계음학교의 시화법과 어문법의 영향을 받은 구화법을 기반으로 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농인들이 학교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수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학교는 가정에 머물던 농인들이 또 다른 농인들을 만나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그림 4-1] 평양맹아학교에서 개최된 제1회 평양맹농아 교육자 회의(1914년)

[그림 4-2] 평양맹아학교 졸업생과 직원일동(1915년)

※ 출처: 김병하(1989)

(2) 최초의 관립 특수교육기관 제생원 맹아부(盲啞部)

1913년 설립된 제생원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맹아교육기관이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고아의 양육과 맹아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조선총독부의 관리 하에 제생원을 두었다.

제생원은 양육부와 맹아부가 있었는데 양육부에는 부양자가 없는 고아를 양육·보호하고 지식과 기술을 가르쳤다. 맹아부에는 맹자와 농아자에게 보통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가르쳤다. 당시 농아자는 11명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생 수는 1921년에 46명, 1927년에는 71명으로 늘어났다. 아생(농학생)의 교과목은 수신(修身), 국어(일본어), 조선어(한국어), 산술, 수예, 체조 등이었다. 아생을 위한 교육은 주로 청음훈련을 통한 구화법 중심의 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한국 농인이 원래 사용하던 토착수어와 유입된 일본수어가 통용되어 수어의 어휘 수가 이전보다 많아졌을 것이다. 특히 기숙사에 있었던 농학생들은 자유롭게 수어를 사용하고 그들만의 농 문화를 만들어 갔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을 통해 집에서만 소통하고 손짓하던 홈사인(Home sign)이 언어로서의 체계를 갖춘 수어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제생원의 농학생들은 더 많은 의미를 수어로 나타내게 되었고 더 깊은 사고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의 농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 제생원 맹아부는 1931년에 지금의 위치인 신교동으로 이전하였다.

[그림 4-3] 천연동 제생원 정문(1913년)

[그림 4-4] 제생원 운동회 행사(1932년)

※ 출처: 서울농학교·서울농학교총동문회(2013)

(3) 최초로 한국인이 설립한 평양광명맹아(盲啞)학교

평양광명맹아학교는 이창호 목사가 1935년에 설립한 특수교육기관이다. 이창호 목사는 평양노회 도제직회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한국인으로서 주체적으로 농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학교는 통학제와 기숙제로 운영하였으며 초기에는 수어법 위주의 수업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구화법으로 교육하였다. 평양광명맹아학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이창호 목사의 월남으로 폐교되었다.

2) 일본인 중심의 농인 자조단체

(1) 조선맹아(盲啞)협회

조선맹아협회는 일본인 구리다(票田四郎)에 의해 1920년에 발족되었다. 여기에는 제생원을 졸업한 다수의 농인들이 함께 하였다. 조선맹아협회는 일본인이 주도하였으나 우리나라의 농인과 맹인이 모여 권익을 위해 일하고자 모인 최초의 단체였다. 그러나 이 협회에 농인과 맹인이 어느 정도 참여 하였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는 기록된 자료가 없다. 단지 농인과 맹인이 서로 의사소통의 방법이 전혀 달라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일본농인협회 조선 지부

일본농아협회 조선 지부는 1935년에 서울에서 설립되었다. 일본은 이 협회를 통해서 한국 농인들에게도 황민사상과 군국주의를 세뇌시키고자 하였다. 협회의 요직은 일본인들이 맡았고 몇 개의 분야만 한국 농인에게 자리를 주었다.

특히 이 시기에 일본은 중일전쟁(1937년)과 태평양전쟁(1941년)을 잇달아 일으켜 정세는 극도로 불안하였다. 농인들도 만주나 일본으로 흩어져 살았다. 결국 일본이 패망하자 협회의 일본인 간부들은 일체의 서류를 없애고,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하지 않은 채 본국으로 떠났다.

2. 광복 이후의 농사회

1945년 8월에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포한 결과, 마침내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오랜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나 소련과 미국이 삼팔선을 사이에 두고 신탁 통치를 하기로 하였고 미군이 삼팔선 이남을 통치하였다. 미군정청에서는 일본이 하던 교육을 한국인이 하도록 하고, 교육의 이념과 제도, 내용과 방법 등에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헌법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에 국·공립 농학교 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 도시에 많은 사립 농학교가 설립되었다. 또한 농학교를 졸업한 농지도자들이 모여 농인의 복지와 권리를 위한 자조단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는 농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1) 농교육기관의 설립과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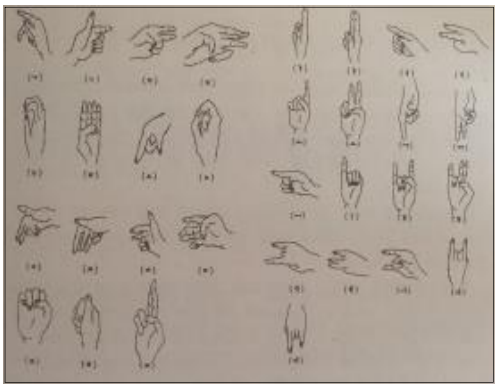
조선총독부에서 세운 제생원은 국립맹아학교로 학교 이름을 바꾸고, 초대 교장으로 제생원 교사였던 윤백원을 임명하였다.

윤백원 교장은 초등부의 학제를 6년으로 개편하고 중등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농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제 농아부 사범과와 일반 사범과를 신설하였다. 특별히 윤백원 교장은 농학생에게 한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이것을 바탕으로 원활한 수어 이용을 위하여 한글 지문자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1946년 9월에 한글 지문자를 창안하여 교육에 적용하였다. 윤백원 교장이 <지문자(指文字)의 창안을 내면서>라는 글에서 밝힌 내용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 농아자를 위하여 깊이 생각하고 널리 연구한 끝에 수어의 단점을 완전히 보충하여 우리말을 할 줄 알며 우리글을 읽을 줄 아는 보통사람의 말 세계에 다가설 수 있는 농아자를 만들 수 있는 지문자(指文字)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다섯 손가락을 가지

고 24자의 모음과 자음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기숙사생 1명을 집에다 데려다 놓고 나와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며 생활을 해나가면서 6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 현 문자를 창안하게 되었다. 1946년 9월 1일 신학기부터 실제 수업을 개시하고 구화와 수어를 겸하여 지도한 끝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되어 그로부터 전 학년에 사용하도록 하며 금일에 이르렀다. 참으로 농아자로 하여금 평생의 복음을 주고 있는 것이다(윤백원, 1946).

[그림 4-5] 국운(菊雲) 윤백원



[그림 4-6] 초창기 한글 지문자 그림

※ 출처: 서울농학교·서울농학교총동문회(2013)

한글 지문자는 농인의 언어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농인들은 한글 지문자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지식을 학습할 수 있었으며, 수어와 지문자로 의사소통을 폭넓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수업 형태는 교사가 칠판에 판서를 하고 수어로 설명하며 지문자, 실물, 그림, 제스처 등을 이용하였다. 교사와 학생들은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나름대로 수어를 새로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발화 훈련을 할 때는 소리 내어 읽는 연습을 반복하기도 하였다.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국립맹아학교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교사들은 귀가하지 못한 학생들을 데리고 피난을 다녔다. 피난 간에 제주도와 부산에서는 분교를 세워 본교 학생들 뿐 아니라 그 곳에 모여든 농학생들을 함께 가르쳤다. 이를 계기로 한국전쟁 후 제주영지학교(1951

년), 부산농아학교(1955년)가 세워졌다. 그 후 전주선화학교(1973년), 춘천계성학교(1974년)가 설립되었다. 또한 국립맹아학교는 1952년에 교명을 서울맹아학교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1959년에서야 서울맹아학교는 서울농아학교와 서울맹학교로 분리되었다. 당시 서울농아학교는 초등부 12학급, 중등부 3학급, 보통사범과 3학급, 사범과 1학급의 규모였다. 1967년에 유치부 과정을 신설하여 6세 미만의 농아동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시작하였다. 중학부와 고등부에는 직업 교과로 목공, 양재, 제화, 인쇄, 자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광복 후 최초로 설립된 사립 농학교는 1946년에 이영식 목사가 세운 대구맹아학원으로, 맹학생 2명과 농학생 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이영식 목사는 1950년 5월 맹학생과 농학생들을 데리고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신익희 국회의장의 도움으로 의장 단상에서 전국의 국회의원들에게 특수교육의 필요성과 교육 가능성에 대해 연설하였다. 이에 국회에서는 맹농아자 교육을 위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결의하였다. 이 사건은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실제적 지원을 하게 된 시발점이었다. 그리고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주로 민간 독지가에 의해 사립 농교육기관이 많이 설립되었다. 이는 농교육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사립 농교육기관이 전국에 확대·설립 되었다. 대구영화학교(1946년), 인천맹아학원(1955년), 군산농아학교(1960년), 전남농아학교(1960년), 충주성심농아학교(1961년), 대전원명학교(1962년), 전북혜화학교(1962년), 한국구화학교(1963년), 수원농아학교(1964년), 안동농아학교(1966년), 부산구화학교(1970년), 혜성구화학교(1972년), 서울애화학교(1975년), 목포소림학교(1979년) 등이 세워졌다.

일부 사립 농학교들은 설립 후 학교 이전이나 학교 규모의 변화 등으로 교명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사립 농학교의 설립은 대부분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세워졌지만 이를 통해 농학생의 교육권이 확보되고 나아가 농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

2) 농인 자조단체의 성립

(1) 조선농아협회

조선농아협회는 1946년 1월에 창립 위원회를 결성하고, 6월에 국립맹아학교에서 창립 총회를 열었다. 당시 농사회의 의식 있는 지도자들은 농인의 삶을 개선하고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협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조선농아협회는 초대 회장에 김동식, 부회장에 정동섭을 세우고 각 부서에 농인 책임자를 임명함으로써 협회로서의 조직을 갖추었다. 이로써 조선농아협회는 한국의 농인 당사자들이 세우고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인 단체로 농인 복지사업을 시작하였다. 조선농아협회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서울시장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농인의 자활을 도왔다.

그리고 자활 사업의 일환으로 피복 공장을 세워 농직원들을 채용하였다. 또한 재봉, 목공, 양화, 인장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농인들의 생계를 돕기도 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협회의 재정난으로 사무실 운영마저 어렵게 되자 회장이 사임하고, 부회장 정동섭은 탈퇴하여 대한농아계몽협회를 세웠다.

(2) 대한농아계몽협회

조선농아협회를 탈퇴한 정동섭은 1946년 12월에 대한농아계몽협회를 발족하였다. 정동섭은 조선농아협회 부회장으로 재임하면서도 협회 산하에 벙어리극단을 만들어 재능 있는 농인 배우들을 발굴하여 연기를 가르쳐 <남모르는 사상>이라는 작품을 공연하였다. 당시 벙어리극단은 청인 사회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 장안 극장, 도화 극장, 계림 극장, 창경원 야외 극장 등을 순회하면서 공연하였다. 정동섭은 이러한 극단의 공연을 통해서 청인들이 갖고 있던 농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농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는 <남모르는 사상> 외에도 몇 편의 작품을 공연했으나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이 역시 운영난으로 인해 농인 배우들에게 급료조차 제때 주지 못하게 되면서 와해되었다. 정동섭은 1947년 3월 협회 임원들의 불신임을 받자 협회를 해산시키고 인천을 거점으로

경기도 농아계몽협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며 벙어리극단 공연을 이어나갔다.

(3) 대한농아협회

대한농아협회는 조선농아협회라는 초기 조직의 재정립을 열망하는 농인들에 의해 1948년 4월에 세워졌다. 회장으로 선출된 이윤의는 협회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인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을 기용하였다. 이윤의 회장은 개인적 인맥으로 당시 경신고등학교인 서명호, YMCA 총무인 피치(George A. Fitch) 박사, 그리고 선교사 등을 기용하여 협회의 지지 기반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해 5월에 부회장으로 김기창을 추대하였다. 그 후 7월에 회장 취임식을 하고 처음으로 대한농아협회의 발전을 위해 창립기념좌담회를 열었다. 이때 기념 좌담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미군정청 고문 윌 딘(W. Dean) 박사, YMCA 총무 현동원, 국립맹아학교 교장 전영택, 각 신문사 대표들이었다. 그리고 8월에는 서울 시장으로부터 기부금 모금에 대한 허가를 받아 농아협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시작하였다. 1950년 5월에는 협회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이렇게 조직을 갖춘 대한농아협회는 직업재활사업에 집중하였다. 직업재활사업은 농인들의 생계를 돕는 목적도 있었고 협회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기부금으로 재봉 기계를 구입하고 농인 회원들 중 기술자를 뽑아서 부녀복과 아동복을 만들어 시장에 납품하였다. 또 목공 기술자들을 모아 가구를 제작하여 시장뿐만 아니라 학교와 단체의 주문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유명 화가이면서 협회 부회장이던 김기창은 농인들에게 그림을 지도하였다. 이러한 직업재활사업은 점차 확대되어 1949년 4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피복 공장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국방부와 경무부의 제복 일체를 하청 받아 납품하였다. 1949년 5월에는 서울 중구 주교동에 인장포를 열어 위탁 경영을 하였다. 또한 해군 장교 부인회의 도움으로 농인들에게 자수 기술을 가르쳐 자수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대한농아협회는 농인들의 복지사업에도 힘을 썼다. 협회 내에 문맹 농인을 위한 야학을 개설하여 한글과 산수를 가르쳤다.

대한농아협회는 이처럼 직업재활사업과 복지사업으로 기반을 다지면서 미래 발전을 위해 사단법인 인가를 받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1950년 오세창을 이사장으로 추대하고 정계와 사회 저명인사들을 이사진으로 구성하여 인가 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전쟁이 터져 협회는 뜻하지 않게 해체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한국전쟁 중 대한농아협회는 1951년 말부터 재기를 준비하였다. 경기도농아계몽협회 정동섭 회장은 대한농아협회 임원진들과 재건의 뜻을 같이 하였다. 12월에는 인천에 협회 사무실을 열고 회장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결과 정동섭이 회장을 맡게 되었고 임원들을 임명하면서 농인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였다.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농학생들과 무학 농인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다. 또한 벙어리극단의 활동도 재개하였다. 정동섭 회장은 1952년 협회 사무실을 서울로 옮기면서 협회 명칭을 한국농아협회로 변경하였다.

(4) 한국농아협회

한국농아협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발족의 준비과정을 거쳐 1953년 6월 1일 국립맹아학교에서 통합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협회는 정동섭 회장을 주축으로 새로운 체계를 갖추고 평의원회과 이사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정동섭 회장이 개인 사정으로 두 달 만에 사임하고 부회장이었던 조경건이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조경건 회장도 취임한 지 몇 달 만에 사임하고 이어서 계기훈, 그 다음으로는 조용완으로 교체되는 등 실질적으로 협회 주도하에 복지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편 한국전쟁 기간에 농인들은 한국에 온 미군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났다. 따라서 한국농아협회에서는 미군부대 판매원이라는 상인회를 조직하여 농인들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부대 허가증을 발급받아 주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국전쟁 후에도 한동안 농상인들의 수와 물품판매의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1958년 미군의 상당수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미군 부대의 출입 제한이 엄격해지면서 상인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농아협회는 한국전쟁 후 1955년 3월에 협회 산하에 농아학원설립위원회를 두고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 등 비품을 준비하여 그 해 5월 어린이

날을 기념하면서 개교식을 가졌다. 이렇게 시작한 학교는 나중에 삼성농아학교로 발전하였다.

[그림 4-7] 한국농아협회 이사회 발족 기념(1954년)

[그림 4-8] 한국농아협회 10주년 기념(1956년)

※ 출처: 한국농아인협회(2016)

(5) 한국사회복지연합회 농아분과위원회

1960년 4월 이후 협회는 임원들 간에 분열이 심화되고 협회 재정 파탄으로 인하여 위기를 맞았다. 그러던 차에 1961년 박정희 군사정권이 들어서고 정부에서는 사회정당 단체 해산조치를 강행하였다. 한국농아협회도 어쩔 수 없이 해산되었고 한국사회복지연합회 산하에 농아분과위원회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농아분과위원회의 회장이 청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사이비 단체가 생겨나면서 기부 행위를 요구하는 일까지 생겼다. 이를 단속하는 감찰부가 있었지만 근절되지 않았다.

1967년 7월에야 농아분과위원회의 조직이 개편되어 농인이 회장을 맡게 되면서 실제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사업계획은 농아 경로회관 설립, 농아 부랑자 수용소 건립, 농아 집단 산업 공장 설립, 농아 기술학교 설립 등이었다. 이를 위해서 농인들 스스로 자금을 모으고 또 외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당시 농아복지위원회는 지방에 지부를 두었는데 경기도와 경북이 대표적이었다. 경기도 지부에서는 농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부평에 있는 미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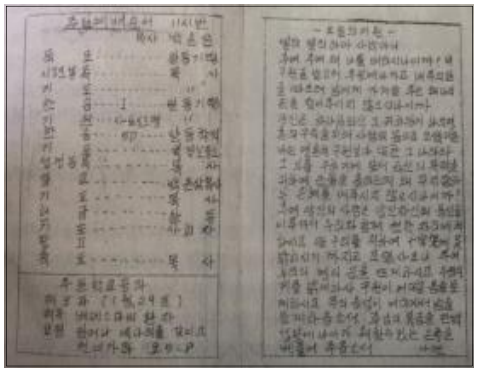
대의 출입허가를 얻어 농인들이 미군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으로는 지방 시도에서 농아복지중앙위원회의 인준 없이 마음대로 농 관련 단체들을 세우면서 부작용이 생기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시·도에 농아복지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1968년 농아복지중앙위원회에서 지방 위원회의 장을 임명하고 지방 위원회 소속 임원과 직원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지방 위원장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 위원회의 사업비를 비롯한 예산은 중앙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다. 이렇게 하여 1968년에는 전남농아복지위원회와 충남농아복지위원회, 강원도농아복지위원회 등이 설립되었다.

3) 농인 종교기관의 창립과 성장

(1) 농인 기독교(개신교) 종교기관

한국 최초로 기독교 농인선교기관은 1946년 10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내 농아인 전도부이다. 당시 농아인 전도부를 창립한 박윤삼 전도사는 과거 6년 동안 평양광명맹아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일본에 유학 가서 농교육을 공부하였다. 그리고 광복 후 국립맹아학교 교사로 단기간 근무하였으나 농인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농인 계기훈, 김춘자, 유숙희 등 6명과 청인 2명이 모여 농인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였다. 박윤삼 전도사는 이곳에서 농인들에게 수어로 복음을 전하고 성경말씀을 가르쳤다. 당시 농아인 전도부에는 수많은 초·중·고등 농학생들이 모였으며 이는 교회 성장을 이루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농인 예배 공동체는 더 이상 모일 수 없었다. 휴전된 이후 1954년에 박윤삼 목사가 서울로 와서 다시 모이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영락교회 농아부로 부서 이름을 바꾸고 농인들의 영적 성장과 친교 활동을 도모하였다. 1960년에는 하나님의 성회 소속 선교사 베티 헨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최성만 목사와 함께 부산에바다 농아인교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는 서울에바다 농인교회를 창립하였다. 1974년에는 박집원 집사가 농아감리교회를 시작하였다. 1979년에는 국제특수선교회 소속인 호주의 네빌무어 선교사가

인천임마누엘교회를 설립하고 그 후 춘천, 강화, 청주, 서울 등 10여 개의 농아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림 4-9] 영락교회 농아부 주보 제1호(1956년)

[그림 4-10] 영락교회 농아부 창립 15주년(1961년)

※ 출처: 영락농아인교회(2001)

(2) 농인 천주교 기관

독일인 카리타스(한국명: 허애덕) 수녀는 1938년에 한국에 왔다. 함경남도 원산에서 여자 농인을 만나고 수어를 배워 농인 선교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에 북한에 있는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 생활을 하다 본국으로 송환되었고 1955년에 한국에 재입국하였다. 카리타스 수녀는 서울 돈암동 성당에서 과거 원산에서 교리를 공부하고 세례를 받은 농인 조명선씨 부부를 만나 1957년에 돈암동 성당 내에 농아교리반을 개설하였다. 이것이 공식적인 천주교 농인 선교의 시작이다. 카리타스 수녀는 농인복지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서울 미아3동에 농인자활원을 설립하였다. 특히, 국수 공장을 운영하고, 재봉 기술을 가르치는 작업장을 만들어 농인들의 자립을 도왔다. 1976년에는 130여 명이 주거할 수 있는 애덕아파트와 농교육 기관인 애화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림 4-11] 허애덕 수녀님이 운영한 영세교리반: 돈암동성당 농아교리실(1958년)

[그림 4-12] 명동성당 농아부 학생 교리반(1970년)

※ 출처: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2017)

3. 1980년 이후의 농사회

1980년 이후 농사회는 변혁과 발전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농교육기관은 구화 중심의 교육이 강화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수어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농사회의 구심점인 한국농아복지회(현 한국농아인협회)가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오늘날까지 농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참여를 선도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농 종교기관들은 신앙을 통한 농인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1) 농교육기관의 새로운 변화

1983년에 제3차 농학교 교육과정이 실시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일반학교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 그리고 새로이 신설된 요육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요육 활동은 장애상태의 개선과 극복이라는 치료적 개념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한다는 교육적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 요육 활동은 언어 수용 활동, 언어 표현 활동, 생활 적응 활동 영역

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여기서 언어란 수어가 아닌 음성언어이었다. 언어 수용에서는 '청각 기능의 계발로 소리와 말을 분별한다, 시각 기능의 계발로 말을 바르게 이해한다'를 목표로 하고 있고 언어 표현에서는 '음성을 조절하여 자연스럽게 말한다, 어법에 맞게 말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농학생들에게 청능훈련과 독화 및 발화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청력검사실 시설을 보완하고, 청력검사기, 발어훈련기 등을 도입하였다.

[그림 4-13] 표준수화사전(1982년)
※ 출처: 재단법인 금옥학술문화재단(1982)

서울농아학교에서는 1980년에 다시 유치부를 신설하여 구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81년에 농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구화 중심의 교육이 실행되는 가운데 1982년에 농학생들을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수어사전이 편찬되었는데, 이는 1982년에 금옥학술문화재단에서 발행된 <표준수어사전>이다.

이 사전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국어교과서 수록 어휘와 일상생활 용어, 그리고 기존 수어 어휘를 수집·조사·분석하고, 어휘 6,441개를 선정하여 그림과 설명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1994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8년에는 폐지된 '특수교육진흥법'을 대체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신설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권 및 학습권 보장, 통합교육 실시 및 강화, 학생 및 보호자 참여, 개별화 교육 방법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농학교는 학생들의 통합교육과 개별화 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언어는 현재까지도 여전히 잔존 청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수어는 국어와 영어 교과에서 한국어 어법에 맞추어 일부 대체하는 불완전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015년 교육부에서 발행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에 농(청각장애)학교는 국립이 1개교, 공립이 3개교, 사립이 11개교이다. 청각장애 학생 수 3,581명 중 농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976명이며, 나머지는 거의 일반학교에 다니고 있다. 매년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학교가 신·증

설되는데 반해 농학교와 농학생들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과거 대전, 제주, 수원 등의 사립 농학교들은 지적장애 학교로 바뀌었다. 이런 변화는 인구 감소와 함께 농학생들의 수도 감소하였고, 의학과 공학의 발달로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효과가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농학생의 부모들이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더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중에도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부터는 다시 농학교로 돌아오는 학생들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농학교에서의 교과 수업은 대부분 음성언어와 문자로 이루어진다. 교사들은 농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업 능력의 향상을 위해 감각 보상과 언어치료를 강화했다. 그러나 농학생의 내면은 수어로 지식을 수용하도록 체계화되어 있어 음성언어 기반의 교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해되지 못한 내용이 계속 쌓이게 되어 낮은 학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때때로 수업 장면에서 수어가 사용된다고 해도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아서 내용 전달의 한계로 인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많아지는 어휘와 용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 내에서 수어 책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과거 농학교는 농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해 주는 곳이었다. 그들만의 고유한 농 문화를 생성하고 누리는 공동체였으며, 수어가 언어로서의 풍부한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현재 농학교는 농학생들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농학교 내에서 수어의 위상은 음성언어에 밀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농학생들은 자신들의 제1 언어인 수어와 제2언어인 음성언어로 학습하며 이중언어 능력을 갖추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아울러 그들은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를 동시에 지니며 미래의 다양한 변화를 주도하는 농사회의 일원이다.

2) 농인 자조단체의 발전과 도약

(1) 한국농아복지회

김기창 회장은 한국농아복지회의 초대회장으로 취임한 후 4대 회장까지 16년 동안 재임하였다. 재정도 인적자원도 부족했던 복지회의 기반을 닦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하였다.

김기창 회장은 농아복지회를 서울시에 사회단체로 등록하고, 1980년에 보건사회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농아복지회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사단법인 설립 당시는 사무실은 수유리에 있었으나 장소가 협소하였다. 그래서 1981년 4월에 사무실을 서울역 건너편 서부역 근처 서계동에 4층 건물로 이전하였다. 이 건물의 임대는 김기창 회장의 사재로 충당하였다. 개관식은 1981년 6월 3일 당시 보건사회부 사회국장과 농아협회 회원 약 3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이사진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지방에 자치적으로 활동하던 단체들을 통합하기로 하고 지회장은 각 지역의 농인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에서 1982년까지 11개 시·도 협회가 세워졌다.

한국농아복지회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청인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사업, 전국에 흩어져 있는 농인들에게 장애계의 여러 가지 소식과 필요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출판 사업, 수어통역사 양성과 수어 보급을 위한 수어 교육이었다.

그리고 KBS 제3TV(현 EBS)에 해 뜨는 교실의 방송홍보사업(1983년), 농인들의 문화생활과 친선 교류를 위한 바둑 대회 개최(1983년), 농인 청소년과 청인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청소년 활동, 농인들에게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알선 및 직업 지원, 농인들의 스포츠 활동으로 친목 도모를 위한 전국 농아인 축구 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동시에 세계 농아인 단체와의 교류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세계농인연맹 가입(1981년), 아시아 지역 농아단체 협의회 참석(1981년), 한·중 친선 축구 대회 개최(1982년), 아시아농아연맹 회의 개최(1982년), 세계농아연맹 총회 참석(1983년), 동남아시아축구대회 참가(1983년),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가입(1984년), 아시아태평양 농아인축구대회 참가(1984년, 1986년, 1988년, 1992년, 1995년), 세계농인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 회의 참가(1986년), 세계농아인 경기대회 참가(1985년, 1989년, 1993년), 아시아태평양농아인대회 개최(1992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한국농아복지회는 한국의 농사회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올바로 알려지고, 통합하는 데 본격적인 힘을 실어 주었다.

[그림 4-14] WFD 총회 대표들과 환담하는 김기창 회장(1981년)

[그림 4-15] 아시아태평양 농아축구대회에서 외국팀을 환영하는 김기창 회장

※ 출처: 한국농아인협회(2016)

특히 김기창 회장이 한국농아복지회를 운영할 초기에 협회의 재정은 매우 열악하였다. 복지회 운영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를 거의 회장의 사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국농아복지회 이사진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안정된 운영과 지속적인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단체를 건립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복지회에서 이 일을 도맡아 추진하였고 실행에 옮겼다. 이때도 부지 매입과 건축비 등 상당 부분은 김회장의 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절차를 통해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인 운보원, 청음 공방도 한국농아복지회가 이룬 소중한 결실들이다.

(2)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농아복지회는 1996년 안세준을 제5대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안세준 회장은 한국농아복지회를 청음회관에서 서초동으로 옮겼다. 그리고 1997년 5월 한국농아복지회의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로 변경하였다. 이는 시혜자로서의 농인이 아니라 복지 주권을 가진 농인에 의한 자조단체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취지에서였다. 이어 6월에 제1회 전국농아인 대회를 개최하여 농인의 결집을 보여주었다. 1997년에 10월에 제1회 수화통역사 자격인정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농인들이 정당한 권리로 통역을 의뢰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1998년에는 전국 시·도 협회에 14개

의 수화통역센터를 설립하였다. 또한 1998년 2월 MBC에서 한글자막방송을 시작하였는데 이후에는 보다 더 여러 방송에 확대되도록 요구하였다. 아울러 자막수신기 무료 보급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협회에서는 농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 관련 연구와 상담과 취업알선사업을 진행하였다. 2000년에는 농아인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등과 연대하여 제1회 장애인영화제를 개최하였다.

[그림 4-16]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현판식 (1997년)

[그림 4-17] 제2회 수화통역사 연수(1998년)

※ 출처: 한국농아인협회(2016)

2001년에 제6대 회장으로 주신기가 선출되었다. 주신기 회장은 이전의 여러 사업들을 지속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해마다 열리는 전국농아인대회를 통하여 농인들의 단합과 농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수화통역센터의 질적인 안정과 양적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04년에는 제1회 청각장애인통역사자격인정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립국어원과 함께 한국수어연구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로 <한국수화사전>, <농인의 국제수화>, <일본어수화사전>, <한국수화 어원사전>이 편찬되었다.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는데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하여 방송법 개정, 정보접근권을 위하여 장애인편의증진법 및 정보격차해소법 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농인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1종 운전면허 취득 허용을 촉구하였다. 그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장애계와 힘을 모았다.

[그림 4-18] 농아인수화통역사 자격인정 시험제도 확립을 위한 공청회(2004년)

[그림 4-19] 장애인 운전면허 1종 제한 폐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2004년)

※ 출처: 한국농아인협회(2016)

2005년 제7대 회장으로 변승일이 선출되었다. 변승일 회장의 재임기간은 역대 회장들 중 김기창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긴 8대와 9대까지였다. 변승일 회장은 취임 직후부터 농사회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대내외에 표명하였다. 전임 회장들이 시작하고 전개해 온 여러 사업들을 지속시키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였다. 수많은 농인들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인 권리보장 촉구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결의 대회를 열었다. 이러한 장외 투쟁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꾸준히 지속하였다. 청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제한 철폐와 방송 자막 및 수어통역방송 확대, 그리고 농학생을 위한 농학교 교사의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 요구 등 대정부 활동을 전국의 농인들과 함께 하였다. 농인의 권리는 수많은 투쟁과 협의를 거치면서 하나씩 법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져 나갔다. 특히 2008년 9월에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국수화기본법안을 완성하였다. 이 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은 수년 동안 이어졌다. 2012년 농아인의 날을 기점으로 농인들은 1인 시위를 100일 동안 진행하고 청원 서명 운동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투쟁은 마침내 정부의 국정 과제로 수용되고 주무 부처와 학계 그리고 협회가 실질적인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 또한 변승일 회장은 재임기간에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이사 및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농인의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의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그림 4-20] 농아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100일 전국 릴레이 1인 시위 종료 기자회견(2012년)

[그림 4-21] 수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3년)

※ 출처: 한국농아인협회(2016). 한국농아인협회 70년사.

대외적으로는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세계농인연맹이사회, 아시아태평양농아인대회 등을 국내에 유치하여 한국 농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외국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나 회의에 참석하며 세계 농사회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다져 나갔다.

2015년 한국농아인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이대섭이 선출되었다. 이회장은 과거 서대문농아인복지회 초대 관장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회장이었다. 취임 후 2016년 협회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변승일 회장이 구성해 놓은 한국농아인협회 70년사 편찬준비위원회를 재구성한 후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해 농사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변승일 회장이 오랫동안 치열하게 투쟁하던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썼다. 마침내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6년 2월 3일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으며, 그해 8월 4일에 시행되었다. 또한 2015년 7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7회 세계농인연맹 총회에 임원진들과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 조선롱아협회 회장과 임원들을 만났다. 앞으로 통일 될 한국의 미래 농사회를 위하여 남·북한 수어 연구와 남·북한 협력 사업들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에 뜻을 같이 하였다.

[그림 4-22] 북한 조선롱아협회 임원들에게 한국수화사전 전달(2015년)

[그림 4-23] 한국수화언어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5년)

※ 출처: 한국농아인협회(2016)

현재 한국농아인협회는 전국에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협회, 대구광역시협회, 인천광역시협회, 광주광역시협회, 대전광역시농아인협회, 울산광역시협회, 세종특별자치시협회, 경기도협회, 강원도협회, 충북협회, 충남협회, 전북협회, 전남협회, 경북협회, 경남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가 있다. 그리고 각 시도협회 산하에는 각 지역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3)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단체

(가) 한국농아노인회

농노인들이 서로 모여 친목의 목적으로 처음 모임을 가지고 그 단체의 이름을 농아노우회라고 한 것은 1978년이었다. 고령으로 몸도 마음도 약하고 취업도 어려워 빈곤한 농노인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쉬기도 하고, 위로를 주고받는 곳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모임이었다. 그러나 운영이 어려워 자연히 얼마 못 가서 해체되었다. 그러다가 1983년 김기창 회장이 한국농아복지회 산하에 한국농아노인회를 두고 복지와 여가 생활에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노인회는 조직과 재원을 가지고 농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었다. 1992년 이후에는 한국농아노인회와 별도로 시도 협회 차원의 노인회 지부가 서울과 경기도, 부산, 경북, 전남 등에 설립되었다.

(나) 한국농아여성회

농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1997년 한국농아인협회 부녀회를 조직하여 창립 총회를 가졌다. 부녀회를 통하여 농여성의 교양 및 자아 개발을 위한 교육, 자녀 교육과 가정 문제 상담, 불우 이웃 돕기,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에 힘쓰고자 하였다. 1998년에는 일본농아연맹 부인회 임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일본에서도 한국의 회장과 임원들을 초청하는 국제적 교류가 있었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부녀회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로 있었다. 2006년에 부녀회의 재정립을 위해 재출범준비위원회를 열고, 단체의 이름을 한국농아인협회 여성회로 개칭하였다.

여성회는 매년 일일 찻집을 열어 불우 농인과 농어르신들을 돕고, 회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서도 힘쓰며, 회원들의 교양을 위해서 세미나와 연수회를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경남농아인협회, 경북농아인협회, 전북농아인협회, 인천농아인협회 등 17개 시·도 협회 산하에 여성회를 두고 있다.

(다) 한국농아청년회

한국농아청년회는 2011년에 농청년들(18-35세)의 권리 보장 및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청인들과 동등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최초로 결성된 단체는 2003년 대구농아청년회였다. 그 후 서울, 인천, 경기, 제주, 전북, 강원에서 농아청년회가 창립되어 시도 간에 친밀감을 가지고 세미나를 여는 등 리더십 교육을 함께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농아청년회와 세계농인연맹 청년회의 회의와 캠프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연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농인연맹이 제정한 세계농인의 날에는 매년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며 수어가 농인의 언어라는 것을 알렸다.

3) 농인 종교 기관

(1) 농인 기독교(개신교) 기관

1946년 10월 최초의 한국 기독교 농인 선교 모임이었던 영락교회 농아

인 전도부는 농인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에 서서 성장하고 부흥하였다. 1980년 초기에 당시 문영진 목사는 영락교회 내에 농인들이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영농성서학원을 설립하였다. 영농성서학원에서는 일반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농인들과 수어를 능숙하게 하는 청인 전도사들이 강사로 구성되었다. 이는 전국에 농인들이 직접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집회를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영락교회 농아부는 1985년에 영락교회에서 분리 독립하여 현재 위치한 서울 행촌동에 영락농아인교회로 새롭게 시작하였다. 1990년에 청인인 문영진 목사 퇴임 이후 영락농아인교회는 농인이 담임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다. 1991년에 강주해 목사가 위임목사로 취임하고 이어 손천식 목사 그리고 현재 김용익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

이로써 영락농아인교회는 처음으로 농인의 독자적인 교회로 서게 되었다. 2001년에는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교회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교회 명칭을 영락농인교회라고 변경하였다. 2002년에는 농인 성도들의 자체적인 힘과 영락교회의 도움으로 새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2003년 12월에 완공하였다.

농인 기독교 종교기관은 1990년을 전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농인 교역자들과 수어에 능숙한 청인 교역자와 수어통역사들에 의하여 교회가 왕성하게 설립되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한국침례회, 기독교하나님의 성회 등의 여러 교단 소속의 농인교회 또는 농아부가 150여 곳 넘게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인 교역자들과 농인 목회를 한 청인 교역자들이 미국, 중국 등의 대도시에 가서 이민이나 유학 간 한국 농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고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내의 농인 교회 중 소수의 교회들은 청인 교역자들이 사역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농인 목사나 전도사가 농인 성도들의 신앙 생활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연대하고 연합하는 한국농아복음선교회와 한국기독교농인총연합회 등이 있다. 여기서는 성경을 기초로 기독교 수어용어를 만들고, 때로는 각 교파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들을 통일하기도 하고, 동영상으로 수어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 농인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어 찬양 대회나 연합 수련회를 통하여 단합을 꾀하고, 북한농인 선교와 해외 선교 등을 함께 하고 있다. 특별히 농인

기독교 단체들은 세계 농인 기독교 단체들과도 오래 전부터 긴밀한 연대를 가지고 농인 선교와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케냐, 필리핀, 태국, 일본 등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지속적으로 그 나라의 농인협회나 농학교 등과 연계하며, 교육과 신앙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 2년마다 특정 나라를 선정하여 아시아농아선교대회를 개최하고, 4년마다 세계농아선교대회를 가지며 아시아 및 세계의 농교회 현황과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며 함께 교류하고 있다.

[그림 4-24] 영락농인교회 전경(2003년)

[그림 4-25] 중국에서 열린 제11회 아시아농인선교대회(2009년)

※ 제공: 영락농인교회

(2) 농인 천주교 기관

1957년에 설립된 돈암동성당 농아부와 1965년에 설립된 명동성당 농아부는 1986년에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로 통합되었다. 이어 현재의 수유동 툿징 포교 베네딕도 서울 수녀원의 건물로 이전하여 미사를 봉헌하며 선교공동체의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1994년에 창립된 한국가톨릭농아선교협의회 산하에는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전주, 청주, 충주, 군산, 울산, 춘천, 제주 등에 농아선교회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농아선교회는 수어통역을 통해서 미사와 교리를 진행하고 있다. 가톨릭농아선교는 기독교(개신교)농아선교가 농인들이 직접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신학공부를 하고 전도사로서 혹은 목사로서 농인 사역을 하는 현황과는 달리 가톨릭의 전통과 특성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농인 신부가 전무한 상태에서 청인 수녀와 신부에 의해 지속되고 성장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2007년 아시아 최초로 농인으로서 박민서가 사제서품을 받았다. 특히 박민서가 신부가 되기까지 뒤에서 도우며 이끌어 준 사람은 정순오 신부였다. 정순오 신부는 부모님이 농인으로 어려서부터 수어를 습득하고 신앙을 물려받으며 성장하면서 줄곧 농인들의 삶과 신앙을 위해 헌신하였다. 1989년부터 서울가톨릭농인선교회의 지도신부로 사목해 온 정순오 신부는 2007년 7월 가톨릭평화신문에서 농인들은 수어통역미사보다는 사제가 직접 수어로 미사를 집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동안의 사목이 가톨릭 교리나 의식에 대한 종교 지식이 부족한 수어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농인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제는 농인 신부가 직접 수어로 미사를 집전하고, 교리를 가르치며, 세미나와 강연, 성지순례 등 농인 신자들을 위한 사목을 할 수 있어 기쁘다는 감회를 밝혔다.

2017년에는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 60주년을 맞이하였다. 특히 박민서 신부는 농아선교회 성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7년간 130여 곳의 성당을 다니면서 후원미사를 드린 후 농인 신자 등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인식을 개선하며 건축 기금을 모금하였다. 그리하여 2017년 7월에 서울 마장동 부지에 새 성전 기공식을 가졌다.

[그림 4-26] 박민서 부제 사제서품(2007년)

[그림 4-27]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 새성전 기공 감사미사 및 기공식(2017년)

※ 출처: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2017)

한편, 한국가톨릭농아선교협의회는 한국가톨릭농아인의 날을 정하여 전국에 있는 농아선교회의 단합을 이끌고 있다. 또한 아시아 농인 신자들과의 연합과 수어 미사 비디오 제작, 가톨릭 용어와 기도문을 수어로 제작하고

있다. 특히 툿징 포교 베네딕도 서울 수녀원에서는 1991년부터 65세 이상의 양로 대상 및 일상생활에 보호가 필요한 농인 어르신들의 시설인 '성요셉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3) 농인 불교 기관

불교의 포교 활동은 1983년 부산에서 청인 강주수와 농인 방규봉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성불사에서 1995년까지 정기 법회를 가졌다. 그리고 2000년까지 한국불교 연구원 부산 구도회에서 매주 목요일 농인 불자들이 모여 불교 교리를 공부하였다. 특히 강주수를 비롯하여 구도회 이기영 원장, 성불사의 법성스님은 우리나라에 불교 전문 용어가 전혀 없어서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불교 용어의 원 뜻이 반영된 불교수어를 만들었다. 그 당시 만들어진 수어는 [스님],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이며 이는 1986년에 백화도량에서 사용된 인쇄물(그림 4-28)에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법성스님은 수어를 배우고 불교 수어를 연구하면서 농인 불자의 모임 이름을 '백화도량'이라고 지었다. 강주수는 1998년 불교 수어 책을 발간하며 156개의 불교 용어와 반야심경 해설, 찬불가 12곡을 담아 발표하였다. 농인 불자 모임인 백화도량은 1986년과 1987년에 경북 강구 영혜사와 경주 천룡사지에서 정진대회를 가지고 1996년에는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제1회 수화찬불가 발표회를 가졌다.

2000년 이후 부산 불자들의 모임은 결혼이나 직장 생활 등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기 어렵게 되어 비정기적으로 성불사, 통도사 부산 포교원, 구도회, 찻집 등에서 모여 신앙 공동체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불자들의 모임인 원심회는 1988년 청음회관에서 수어를 강의하던 윤우중과 청음회관 내 다다회에서 봉사하던 박헌종이 중심이 되어 강남에 위치한 원심포교원에서 불교수어 초급반을 개설하였고, 1기 수료 후 강사진과 수료생들이 함께 원심회를 창립하였다. 그리고 원심회 초대회장으로 석덕신 스님을 추대하였다. 석덕신 스님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원심회를 이끌었다. 원심회는 초창기에는 사무실과 법당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어려웠으나 1992년에 조계사 내에 법당을 마련하였다.

원심회에서는 1991년에 농인들에게 첫 수계의식을 거행하였고, 2010년에 한국 최초로 농인 김경환을 조계종 포교사로 배출하였다. 1995년에는 조계사 문화교육원에서 조계사 원심회와 광림사 연화복지학원 공동 주관으로 <불교수화 용어집>을 발간하면서 불교수어 발표회를 가졌다. 당시 <불교수화 용어집>에 수록된 많은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불교계에서는 다소의 시각차이가 있지만 부산 불자모임의 법성스님이 연구하여 만든 어휘들과 조계사와 광림사의 불교수어연구위원회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불교어휘들이 수록되었다. 1997년에는 불교 자막 비디오 테이프 600개를 제작하여 각 단체와 장애인들에게 무료 보급하였다. 2007년에는 불교계 최초로 찬불가 수어 동영상을 제작·배포하였다. 이어 2008년에는 원심회 창립 기념으로 55곡의 찬불가를 수어영상으로 제작하여 전국에 무료 배포하였으며, 2013년 대한불교조계종 장애인전법단 포교사업의 일환으로 원심회와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 함께 삼귀의, 반양심경 등 불교 기본 의식과 찬불가 등 46편의 찬불수어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2015년에는 '천수경'이 수어로 제작됨에 따라 불교의 법회에 사용되는 기본 의식이 모두 수어로 만들어졌다. 원심회는 지속적으로 불교경전 역경사업(불교서적 번역)이나 불교 관련 동영상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광림사의 방해성 스님은 1993년에 연화복지학원을 개원하여 수어법회를 시작하였다. 해성스님은 조계사 원심회에서 수어를 배우면서 불교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한글, 서예, 운전, 컴퓨터 등 교양강좌를 개설하였다. 1999년에는 농인에게 무료 운전 교육을 시작하여 약 4년간 실시하였다. 2003년에는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을 설립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우며 포교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2008년에 연화장애인 직업재활원을 설립하여 농인들에게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4-28] 농인 불자 포교 및 불교 수어 그림(1986년)
※ 제공: 부산 백화도량

[그림 4-29] 천수경 고불식 & 창립 27주년 기념(2015년)
※ 제공: 서울조계사 원심회

참고 문헌

강주수 (1998). 불교수화. 부다가야.
교육부 (2015).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5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김병하 (1989).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법성스님 (1986). 지혜. 백화도량.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 (2017). 은총과 함께 60년사 1957~2017.
서울농학교·서울농학교총동문회 (2013). 서울농학교 백년사 1913~2013.
영락농아인교회 (2001). 교회 50년사 1946~1996.
인천성동학교 (1995). 인천성동학교 40년사.
재단법인 금옥학술문화재단 (1982). 표준수화사전. 대지출판사.
한국농아인협회 (2016). 한국농아인협회 70년사.
한국밀알선교단 (1992). 제2기 재가장애인선교복지요원 양성훈련교재.
가톨릭신문 http://m.catholictimes.org/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http://yeonhwawon.org/
서울가톨릭농아선교회 http://www.scdeaf.or.kr/
조계사장애인전법팀 원심회 http://www.wonsim.net/
한국기독교농아총연합회 http://www.kcdeaffa.or.kr/

제5장 농사회 관련 법률 및 정책

(요약)

본 장에서는 한국수어교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내외 법률에 대해 소개한다. 국내 장애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와 농인 관련 조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국가보고서 심의와 민간보고서 활동, 협약과 관련한 농사회의 국제 활동을 소개하고 국내 장애계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들을 알아본다. 그리고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과정과 법 제정이 갖는 의의, 구성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장애인 관련 정책을 담고 있는 다양한 법률의 목적을 간략히 기술하여 장애인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12월에 개최된 유엔 제56차 총회에서 멕시코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약 70개국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8회의 회의가 개최되면서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완성되었고,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실질적으로 법제화한 국제인권협약으로 장애를 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모든 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은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고 장애인을 정의하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문제 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 세계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농인 관련 주요 조항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과정에서 세계농인연맹(WFD)을 비롯하여 각국의 농인 대표들이 협약 초안 작성 회의에 참여하여 농인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중 농인과 관련된 주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언어란 음성언어, 수어 및 다른 형태의 비음성 언어를 포함한다.

제–9조(접근성)
2항(e) 대중에게 개방된 건물과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인, 낭독자, 전문수어통역사를 포함한 형태의 현장 지원과 매개체를 제공할 것.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공식적인 교류에 있어 수어,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그리고 장애인의 선택에 의한 기타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 방법, 형태를 사용하도록 수용하고 촉진할 것.

제–24조(교육)
3항(b) 수어 학습과 농인 집단의 언어 정체성 증진을 촉진시킬 것.
3항(c) ...장애인의 교육이 개인의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적절한 언어, 의사소통 방식 및 수단으로 학업과 사회성 발달을 극대화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
4항 이러한 권리 실현의 보장을 돕기 위해 장애인 교사를 포함하여 수어 그리고 또는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하고..

제–30조(문화생활)
4항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수어와 농문화를 포함하여 그들의 특수한 문화 및 언어 정체성을 인정받고 지원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제9조 1항, 2항 (a), (c), (d)에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수어가 음성언어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음성언어와 동등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다. 수어와 농 문화, 언어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농인을 '청력손상을 갖고 있지만 음성언어 중심의 사회에서 의

사소통의 제한을 경험하며 다양한 사회 참여의 제약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과 음성언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까지 다 포함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농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소외와 배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 합리적인 편의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농인의 의사소통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3) 장애인권리협약 관련 국내 상황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0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였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제공을 규정한 제25조 제1항과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는 유보하였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국내 장애인 관련법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게 된다.

4) 장애인권리위원회와 당사국 보고서 및 민간보고서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18명의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권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협약을 비준한 각 당사국은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활동 및 변화된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국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제안과 권고를 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당사국 보고서 심의 회의를 매년 2차례 개최하고 회의마다 3개국의 보고서를 심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첫 번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다.

[그림 5-1] 2014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모습

국가보고서 외에 각국의 민간단체는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민간보고서는 국가보고서의 내용 중 자국 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 이를 심의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당사국에 바람직한 권고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나라도 시민 단체와 장애인 단체가 연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연대가 2014년 9월에 출범하여 민간보고서를 준비하여 심의회의에 참여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5) 국내 장애계에 미친 영향과 과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당사국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당사국이 권고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 후진국의 오명을 쓰게 되고 국제적 위상에도 흠집을 입게 되므로 각 국 정부에 부담을 갖게 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국내 장애인의 권익 확보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장애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준비단계에서부터 연대를 통해 다양한 장애 유형의 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장애 유형 단체에서 국제 경험이 축적되고 시민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지식과 경험도 쌓게 되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다양한 장애 유형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201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당시 한국농아인협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음성언어와는 다른 언어 형식을 지니는 수어의 개별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활용하여 국내 수어법 제정운동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권고를 이끌어 냈다.

(1) 제1차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 견해 중 농인 관련 사항

국제장애인권리 협약 제21조 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 위원회는 한국 수어가 아직 한국의 공식 언어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법안이 국회에 상정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42.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한국 수어를 대한민국의 공식 언어로 인정하는 법안을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그림 5-2]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가한 민간보고서 연대 참가자들

2. 한국수화언어법

2016년 2월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법률 제13978호)은 농인이 사용하는 수어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와 함께 언어로 법적 지위를 획득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16년 8월에는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한국수어는 국어기본법에 의거한 국어발전기본계획안에서 수어 표준화 및 수어 보급에 관한 사항만이 일부 추진되어 왔을 뿐이다. 한국수어가 농인의 공용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은 농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매우 중요한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수어는 언어다.”라는 가치 아래 수어를 언어로 인정해 줄 것을 꾸준하게 요구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을 협

회의 주요 목표로 정하고 2008년부터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발의된 관련 법안은 한국수화언어기본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2013. 8. 20.), 수화 기본법(정우택 의원 대표발의 2013. 10. 15.), 한국수어법 (이에리사 의원 대표 발의 2013. 10. 22.), 수화언어 및 농 문화기본법(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2013. 11. 26.)으로 병합 심사를 통해 한국수화언어법안이 확정되었다.

1) 제정 과정

일 시	내 용
2008. 09.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추진위원회 설립
2008. 09. 06.	•제정추진위원회 1차 회의 수어 관련 법령 연구 및 제 · 개정 추진위원회 역할 및 추진 방향 설정
2008. 10. 18.	•제정추진위원회 2차 회의 워크숍: 수어 관련 법령 제 · 개정 연구의 필요성
2008. 12. 13.	•제정추진위원회 3차 회의 수어 관련 법령 외국 자료 검토
2009. 01. 31.	•제정추진위원회 4차 회의 수어 관련 법령 국내외 자료 검토
2009. 02. 28.	•제정취진위원회 5차 회의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초안 작성 및 검토
2010. 03. 13.	•제정추진위원회 6차 회의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초안 수정안에 대한 검토
2010, 03.	•윤석용 국회의원실 법(안) 송부
2010. 03.	•국회 내 복지여성법제과에서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
2012. 06. 03.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운동 100일 전국릴레이 1인 시위 진행
2012. 07.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청원 서명운동
2012. 10.	•세계농인의 날 기념 ‘수화는 언어다’ 가두행진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추진연대 출범
2012. 11. 14.	•각 정당 대선캠프 한국농아인협회 4대 정책요구서 제출

2012. 12.	•대선장애인연대 10대 공약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포함
2013. 02. 21.	•새누리당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50-10-1 ‘한국수화기본법 제정’ 및 ‘수화 기반 정보권 보장’ 확정
2013. 06. 03.	•수화기본법제정을 위한 농사회 용어정리 토론회
2013. 08. 20.	•이상민 의원 대표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발의
2013. 10. 15.	•정우택 의원 대표 수화기본법 발의
2013. 10. 22.	•이에리사 의원 대표 한국수어법 발의 •한국수어법 발의 기자회견
2013. 11. 26.	•정진후 의원 대표 수화언어 및 농 문화기본법 발의
2013. 12. 09.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
2015. 03. 02.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법공청회 개최
2015. 11. 26.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2015. 12. 0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
2015. 12. 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15. 12. 31.	•국회 본회의 의결
2016. 02. 03.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공포
2016. 08. 04.	•시행

[그림 5-3] 2012년 6.3농아인의 날 기념 전국농아인권리증진대회

2) 법 제정의 의의

첫째, ‘한국수어’가 우리나라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여 농인의 기본권

으로서 언어권을 보장하고 있다.

둘째, ‘수어’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여기던 기존의 인식을 바로잡아 고유한 언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셋째, 농 사회·문화 및 농 정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농 사회·농 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농인을 언어적 주체로서 보고 있으며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등으로 수어에 대한 기초 연구와 이를 통한 체계적인 수어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농인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여섯째, 농사회·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농 정체성 이해에 대한 계몽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 한국수화언어법 구성 및 주요 내용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4장, 2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안 제1조).

② 한국수어는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함(안 제2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농인

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음(안 제9조).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하여 한국수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안 제10조).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11조).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16조).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3. 기타 법률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농인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년도, 제정 목적, 농인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사회복지사업법

1970년에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설의 장, 종사자, 운영위원회, 보조금, 후원금 관리,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조항이 있어 수화통역센터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개정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청력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

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장애인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되었으며 장애인 관련 법의 기준이 되는 법으로 주로 시설에 관한 사항이 주를 이루었다. 1989년 심신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으로 바꾸고, 장애인등록제를 신설하였다. 2003년 장애 유형이 15개로 확대되었고 2007년 장애인 정책의 근간을 자립생활과 인권, 장애인당사자주의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수어통역,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 조항이 있다. 수어통역센터 관련 조항으로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이 있으며 법인 관련 조항으로 단체의 보호 육성에 대한 조항이 있고 전문 인력으로 수어통역사를 명시하고 있다.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7년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들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정하였다. 수어통역센터도 편의제공의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

6)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2005년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게하기 위하여, 창업 등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제정되었으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정당한 편의제공에 수어통역과 문자통역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8) 장애인연금법

2010년 제정되었으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9)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1년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2년에 제정되었으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11)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5년에 제정되었다. 장애인 등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제공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보조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년에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제6장 농사회 관련 국내 기관

(요약)

이 장에서는 한국수어교원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국내 농인 기관들에 대한 현황을 소개한다. 먼저 사단법인인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의 설립목적 및 활동을 소개한다. 이어서 설립 순서대로 농인 복지관인 청음회관, 삼성소리샘복지관,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제주도 농아복지관,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의 운영 목적과 수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기타 기관으로 107 손말이음센터와 농사회에서 유의미한 행보를 이어 가고 있는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열린 책장, 사회적 기업 AUD, 코다 코리아의 설립목적과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

1. 농인 관련 법인

현재 우리나라에 농인 관련 법인은 3개 기관이 있다. 다른 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으므로 설립년도 순에 따라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1)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1946년 6월 1일 자조단체 조선농아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80년 보건사회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농아복지회로 설립 승인을 받았다. 1959년 세계농인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Deaf, WFD)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97년 5월에 한국농아인협회로 기관명을 변경하였다. 17개의 시·도 협회 및 지회, 한국농아노인회, 한국농아여성회, 한국농아청년회 등을 산하기구로 두고 있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어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6-1]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촉구 가두행진
※ 제공: 한국농아인협회

농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정책 개발, 인권 증진 사업, 수어통역사 자격관리사업, 장애인 영화제, 한국영화정책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6-2] 푸른 꿈 미술대회
※ 제공: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2) 사단법인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2002년 7월 23일 승인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법인이다. 청소년기의 청각장애인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심어주고 그들의 자질을 조기에 발견하여 문화와 예술을 통해 건강한 사회 참여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을 목표로

청각장애청소년 대상 미술 교육 및 전시회 사업과 청소년 작가 육성사업, 청각장애 작가 작품 교류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1982년 한국농아복지회 산하 한국농아인체육회로 설립되었다. 그 당시 주요사업은 전국농아인축구대회 개최를 통해 농인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장애인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2005년에 사단법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농아인체육회는 '대한농아인체육연맹'으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 단체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체명을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으로 변경하였으며, 2016년에 비로소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았다.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은 전국농아인체육대회와 국내의 주요 종목별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 농아인올림픽(대플림픽, Deaflympics) 등에 출전하고 있다.

[그림 6-3] 2017년 터키 삼순농아인올림픽대회 출전 대한민국 선수단
※ 제공: 대한장애인체육회

2. 농인 복지관

현재 우리나라에는 6곳의 농인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설립년도 순에 따라 농인 복지관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청음회관

“나는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소음공해가 심한 환경에서는 조용함 속에서 내 예술에 정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라고 한 운보 김기창 화백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최초의 청각장애인 전문복지관으로 사회복지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가 운영 법인이며 1985년 6월 12일에 입주하였다. 1990년대 초반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청각장애인 운전면허 응시제한 철폐와 수어통역사 제도화를 위한 수화통역대책위원회의 구성 등 농사회의 중요한 성과들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기초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청각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행복한 삶에 기여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내걸고 아동·청소년, 성인, 어르신,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그림 6-4] 청음회관 전경 ※ 제공: 청음회관

2) 삼성소리샘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삼성농아원이 운영 법인으로 2001년 4월 개관하였으며, 1956년부터 시작된 구화 중심의 언어 재활 설립 이념을 계승한 청각장애 영유아 아동 전문 언어 재활 복지관이다. 언어 재활과 조기 교육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청각장애 아동의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며 청각장애인 가족을 중심으로 개별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림 6-5] 삼성소리샘복지관 전경 ※ 출처: 삼성소리샘복지관 홈페이지

3)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2003년 2월 7일 개관하였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이용인이 신뢰하는 전문적 서비스, 이용인을 존중하는 친절한 서비스, 이용인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담사례지원사업, 재활치료 및 특수교육지원사업, 정서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청각장애여성 문화 취미활동 지원사업, 청각장애인 스포츠·문화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6-6]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전경
※ 제공: 대구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4) 제주도농아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농애원이 운영법인으로 2005년 7월 1일 개관하였으며 장애

[그림 6-7] 제주도 농아복지관 개관식
※ 제공: 제주도농아복지관

인 및 지역 사회 소외 계층의 복지 증진에 모든 역량을 제공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획경영지원팀, 상담사례관리팀, 가족문화지원팀, 지역권익옹호팀, 직업기능향상팀, 수어연구센터를 두고 청각언어장애어르신 돌봄 센터, 가온누리장애인예술단, 생활체육 파크골프, 캘리그라피 교실, coffee숲, 수어연구 자문 위원단, 장애인소통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다.

5)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운영법인인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2007년 1월 25일에 개관하였다. 최상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청각장애 인식개선 사업 활성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2015년 서울청각장애인

[그림 6-7] 청각장애아동 스키캠프
※ 제공: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학습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중고등학생, 성인,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6)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그림 6-8] 책쟁이 프로젝트 동화속의 세상
※ 제공: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2015년 3월 3일 개관하였으며 존중・소통・감동을 통해 농인들이 소통하는 행복한 세상을 추구하고 있다. 가족문화지원사업, 상담사례지원사업, 기능향상지원사업, 영상정보미디어사업, 기획운영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농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을 존중하여 필요한 제반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농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눈으로 소통하는 행복한세상”을 미션으로 정하고 농인 전문기관으로서 농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지원하여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3. 기타기관

1) 107 손말이음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운영하며 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전화를 통해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전화 중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자중계서비스, 영상중계서비스, 언어장애인용 통신 중계 서비스가 있으며,

연중무휴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용 분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내용이 가능하며, 이용 대상은 청각·언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농인과 전화 통화를 원하는 청인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림 6-9] 107 손말이음센터 서비스 방법 ※ 출처: 107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2) 농인독립영상제작단 데프미디어

2005년 4월 박재현 감독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가치와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사회, 평등한 공존을 지향하며 농인 당사자들이 영상 매체를 통해 자신들을 대변하고자 결성되었다. 데프미디어는 농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농영화를 만드는 곳이며 한국어가 아닌 영상 언어, 그리고 음성언어가 아닌 시각언어인 수어로 만드는 곳이다. 영상을 통해 농문화를 청인에게 알리고자 하

[그림 6-10] 데프미디어를 이끌고 있는 농인들
※ 제공: 데프미디어

며 농인의 문화와 농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상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친구>, <아키라와 꽃>, <소리없는 절규>, <어느 애비의 삶>, <인연>, <천원 이야기>, <애인보다 더 멋진 내 인생의 친구>, <조선 농역사> 등을 만들었다. 그 중 <어느 애비의 삶>은 포장마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인 가장이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자살한 실제 사건을 다루었다. 장애인영화제, 장애인권영화제 등에 작품을 출품하고 있다.

3)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은 건강한 농 정체성과 농 문화를 지지하며 농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2006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시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농인에게 맞는 교육으로 이중 언어・이중 문화 접근으로 수어와 한국어의 균형을 이루는 교육을 실천하며, 강점관점에 따라 농인의 강점을 활용하여 교육한다. 또한 전문적인 독서 프로그램, 실천과 체험을 강조하는 교육, 바른 사회 통합에 도전하는 교육, 따로 또 함께하는 공동체를 실험하는 교육, 꿈을 찾고 이뤄가는 교육,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 세계의 농사회와 교류하는 교육, 대안적인 삶을 고민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그림 6-11]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대안학교 전경
※ 제공: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2017년에 생후 6개월 이상의 농유아와 농아동, 그리고 코다 아동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초・중・고등부 과정의 대안학교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그 외에도 농 정체성과 농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

4) 열린 책장

2013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팀으로 출발하여 정보소외계층인 농인들의 언어인 수어·자막 콘텐츠를 제작하여 농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어 영상 도서, 수어 방송 Son TV, 수어 이모티콘, 방송 자막제작, 도서관 운영, 캐릭터 상품 제작, 웹툰 제작 등을 하고 있다.

헬렌켈러 작은 도서관은 농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음성도서, 자막도서, 수어영상 도서를 구비하고 있다. 수어 이모티콘을 개발·출시하여 수어 보급에 활용하고 있다.

[그림 6-12] 열린 책장에서 제작한 수어 이모티콘 ※ 제공: 열린 책장

5) 사회적 기업 AUD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과 정보 접근을 목적으로 2014년 2월에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쉐어 타이핑 등 IT 플랫폼 기반의 사회 서비스 제공과 목적 사업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

[그림 6-13] 쉐어 타이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자막 모습 ※ 제공: 사회적 기업 AUD

AUD의 문자통역 서비스(속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문 문자통역사(속기사)가 타자를 쳐 스마트 기기를 통해 개인 및 단체에 실시간 자막을 제공한다.

6) 코다 코리아

코다(CODA)는 'Children Of Deaf Adults'의 줄임말로 농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을 말한다. 코다는 농인의 문화와 청인의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서 때로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고 두 사회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14년 12월 한국농아인협회가 주최한 <토크콘서트 CODA열정樂서>에 연사로 참가한 코다들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해 보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그림 6-14] 2016년 CODA UK & Ireland방문
※ 제공: 코다 코리아

이후 2015년에 농인과 코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코다 코리아(CODA Korea)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후 해외 코다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강연을 개최하여 각국 코다 단체의 운영과 경험을 나누고, 코다의 잠재력과 역할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코다를 알리는 문화 콘텐츠를 통해 사회에 코다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향후에는 코다 캠프 등을 개최하여 코다의 경험을 나누며 코다들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참고 문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5).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 '수화기본법안' '한국수어법안'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기관소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관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기본법 제정 추진계획(안)
박정현 (2013). 청각장애인관점에서 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분석.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 기관소개 자료
열린 책장 기관소개 자료
이에리사 의원 대표발의 한국수어법 발의 보도자료
제주도 농아복지관 기관소개 자료
청음회관 기관소개 자료
코다코리아 기관소개 자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수어법 발의 기자회견 자료.
한국농아인협회(2013).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농사회 용어 정리 토론회 자료집.
한국농아인협회(2017). 한국농아인협회 70년사.
한국청각장애인예술협회 기관소개 자료.
107 손말이음센터 http://www.relaycall.or.kr/home/main1.asp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http://www.djsonsori.or.kr/sub/introduce/stat.asp
대한변호사협회전국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http://blog.daum.net/unis3way/12420492
동그라미재단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irclefound&logNo=220869864937
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
삼성소리샘복지관 http://www.sorisaem.net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유엔장애인권리협약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
조선일보 http://chosun.com
한국수화언어법 http://www.law.go.kr/법령/한국수화언어법
함께하는재단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mkkeorg&logNo=221052568953

7장 농인의 예술 및 스포츠

(요약)

이 장에서는 인간 삶의 다양성과 자유를 누리게 해 주는 예술 분야와 체력단련을 위한 단순한 목적의 운동부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이것이 농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시각적인 지각이 두드러지는 '보는 사람들'인 농인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는 농인 공동체는 예술과 스포츠를 어떻게 향유하는지에 관한 접근성 문제와 표현활동의 사례들에 대해 소개한다.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문화라고 하며, 예술과 스포츠는 다양한 문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예술과 스포츠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으며 역동적이기도 하다. 문화는 하나의 공동체에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관습이나 전통, 가치, 그리고 규범과도 뿌리가 깊다. 이런 의미에서 농인의 문화도 다르지 않다. 즉 농인의 문화도 역사, 예술과 문학을 포함하며 농인 문화 공동체의 유산, 수어라는 동일한 언어, 시각적인 세계를 존중하고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등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며 다음 세대로 전승한다(Gilliam&Easterbrooks, 1997; 김경진, 2004; Irene W. Leigh 외, 2016).

최근 예술 분야는 시각·촉각 예술(그림, 도예, 조각 등), 공연 예술(연극, 무용, 음악), 문학(시, 소설, 서사시 등), 그리고 미디어 예술(인쇄 매체, 사진술, 영화 등)이 있다. 또한 시각·촉각적인 예술은 3D 프린터를 통해 3D 미술품으로 거듭나기도 하고,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아트 비디오 등과 같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음성언어 없이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예술이기에 농인에게 예술과 미디어 등의 문화 활동은 농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농 문화의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한다.

스포츠 분야는 경기 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신체적 활동으로 목적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즉 참가하는 사람이나 신체활동의 강약에 따라 여가 선용이나 체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체육과 전문 스포츠로 구분된다.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없는 농인에게 체육이나 스포츠는 그들이 서로 만나고 경쟁하며 어울리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예술과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직접 그 가치를 창조하는 데 참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잘 보는 사람'이기에 시각적 지각이 두드러지는 농인에게 있어 예술과 스포츠는 무엇이고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인의 문화 예술 접근성

2006년 12월 UN이 채택한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는 장애인들이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생활과 스포츠에 참여할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문화 예술은 음악·무용·연극 등 예술적 관람물을 공중이 관람하도록 시연하는 행위를 하는 공연 시설(공연법 제2조), 역사·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박물관과 미술관 등 전시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도서관 자료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 시설(도서관법 제2조) 및 문화 시설이 복합된 종합 시설 등을 통해 접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문화 이해와 참여도를 높여 문화 향유권을 신장하기 위하여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선정하여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음'을 2015년부터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2항(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제15조의 3항(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 및 향유를 위하여 경제적·물질적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접근하기에는 여전히 물리적·심리적 제약이 따른다.

특히 신체적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농인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예술교육 현장, 영화관, 공연장 등에 진입한 후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문화 예술 환경이 청각 또는 음성언어 중심으로 전달되는 소리 정보 중심의 환경이라면 시각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농인이 예술이나 스포츠 관련 교육이나 공연에서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인에게 수어통역이나 시각적 텍스트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농인이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하여 농인에게는 예술적 콘텐츠 생산 및 수용 차원에서의 제한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최승철 외(2012)의 조사에서는 농인이 수어통역사를 요청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모두 제공했다는 문화시설이 한 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장 문화예술작품 해설사가 있는 코스에서도 수어통역사를 제공하지 않은 곳이 46곳 중 44곳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장애인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국내 다수의 법률들이 문화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농인에게는 기관이나 지역에서 여전히 능동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영화 관람의 경우 자막이 제공되는 한국 영화는 월 1회 1편 상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인은 자막이 없어 볼 수 없는 한국 영화 대신 외국 영화를 주로 관람하게 된다. 전시회를 찾는다 해도 이어폰을 통해 작품 설명을 하기 때문에 농인은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농인의 문화 예술 향유는 쉽지 않다.

그나마 다양한 예술 장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 매체인 TV 방송에서는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 및 시행령 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에서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 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방송 사업자들이 장애인방송(폐쇄 자막, 수어통역, 화면해설)을 의무 편성할 수 있도록 2015년 5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5-4호로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농인을 위한 폐쇄 자막이나 수어통역 방송을 중앙지상파는 2013년 12월까지 자막 100%, 수화통역 5%를, 지역지상파는 2015년까지 이런 기준에 도달하도록 조치하였다. 이 고시에 의해 유료방송도 2016년 12월까지 위성 및 지역 채널방송은 자막 70%, 수화통역 4%, 보도•종편은 자막 100%, 수화통역 3%를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림 7-1] 수어통역과 자막 송출 장면
※출처: KBS 뉴스 12(2017. 11. 17일자)

2. 농인의 표현 문화 예술

세계적으로 농인 예술가에 의해 창작되는 예술, 문학 그리고 미디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농인에 의한 예술 작품이고, 두 번째는 농인 예술가가 청각장애 경험이나 농인 문화, 그리고 수어에 초점을 맞추어 청인이 보통 사용하지 않는 시각과 촉각을 이용하여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작품 활동이다. 미국에서는 농인 예술가들이 신체적·문화적으로 경험한 것을 시각 예술로 표현하는 "De'VIA(Deaf View/Image Art)"가 있다. 농인의 일상생활 경험과 농 문화 환경에서의 농인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이미지를 통해서 농을 통찰할 수 있게 나타낸다. De'VIA는 농인 예술가(Deaf artists)를 대표하긴 하지만 농인으로서 일반 예술 활동을 하는 농인 예술가들(Deaf artists)과는 달리 농인의 관점에서 농인의 경험을 표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권리가 박탈된 농인 공동체 예술이지만 이를 통해 농인 예술가는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주류 문화에 대한 그들의 저항심을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얼굴의 눈, 코, 입, 귀, 손 등을 강조하거나 두드러지게 과장된 모양으로 표현한다.

[그림 7-2] 미국농이미지예술협의(De'ARTivists United (D^AU) 교육과정 웹사이트 이미지
※ 출처:https://devartivistunited.wordpress.com/devia-curr/

이러한 것은 농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므로 농인이거나 농인 부모의 자녀(CODA)가 De'VIA 예술가가 될 수 있다. De'VIA는 갤러댓대학교에서 1989년에 개최된 Deaf Way 예술제를 개최하기 직전 워크숍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당시 워크숍에 모인 농인 예술가들은 농인 이미지 예술(Deaf View/Image Art)을 줄여서 "De'VIA"라고 명명하며 농인 문화 예술(Deaf Culture Art)을 정의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처음 사용되었다. 국내에서는 생소할 수 있는데,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클러스자(Klusza)는 청인 아기에게 수어를 가르치기 위한 베이비 사인(Baby sign) 운동이 인기 있는 것과는 달리, 청각장애 아기는 말

하기 학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수어 학습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의 비디오 출판물을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대단한 아이러니: 농인 아기와 청인 아기'는 대표적인 저항 "De'VIA"이다. 한편 국내에서 변승일 화백은 2003년 초대전에서 레코드판 위에 소리의 울림을 작업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빗대어 나타내기도 하였으며, 코다 이길보라 감독의 다큐 '반짝이는 박수소리'의 수어 문화, 농맹인 구경선 작가의 '베니의 일상'에서 나타난 토끼 베니의 귀 등이 De'VIA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3] '대단한 아이러니: 농인 아기와 청인 아기'
※ 출처: https://www.rit.edu/~w-dada/paddhd/publicDA/main/expressionsofculture/DeVIA/Posters/DeVIAThemesResistance.htm

[그림 7-4] 다큐 '반짝이는 박수소리'

[그림 7-5] 구경선 작가의 '베니'
※ 출처: EBS 다큐프라임 4부 봄(SEEING)의 기적

최근 디지털 예술, 만화영화. 패션 디자인, 음향 예술, 메이크업 예술, 그래픽 디자인, 영화, 그리고 요리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예술의 표현 방식을 접목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 활동은 직업과 연계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1) 시각·촉각 예술

시각·촉각 예술은 시각이나 촉각을 활용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행위로서 시각·촉각이 발달한 농인이 가장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는 예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예술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으며 1만원권 지폐의 세종대왕 초상을 그리기도 한 김기창 화백은 농인 화가이다. 그는 동양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자유로운 그림을 추구함으로써 전통 회화를 현대 회화로 승격시킨 예술가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이미 작고한 유남식 화백, 민병영 화백,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박상덕, 최일권, 오효석 등 농인 화가들이 한국 화단에서 인정받고 있다. 근원 이영미 작가는 농인 최초로 전국 규모 이상 단위의 모든 서예공모대전의 대회 운영권과 작가 선발 심사권이 부여되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부문 초대 작가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림 7-6] 운보 김기창 기념전시회

[그림 7-7] 2012년 청주문화관에서 열린 서예가 이영미 다섯 번째 개인전 작품 중에서
※ 출처 : '묵향으로 열어가는 사랑의 세상'

또한 2015년 한 언론사에서는 30여 년간의 혹독한 수련으로 조선분청사기를 재현한 농인 임경문 도예가가 전통 도요를 열게 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그는 한국 분청사기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일본에서 2차례 전시회를 가졌으며, 자신의 철화 사발 3점은 동경대에 기증까지 하였다. 하지만 임경문 도예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기장 도공 34인에 등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의 부재로 2005년부터 전시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농인 작가들이 동양화나 서양화, 도예 등에 머물지 않고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 공연 예술

(1) 음악

마림바, 실로폰, 기타, 피아노, 첼로, 드럼 등 여러 악기를 가지고 국내외 공연을 했던 남녀 농인 청년으로 구성된 '한국농아연주단'은 청력 손실이 음악을 연주하는 데 결코 제약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아인연주단' 외에 농인들이 직접적으로 음악 활동을 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수어 찬송, 대구영화학교 출신으로 구성된 한국장애인소리예술단의 수어 합창 공연 정도가 음악 활동의 전부였다. 이후 음악 활동은 2005년 창단된 '비버데프예술단(단장 김영민)'의 수어 공연을 통해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드문 농인에게 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2007년 제주도농아복지관에서 손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빚어낸다는 뜻을 가진 '손소리빛 연주단'을 창단하여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였다. 현재는 '라온제나'로 밴드명을 바꾸고 '가온누리장애인예술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순수 음악 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소리와 관련된 것을 예술로 승화시킨 농인 사운드 아티스트로 재미교포 크리스틴 선 킴(Cristin Sun Kim)이 있다. 그녀는 소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그녀가 2016년 한국에 와서 보여준 작품은 '기술을 요하는 게임 2.0'이다. 그것은 라디오 모양 장치에 붙은 안테나를 빨랫줄처럼 매달린 선에 대고 서서히 움직이면 사람에게 소리가 들리게 하는 작품이다. 그녀의 이러한 발상은 독일 베를린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미술관에서 시각 예술 대신 소리만을 보게 된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소리 인지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소리는 농인의 삶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듣지 못해도 소리가 삶의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 예술의 소재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그림 7-8] 농인 예술가 크리스틴 선 킴이 2015년 TED에서 '매혹적인 수어 음악'에 관해 강연하는 모습
※ 출처: TED 홈페이지

[그림 7-9]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기술을 요하는 게임 2.0'의 모습

(2) 무용

무용은 삶의 경험과 감흥을 신체로 표현하는 예술양식이다. 서울농아학교의 무용 교사 조완희를 단장으로 한 서울농아무용단이 서울장애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개막공연으로 펼친 30분분량의 무용극 '빛'을 비롯하여 선녀촌, 꼭두각시 등 17개 작품을 발표하였지만 이후 무용 분야에서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그림7-10] 발레리나 고아라
※ 출처: KBS 인간극장(2017.11.6)

'신이 내린 발레리나'라고 표현할 만큼 두각을 나타낸 농인 발레리나 강진희는 조승미 발레단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었다. 그러나 2004년 돌연 무대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재기를 위해 2007년 '조이 발레단'을 직접 창단하여 리더로 무대에 섰으나 운영난으로 뚜렷한 활동을 보이지 못하였다. 이후 발레리나 고아라가 새로운 유망주로 떠올랐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 외에도 국내 유일의 농인 스트리트 댄서팀의 활약이 돋보인다. 그들은 농인 여성 김지연, 김희화, 이혜진 3명으로 구성된 <윙크루>이다. 2016년

에는 아시아 대표로 아시아 데프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했으며, 2017년에는 홍콩 등 해외공연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 농인에게 댄스를 지도하기 위한 워크숍을 준비하는 등 댄스가 귀로 듣는 소리에 의존한다는 편협한 시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멤버 중 한 명인 김지연은 뮤지컬 극단 '난파'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2017년 뮤지컬 <난파클럽>의 농인 연출가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림 7-11] 농인 댄서팀 <윙크루>
※ 출처: DBN 뉴스

[그림 7-12] 농인 댄서이자 극단 난파의 2017년도 공연 '난파클럽' 연출가 김지연씨
※ 출처: 한국장애인재단의 '2017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전 UCC' 중에서

그 밖에도 댄스스포츠 선수로 알려진 김홍인, 치어리딩 선수권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치어리더팀 '데프걸스' 등을 통해 농인의 예술 영역에서의 활동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청력 손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열정과 노력이 돋보인다.

(3) 연극·뮤지컬

관객 앞에서 몸짓과 언어로 표현되는 연극은 무대와 객석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연극은 인간 내면에 깊숙이 파고들어 감정을 드러내 보이게 하며 희로애락을 가장 원초적으로 표현하게도 한다. 역사 속 대표적 극단으로는 벙어리극단, 한국농아극단, 청음농아극단이 있다. 벙어리극단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인 극단으로 조선농아협회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창단되었다. 배우 전원이 농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사는 수어로 표현하였고 청인 변사가 음성으로 대사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극을 진

행하였다. 그럼에도 수어를 전혀 모르는 청인 관객이 울고 웃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보면 농인들의 연기가 탁월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주요 작품으로 <남모르는 사상>, <배다른 형제>, <붉은기 땅에 떨어지는 날>, <쓰라린 세상>, <성좌도> 등 모두 다섯 편을 무대에 올렸으나 자금난으로 해단되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한국농아극단(대표 이상근)이 1984년 1월에 창단되었다. 이 극단은 창단 공연작품 <섬, 소리, 빛>과 뮤지컬을 표방한 침묵의 뮤지컬 <미완의 언덕> 등을 공연하였고, 198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세계무언극제'에 참가하여 각 참가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9년 창단 7주년 기념작품으로 <침묵의 빨간 피터>의 전국순회 공연을 끝으로 활동이 흐지부지 되었다. 청음농아극단은 한국청각장애자복지회 대표 김완(김기창 화백의 장남)이 선진국에 비해 농아극단의 활동이 부진한 국내사정을 안타까워하던 중 제3무대 대표 정운 씨를 만나 1987년에 창단한 극단이다. 1987년 12월 첫 번째 작품 <혼의 소리>를 시작으로 국내외 순회 공연도 추진되었다. 이 같은 활동에 힘입어 1989년에는 제25회 백상예술상 특별상 수상, 1990년 동아연극상 특별상 수상 등으로 장애인 연극 활동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었다. 1991년 7월에는 일본 세계농아대회에 초청되어 <탈의 소리>를 공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대표의 자리 이동, 단원들의 생계문제 등으로 인해 1995년 결국 해단되고 말았다. 이 외에도 에파타 농인 극단(단장 홍승호)과 뮤지컬 계통의 명맥을 잇는 K수화 뮤지컬 예술단(전 주사랑농아예술단) 등이 활동해 왔다.

2000년대에는 농인 관련 단체에서 농인의 문화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예술 공연 분야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극과 뮤지컬 공연을 기획・운영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농아인협회 하남시지회와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의 뮤지컬 공연, 대구농아인협회의 연극 공연이 있다. 대구농아인협회의 극단 '농담(전 부에나비스타)'은 기획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운영되어 3년간 <지하철에서>, <남과 여(2013)>, <시간 속으로(2014)>, <옛날 옛적에(2015)>를 공연하였다. 그러나 열정을 다한 농인 출연자들이 농인 연기자라는 전문예술인으로의 전업을 꿈꿀 수 없는 사회적 상황과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 운영이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공

연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지역 사회의 연극계에서 연습실로 사용할 수 있는 소극장 제공과 연기 지도 등의 도움을 받았으며 지역 사회 연극계에 소속된 전문가들과 대구농아인협회의 회원들 간에 협업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농인은 예술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농아인협회 하남시지부는 '대중뮤지컬 수어로 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형제는 용감했다> 등의 뮤지컬 공연을 진행해 왔으나, 재정과 저작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예술 전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2015년 '수화극회 수'로 거듭나면서 농인에게 문학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때 진행은 대면 낭독 형식의 책읽기 형태로 하지 않고, 문학 작품의 작가를 초대하여 농인 사회자가 진행하는 토크쇼와 작품의 일부를 뮤지컬이나 노래로 담아내어 발표하는 버라이어티쇼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7-13] '형제는 용감했다' 공연의 한 장면
※ 출처: 경기도농아인협회 하남시지회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논버벌(Non-Verbal) 퍼포먼스(무언극) 극단 '난타'는 2009년 처음 시작된 이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인 전문 극단이다. 매년 오디션을 통해 농인 배우를 선발하고 이들은 연출가로부터 안무와 춤을 교육받은 후 연 1회 무대에 서고 있는데, <달의 소녀>, <The pianist> 등 매년 새로운 수어 창작 작품이 관객을 만나고 있다. 여기서 나온 공연 수익은 다시 농인 배우 양성 사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어 뮤지컬 공연은 농인 관객을 위해 무대 한쪽

에 자막으로 대사가 나오며, 음악과 노래는 녹음으로, 농인 배우의 대사는 청인의 음성으로 대신해 주고 있다.

[그림 7-14] 극단 난파의 2016년 공연 '친절한 이웃들'의 한 장면
※ 제공: 서울특별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그림 7-15] 극단 농.담의 '시간 속으로'의 한 장면
※ 제공: 대구광역시농아인협회

3) 문학

문학은 언어로 표현되는 예술 영역이며 구어 문학과 도서 문학 모두를 포함한다. 세계 도처에는 문자 형태 없이 구어로만 생활하는 민족이 다수 있다. 이러한 민족의 문화에서는 문자가 없어 활자로 기록될 수 없지만 문화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구전 이야기나 시 등의 구어문학이 풍부하다. 농인 공동체 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문자 체계가 없는 수어 역시 하나의 언어로서 대대로 전해질 수 있는 수어 구전 문학이 존재한다. 이는 도서 문학처럼 수어 문학을 통해 농인 공동체가 풍부한 문학 역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어 문학은 수어 사용자 간에 스토리텔링(이야기하기)을 통해서 시나 상황을 연출하는 희곡, 유머, 그리고 민속학 등을 의미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과거 특별한 문화 활동이 없었던 농인들은 농인 캠프, 농인 스포츠나 모임 등 그들의 공동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농인들 간의 유머나 가십 등을 수어로 자주 표현하였으나 그것이 수어 문학이라고 의식하지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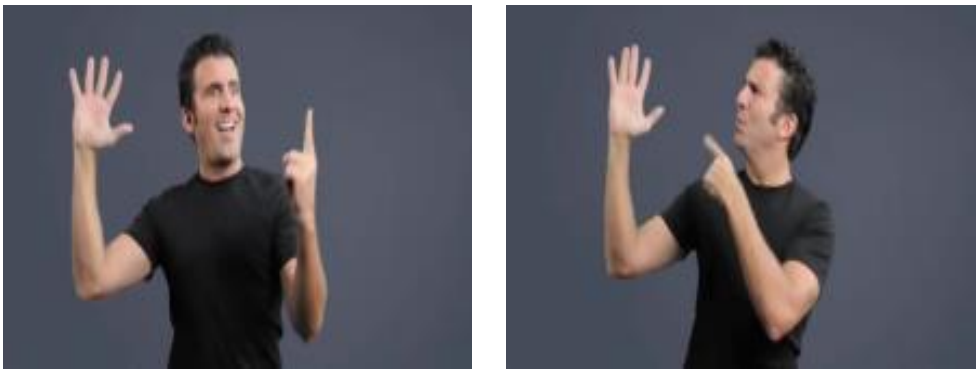
했다. 한국의 농인 사이에서 유머로 떠도는 아래의 '농유머' 이야기는 간단한 내용이지만 익살스럽고 해학적이다. 이러한 수어 문학에서 농인의 삶과 세상을 해석하는 통찰력을 볼 수 있다. 수어 문학이 그 자체의 형식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는 한국어로 번역됨으로써 의미가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수어 유머를 문학의 한 장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안타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농 유머]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두 농인은 이사하지 않고 예전 집 그대로 살고 있는 한 농인의 집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약속한 날이 되어 일찍부터 친구의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로 잔업을 하게 되어 늦은 밤에야 갈 수 있게 되었다. 두 손 가득 먹거리를 사 들고 친구가 사는 동네에 도착하였지만 집들이 모두 비슷해 보이~~커도~~ 하고 게다가 불까지 꺼져 있어 컴컴하니 도무지 친구의 집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 농인은 '자동차 경적을 울리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청인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모두 불을 켜겠지!' 하고 생각하며 '빵빵' 경적기를 눌렀다. 역시나 예상대로 그 동네 집 안의 불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농인은 단 하나의 집만 어두운 채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집이 바로 자신의 농인 친구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된 농인은 '바로 저기구나!'하고 그 집을 방문해 자신의 농인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농인들에 의해 수어를 통해 대대로 전해지는 수어문학(Byrne, 2013)과 농인 작가에 의해 구성되는 도서 문학을 모두 농인 문학으로 정의하고 있다(Holcomb, 2013; Irene W. 외, 2016). 유명한 ASL 작가 앤드류 번(Andrew Byrne)은 ASL 문학에 관한 연구에서 ASL 문학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필수적인 특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자 기록물을 철

저히 배제하고 수어로 진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ASL 문학을 표현하는 내레이터의 조건으로 청중을 잘 이해하고 청중과 함께 소통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만의 기호 등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야기 속에 운율을 넣는 것에 능숙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어구(語句)나 행(行)의 끝, 또는 일정한 자리에 수형, 수동이나 수위를 통해 각운이나 리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장르마다 다른 패턴을 확고하게 잘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그림 7-16] ASL 스토리텔링의 예. 'The Two Faced Friend(ASL)' by John Maucere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SiquwxJAa8&list=RDQMFBCb3GwLqqQ

[그림 7-17]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이솝 우화' 수어영상도서
※ 출처: 국립생태원

수어 문학의 범주에는 농인 문화 행사에서 수어로 주고받는 이야기나 농인에 대한 심한 억압이나 차별을 수어를 사용하여 해학적으로 묘사하는 것 등도 포함한다(Byren, 2013; Irene W. 외, 2016). 이러한 수어 문학 속에서 농인은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성장하기도 한다. 특히 이중 문화 속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성장해 온 농인들에게 있어 정체성 발견과 성장은 곧 청각장애인(deaf)에서 농인(Deaf)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농 정체성을 통하여 자신들을 환영해 주는 농인 공동체 속에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유명한 청각장애 시인 박용수는 농인 공동체에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 문화를 향유하는 전형적인 농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논픽션 현상공모대전에 작품을 응모하여 입상한 이력이 있는 박병재(전 무산농아학교 교사)와 김영관(현 춘천계성학교)도 20대에 실청한 중도장애인이다. 그나마 1988년 강주해는 농인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필 형태로 <농아인 그는 누구인가?>를 썼으며, 농인 공동체 소속의 농인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보이는 소리 들리는 마음>(2014)이라는 책을 통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담아낸 농인 작가 노선영에 의해 농인 문학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그녀의 책은 장애인이라는 것에 상처받고 절망적이었던 이야기와 모든 것을 이겨내며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한 농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4) 미디어 예술

매체 또는 수단이라는 뜻의 미디어는 불특정 대중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신문, 잡지, 도서 등의 인쇄 매체와 TV, 라디오, 영화 등의 시청각 매체가 대표적이다. 현대 사회에서의 미디어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상호 관계 속에서의 심리적·사회적 영향을 미치는데, 농인 공동체에서의 미디어 예술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인쇄매체

우리나라 최초의 농인을 위한 잡지인 '침묵의 벗'(1959)과 농인 역사상 최초의 신문 '한국청각장애자신보'(1976)를 시작으로 출판 분야에서도 한국 농인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종교 단체에서 발행되는 기관지 외에 변승일의 '전국복지월보'(1990), '아름다운 손짓'(1997)과 강재희의 '낮은 자의

행복'(1998)은 경영난으로 지속적으로 편찬되지는 못하였지만 농인과 수어에 관심 있는 청인 독자를 겨냥한 만큼 그 의미는 컸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쇄 매체 관련 분야에서 직접 기획에서 디자인과 출판사 운영까지 하는 농인이 생겨나면서 출판 사업도 농인의 주요 활동 영역이 되고 있다.

[그림 7-18] 아름다운 손짓
※ 제공: 안영회

[그림 7-19] 낮은자의 행복
※ 제공: 강재희

(2) 영화

<작은 신의 아이들>, <아다다>, <비욘드 사일런스> 등 농인을 소재로 한 영화는 다양하게 제작·상영되어 왔으나, 영화 제작에 농인이 직접 나선 것은 2005년부터이다. 농인에게 영화 분야는 관심이 있어도 의사소통의 문제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현장에 뛰어들어 체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불모지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농인의 언어인 수어로 하는 영화를 만들 수 없을까를 고심하다가 농인끼리 자조모임으로 출발한 농인영화동호회가 농인 영화 창작집단인 데프미디어(대표 박재현)로 발전한 사례가 있다. 데프미디어 대표 박재현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소리없는 절규>를 제작하였다. 이 영화는 청인의 도움 없이 순전히 농인의 힘만으로 제작한 최초의 영화다. 또한 박재현 감독은 본인과 스태프 3명 외 20여 명의 후원뿐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구적인 노력으로 20분 남짓의 단편영화를 12편이나 제작했다. 영화에 대한 열정만으로 완성시킨 첫 번째 영화 <친구>를 시작으로, 일산인권영화제에 초청된 <소리없는 절규>, 2006년 4월 장애인권영화제 수상작으로 상영된 <어느 애비의 삶>(15분), 서울 및 부산인권영화제등에 초청되어 상영된 <그림의 떡> 등 12편의 작품 중 11번째까지는 모두 흑백의 무성 영화였다. 그는 일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해

지는 차별들을 개선하고자 영화를 구상하고 농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영화를 만든다고 하였다. 그는 예술 분야에서 농인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직접 창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제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수어통역 바우처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했다. 최근 그는 농영화 제작 및 농인 후배를 양성하기 위한 데프미디어센터를 짓는 것을 꿈꾸며 <한국의 농역사> 제작에 열중하고 있다.

[그림 7-20] 데프미디어 박재현 감독 인식개선 홍보 영상 촬영 장면(13/4/7)
※ 출처: 데프미디어

[그림 7-21] <조선농역사> 상영 장면
※ 출처: 데프미디어

장애인인권영화제의 시작은 많은 농인이 아마추어 영화 제작자로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전문 지식은 없지만 주인공, 연출자, 시나리오 작가 모두 농인으로 구성되어 영상을 제작해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농인의 진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영화라는 작업이 농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3.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활동

농인에게 스포츠는 서로 만나고 참가하고 경쟁하며 어울리는 멋진 기회를 제공한다. 청인과 같이 농인도 스포츠를 사랑하며 이를 즐기기 위해 스포츠 단체에 참가하고 청인들과의 경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농인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성과에 대해 청인은 들을 수 없는 역경에 집중하며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였다고 표현하지만 농인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영광스러움을 강조한다.

1) 참여와 향유의 스포츠

초기 농인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스포츠 종목은 바둑과 축구였다. 두 종목 모두 1980년대부터 매년 전국대회가 실시되었다. 1980년대 초반 바둑을 좋아하는 농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농아인 바둑대회가 1983년에 처음 개최되었다. 이후 2010년까지 28회에 걸쳐 계속되었으나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대회의 명맥이 이어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많은 농인들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정신을 기르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한국농아인축구는 한국농아복지회(현 한국농아인협회) 산하에 한국농아인체육회가 설립되던 1982년에 청각장애자복지회의 주최로 개최되었다. 제1회 전국농아인축구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2003년 울산대회까지 매년 개최되었으며, 농인에게 특별히 각광받는 스포츠 종목이었다. 이 대회를 위해서 각 지역에서는 대회 한 달 전에 농인축구단을 꾸려 대회에 참가시키기 위한 아마추어 경기를 진행해 왔다. 이후 2004년부터 전국농아인축구대회는 종합체육대회의 성격인 전국농아인체육대회로 변경되면서 종합체육대회 속에 포함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농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대회는 1981년부터 개최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다. 농인은 초창기에 청각장애 종목인 육상, 수영, 역도, 유도 종목에 참가하였으며, 현재는 배드민턴, 볼링, 사이클, 탁구 등이 더해져서 총 8개 종목에서 남녀 경기로 나누어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학교 체육 활동과 농인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체육대회를 통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농아인 체육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스포츠를 통해 농아인의 체력 단련과 사회 통합은 물론 유능한 체육인재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1982년 한국농아인체육회가 설립되면서 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활동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1975년 4월 한국최

초 농아야구팀인 돈암교회 농아야구팀(단장 겸 감독 박집원)이 창설되었고 우리보다 30여 년 앞선 일본팀을 초청하여, 한일 친선 야구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농인 스포츠팀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2002년 9월 충주성심학교에 농아인고교야구팀이 창단되면서 한국농아인야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충주성심야구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농인 사회에는 야구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청주지역에 드래곤이어즈라는 성인팀이 만들어지면서 이어 전국적으로 농성인 야구팀의 창단이 줄을 이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야구팀은 모두 14개이다. 또 농인 박대순 심판은 충주성심학교 야구 선수 출신으로 KBO 심판과정을 이수해서 최초의 공인심판 자격을 얻어 농인야구협회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관련 단체 및 주요 행사

우리나라 장애인체육 환경은 장애인체육업무가 2005년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면서 대한장애인체육회라는 주관 부서 설립과 함께 전문체육으로 발전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한국농아인체육회는 2006년에 단체명을 대한농아인체육연맹(KDSF: Korea Deaf Sports Federation)으로 변경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가맹 단체로 등록하였다. 이후 전국 시도협회 산하에는 대한농아인체육연맹의 시·도 연맹이 설립되었고, 사격, 당구, 게이트볼, 육상, 배드민턴, 야구, 농구, 볼링, 컬링, 사이클, 축구, 유도, 탁구, 태권도 등 14개의 가맹 경기단체가 생겼다.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사단법인 분리 독립을 추진한 결과 대한농아인체육연맹은 2016년 말 사단법인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으로 새롭게 출발하며 농아인생활체육의 활성화와 국내외 농아인체육경기대회 및 국제 스포츠 교류 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인의 공식적인 국제 대회는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ICS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Sports for the Deaf)가 주관하는 농아인올림픽(Deaflympics, 데플림픽)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농아인체육대회 등 대륙별 종합

경기대회, 종목별로 개최·운영하는 세계선수권대회가 있다.

데플림픽(Deaflympics)은 스포츠를 통한 심신 단련과 세계 농인 간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4년마다 개최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impic Committee)의 승인을 받은 4대 올림픽 중 하나이다. 1924년 파리에서 처음 열렸으며, 농아인올림픽의 공식 대회명은 18회까지 WGD(World Games for the Deaf)였다가 2001년 19회 하계대회부터 데플림픽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데플림픽은 4년마다 개최되며 올림픽 경기와 마찬가지로 매 2년마다 하계 대회와 동계 대회로 나누어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1984년 CISS(현 ICSD)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198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15회 대회부터 농아인올림픽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는 1984년 홍콩에서 개최된 아시아농아인축구대회를 공식 인준을 받은 첫 경기로 본다. 초기에는 대회가 2년마다 개최되다가 현재는 4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과 2012년에 서울에서 두 번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아시아태평양농아축구선수권대회, 종목별 선수권 대회 등 다양한 경기 대회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농아인대회, 농아인올림픽대회, 종목별 세계 선수권 대회 등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농인으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농 정체성 회복을 할 수 있는 내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문헌

강창욱 외 (2012).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

국립장애인도서관 (2016). 농인과 도서관이 만나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방안 토론회.

김경진 (2004). 청각장애 대학생의 문화 실태 연구. 언어치료연구, 13(4), 23-39.

김승현 외 (2013.). 시청각 장애 보조 방송 서비스 시험환경 개발. 2013년도 한국방송공학회 하계 학술대회, 134~137.

김인철 (2015. 2. 18.). 화면 크기 조정 '스마트 수화 방송' 올해 실험 방송. ≪연

합뉴스≫.
김철현 (2012). 청각장애인 역사문화관광에서의 제약요인과 선택요인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영민·김원영 (2015). 시·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연구:공연예술 접근성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9(2), 99-128.
이준우·김연신 (2011). 데프 앤 데프: 농인과 친구가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서. 경기도:나남.
조혜전·정연경 (2012). 국내 공공도서관의 청각장애인 서비스 지침 개선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3(2), 223-244.
청음회관 (2005). 청음 20년사.
최승철 외 (2012). 2012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모니터링.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농아인협회 (2016). 한국농아인협회 70년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예술의 가치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콜로퀴엄 자료집
홍예리·김세훈 (2016). 청각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경험에 대한 연구:자기관리역량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7(2), 143-164.
홍종배 (2011). 국내 장애인방송접근권 보장정책의 현황, 성과 및 향후 과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장애인 정보접근권 이행 강회. 국제 콘퍼런스 발제문.
Bauman, H-Dirksen L. & Murray, Joseph J. (2015). *DEAF GAIN*. University of Minnesota.
Byrne, A. (2013). *American Sign Language(ASL) literacy and ASL litertur e: A critical appraisal(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Holcomb, T. (2013). *Introduction to American Deaf culture*. New York: Ox ford University Press.
Leigh, Iren W., Jean F. Andrews. & Raychelle L. Harris. (2017). *Deaf cultu re : exploring deaf communities in the United States*. PLURAL PUBLIS HING.
경기도농아인협회 하남시지부의 수화뮤지컬 갈라쇼 '맨 오브 라만차' https://ww w.youtube.com/watch?v=_Ffn2abtF0I
국립장애인도서관 http://nlid.nl.go.kr/
나는 귀머거리다. 대한민국서 청각장애인이 살아가는 이야기 http://comic.naver.

com/bestChallenge/list.nhn?titleId=498587
부에나비스타 공연(1:35) https://www.youtube.com/watch?v=DFh32LiDUVw
대한농아인야구협회 http://www.kdeafbaseball.com/default/
대한농아인체육연맹 http://www.kdsf.or.kr/
데프가이 애니메이션 http://www.thatdeafguy.com/
소리에 의한 진동을 시각화한 뮤직비디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63698093
운보 김기창 2014년 전시회 관련 http://blog.naver.com/souldeaf/220019805394
이영미 작가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3020150521132508694862
장애인영화제 사업 Persons With Disabilities Film FESTIVAL(PDFF) http://www.pdff.or.kr/
창작뮤지컬 난파 동영상 기사(2014.12.5.)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496627
청음 농아 극단 '혼의 소리'외(대한뉴스 1745호 수록) http://ehistory.go.kr/page/pop/movie_pop.jsp?srcgbn=KV&gbn=DK&mediaid=30000271&mediadtl=42161&quality=W
한국농아방송(DBN) http://cafe.daum.net/deafon
한국농아연주단 연주 링크 http://www.ehistory.go.kr/page/pop/movie_pop.jsp?srcgbn=KV&mediaid=377&mediadtl=3215
국립생태원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이솝우화' 영상도서. http://www.nie.re.kr/brdartcl/boardarticleList.do?brd_id=BDIDX_Q0TLz53BRUn68Fciy8ksO1&menu_nix=bW8pPI7x&subnix=hFqZJU8n
The Enchanting Music of Sign Language | Christine Sun Kim | TED Talks https://www.youtube.com/watch?v=2Euof4PnjDk
세계일보(2013. 4. 20). "장애인, 문화생활은 꿈"... '높은 차별의 벽' http://www.segye.com/newsView/20130419003758
The Two Faced Friend(ASL) by John Maucere. https://www.youtube.com/watch?v=cSiquwxJAa8&list=RDQMFBCb3GwLqqQ.

제8장 농인 관련 국제기구와 활동

(요약)

현대사회의 이슈는 한 국가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농인은 시각 언어인 '수어'를 사용한다는 동질성 때문에 농사회는 하나의 국가를 너머 세계로 그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제 농사회의 이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심포지엄, 영화제, 각종 스포츠 대회 등 국제 교류 기회가 한층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 농인의 참여 확대를 위해 국내 농인들은 국제 교류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농사회의 국제 교류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구와 주요활동, 그리고 국내 농인의 국제 교류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급속한 발전은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함과 동시에 세계를 하나의 생활 단위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는 사람,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 등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빈곤, 인권 등의 문제도 더 이상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국가와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국제사회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인의 권익 옹호 및 건전한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한국농아인협회는 세계 각국의 농인 정책 및 인권문제에 관한 흐름과 변화상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장에서는 농사회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구와 주요 활동, 그리고 국내 농인의 국제 교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제기구

1) 세계농인연맹

(1) 세계농인연맹 소개

경제사회이사회(ECOSOC)를 포함하여 유엔에서 자문 자격을 갖고 있으며 국제장애인연맹(IDA: International Disability Alliance)의 창립 회원이기도 한 세계농인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Deaf, WFD)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애인 단체 중 하나이다. WFD는 전 세계 농인의 불완전한 접근성, 불평등한 인권 보장, 농인에게 미칠 영향력 있는 정책 결정 참여의 제한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51년 9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창립되었다. 제1회 WFD 총회에는 25개국의 농인단체 대표만이 참석했다. 현재는 전 세계 5개 대륙 135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세계 농인의 인권 복지, 교육, 문화, 수어 등 농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일하는 국제 비영리 및 비정부기구로서의 그 위상이 막강하다.

1987년 핀란드 정부와 당시 회장 리사 카우피넨(Liisa Kauppinen) 박사가 이끈 핀란드농아인협회의 지원에 힘입어 WFD 사무실은 핀란드로 옮겨졌다. WFD는 1950년대 후반부터 유엔 기관들과 협력해 왔는데,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8년 발표된 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지지하고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각국의 CRPD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WFD의 조직은 회장, 부회장 및 9명의 정규 회원의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농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다. 그 다음으로 지역별 사무국이 운영 중인데, 현재는 남아프리카 지역(RSSA: WFD Regional Secretariat for South America), 멕시코와 중미 및 카리브 지역(RSMCAC: WFD Regional Secretariat for Mexico, Central America and the Caribbean), 아시아 지역(WFDRSA: WFD Regional Secretariat for Asia),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지역,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 지역(WCAR: WFD Regional Secretariat for Western and Central Africa), 중동의 아랍 지역(RSAR: WFD Regional Secretariat for the Arab Region), 오세아니아 지역(RSO: WFD Regional Secretariat for Oceania), 동유럽 및 중동 아시아(EEMARS: Eastern Europe and Middle Asia Regional Secretariat of WFD) 및 지역 협력 기구로서 참여하는 유럽 연합 농인회 등 8개의 지역 사무국과 1개의 협력기구가 있다. 이 외에도 실무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사무국의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 등이 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는 농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1987년 핀란드의 에스포시(市)에서 조직되어 이듬해 헬싱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1995년 오스트리아에서는 WFD 총회에 앞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세계농청소년연맹(WFDYS: World Federation of the Deaf Youth Section)을 결성한 후, 어린이 캠프(9-12세), 청소년 캠프(13-17세), 청년 캠프(18-30세)를 4년마다 개최하면서 농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훈련, 청소년 단체 지원 및 옹호 활동과 네트워크 및 문화 교류를 제공하고 있다.

유엔 주도의 국제 조정 회의(International Coordination Meeting of Youth Organizations)의 동반자일 뿐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 주요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대표적 활동

세계농인연맹은 총회(General Assembly), 세계 의회(World Congress), 국제 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 국제 농인 주간, 권익 옹호, 접근성 보장 및 세계수어통역사협회(WASLI: World Associat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와 함께 국제수어통역사 인증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총회(General Assembly)는 WFD의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4년마다 개최된다. 회비를 완납한 모든 정회원 대표단은 제안된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위해 국제수어가 사용되며 모든 대표는 국제수어에 대한 실무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WFD 총회가 있기 전에 통상적인 하루 일정으로 워크숍이 개최되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인권 활동과 관련된 주요 안건 및 의제에 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세계 의회(World Congress)는 WFD 총회 다음 날 개최되는데, 회원국가의 협회, 청소년 단체 및 세계 정보 교환 및 WFD 비전, 사명 및 목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1967년 폴란드 바르샤바 대회부터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개최되었으며, 이는 회원국이 주최하는 세계농인연맹의 공식행사이다. 일반회원은 세계 의회 유치를 위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WFD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 확정된다. 차기 WFD 세계 의회는 프랑스 농아인회의 주최로 프랑스 파리에서 2019년 7월 23일-27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2023년에 개최될 세계 의회 유치를 위한 입찰 요청은 2018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8-1> WFD 세계의회 개최지 및 주제

개최연도	개최지	주제
1951	로마, 이탈리아	-
1955	자그레브, 유고 슬라비아	-
1959	비스 바덴, 독일	-
1963	스톡홀름, 스웨덴	-
1967	바르샤바, 폴란드	청각장애인
1971	파리, 프랑스	진화론 세계의 농아인

1975	워싱턴 DC, 미국	모든 농인을 위한 시민권
1979	바르나, 불가리아	현대 사회의 청각장애인
1983	팔레르모, 이탈리아	난청 오늘과 내일: 현실 &유토피아
1987	에스 포, 핀란드	하나의 세계 - 하나의 책임
1991	도쿄, 일본	평등과 자립
1995	비엔자, 오스트리아	인권을 위해
1999	브리즈번, 오스트레일리아	다양성과 통일성
2003	몬트리올, 캐나다	21세기의 기회와 도전
2007	마드리드, 스페인	수어를 통한 인권
2011	더반, 남아프리카공화국	세계 농인 르네상스
2015	이스탄불, 터키	인간의 다양성 강화
2019	파리, 프랑스	모두를 위한 수어의 언어 권리

국제 콘퍼런스(International Conference)는 일반회원, 준회원 또는 국제 회원 등 회원 누구나 주관할 수 있으며, WFD 총회와 국제 콘퍼런스 사이의 기간에 진행되며 호스트 회원이 재정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 2017년에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었으며, 다음 2021년 국제 콘퍼런스 입찰 요청은 2018년 여름부터 12월 31일까지로 2019년 봄에 주최자가 발표된다.

<표 8-2> 국제 콘퍼런스 개최지 및 주제

개최연도	개최지	주제
2005년	헬싱키, 핀란드	우리의 권리 - 우리의 미래
2013년	시드니, 호주	농인 평등
2017년	부다페스트, 헝가리	수어로 완전한 참여

국제 농인 주간(International Week of the Deaf)은 WFD의 주도로 195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WFD의 첫 번째 세계 의회(World Congress)가 개최된 같은 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9월 마지막 주에 세계 농인 공동체가 경축하는 행사이다. 이 주간에는 농인의 가족, 동료, 정부기관, 전문수어통역사 및 장애인단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국제 농인 주간은 농인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

해 전 세계적으로 옹호 활동을 펼치는 유일한 주간이며 세계 다른 국가들과의 단합을 보여주는 행사이기도 하다. 2017년 국제 농인 주간은 수어가 사회에서 널리 인정되고 사용될 때 농인의 완전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함을 강조하기 위해 '수어로 완전한 참여'를 주제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열렸다.

- 2009년: 농인의 문화적 성취
- 2010년: 농인 교육
- 2011년: 정보 및 통신 접근성
- 2012년: 수어 이중 언어주의는 인권입니다!
- 2013년: 농인의 평등
- 2014년: 인간의 다양성 강화
- 2015년: 수어라는 언어 권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수어로, 나는 평등합니다.

국제 옹호는 농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농인이 참여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인식하고, 농인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세상을 바꾸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의미한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및 2030년 의제 원칙을 추진하면서 세계농인연맹은 수어의 언어권 보장이 모든 분야에서 농인을 평등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을 위해 WFD는 장애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고 UN을 비롯한 국제기구, 정부, 회원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CRPD가 농인 관점에서 이해되고 존중되며, 이행과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인의 인권이 근본적으로 보장되기 위하여 수어의 사용을 촉진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WFD에서는 농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한 WFD의 견해를 강조하기 위해 성명서, 의견서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도 하고 있다.

접근성 보장은 농인이 CRPD에 명시된 정보 및 통신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건강, 교육, 고용, 정의에 대한 접근, 공공 서비스 누리기, 정치 참여, 비상사태나 자연 재해에 대한 정보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농인은 종종 정보 접근성이 낮고 수어로 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보 및 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농인연맹(WFD)-세계수어통역사협회(WASLI)의 국제수어통역사 인증은 증가하고 있는 국제 대회나 경기장에서의 국제 수어통역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국제수어통역사 인증을 위해 국제 수어통역 표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세계농인연맹(WFD)-세계수어통역사협회(WASLI)의 공인 국제 수어통역사 등록 제도와 함께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증의 질 유지와 통역 역량의 증진을 위한 품질 보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 신청은 1년에 1회로 제한되며, 자격 취득 후 5년간 유효하다.

2) 세계수어통역사협회

세계수어통역사협회인 WASLI(World Association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는 2003년 7월 23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4회 WFD 총회에서 세계 각국의 수어통역사들이 모여서 결성하였다. WASLI의 주요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수어통역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어통역사협회가 없는 국가에 협회 설립을 권장하고 통역 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또 국제 콘퍼런스, 스포츠 관련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수어통역사를 지원하고, 농인 및 농맹인의 수어통역에 관련된 일에 협조하며, 영어 등의 음성언어 통역 단체 및 유사 관심사를 지닌 단체에 대한 가교 역할을 하는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누리집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어통역 관련 연구를 장려하거나 수어통역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천적 기준을 마련하고, 수어통역 소비자 및 전문 단체들과 콘퍼런스 및 세미나 등의 교류를 한다. 회원은 국가 회원, 조건부 회원, 후원 회원, 명예 회원으로 구성되며 4년마다 총회를 개최한다.

3)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ICS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Sports for Deaf)는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 대플림픽)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1924년 국제농아인경기대회(International Silent Games)으로 알려진 첫 번째 경기대회는 벨기에, 체코 슬로바키아, 프랑스 등 유럽 9개국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프랑스에서 열렸다. 당시 농인 스포츠 지도자 회의에서 CISS로 알려진 국제농아인스포츠 위원회(불어 약칭 CISS: Le Comité International des Sports Silencieux)를 창립하여 활동하다가 최근 영어 ICSD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초기 9개국으로 시작한 ICSD의 회원국은 약 113개국으로 늘었다. ICSD는 언어적 소수민족인 농인 선수가 경쟁의 절정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농인 스포츠 정신을 기념하기 위하여 “스포츠를 통한 평등”이라는 모토 아래 농아인올림픽대회(Deaflympic), 농아인세계선수권대회와 대륙별 종합경기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농인 운동선수가 아마추어에서 엘리트 수준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기회와 경쟁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데플림픽의 개발 및 홍보를 하고 있다.

[그림 8-3] ICSD의 심볼 마크는 랄프 페르난데즈(Ralph Fernandez)가 2003년에 디자인하였으며 ‘수어, 농 문화, 단일성, 및 연속성’을 하나로 묶어 국제농아인스포츠 공동체의 긍정적이고 강력함을 상징한다.
※ 출처: http://www.ciss.org/icsd/logo

2. 국제 교류 현황

1) 세계농인연맹 활동

대한농아협회는 1959년 세계농인연맹(World Federation of the Deaf, WFD)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협회는 재정이 열악

하여 WFD 총회에 참가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군사 정부에 의해 모든 단체가 해산되면서 WFD의 회원 자격은 유명무실해졌다. 1980년 대한농아협회는 '한국농아복지회'로 재인가 받으면서 WFD에 재가입을 추진하였고, 1983년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개최된 제9회 WFD 총회에 김기창 회장 등 한국 대표가 최초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후 4년마다 WFD 총회에 꾸준히 참가하면서 한국농아인협회의 위상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2005년과 2013년에는 WFD 국제 콘퍼런스에도 참가하였다. 또한 1999년 한국농아인협회 강주해 이사는 세계농인연맹의 이사로 선출되면서 2000년 74차 WFD 이사회를 서울에 유치하여 한국농아인협회의 국제적 위상을 더 높였다.

2) 세계농인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 활동

전 세계 135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WFD는 8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사무국을 설치하고 회원국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WFD의 회원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에 의무 가입되어 있다. WFD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국은 WFD RSAP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호주, 뉴질랜드, 피지 등의 회원국 대표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1년부터 아시아 지역사무국(WFD RSA)이라는 명칭으로 분리,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대표자 회의는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이 회의를 통해 농인 인권이나 복지, 농교육에 대한 다른 나라의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사회의 국제적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국내 활동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10월 경주에서 제21차 WFD 아시아-태평양 대표자 회의를 열었으며, 2011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WFD 총회와는 별개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대표자 회의에서는 이상용 강원도협회장이, 2015년에는 임승택 한국농아인협회 이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국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3) 세계농인연맹 청년회 활동

세계농인연맹 청년회(WFDYS: World Federation of the Deaf Youth Section)에 대한 홍보 부족과 국제 행사에 참가할 만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의 부재, 재정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한국은 WFDYS에서 주관하는 캠프에 단 한 번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었다. 2007년 뒤늦게 스페인 세고비아에서 열린 WFDYS 청년 캠프에 한국 청년 3명이 자비로 처음 참가한 데 이어, 2009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청년회의에서 일본 청년 리더가 WFDYS 주니어 캠프에 관해 소개하면서 한국 농청소년의 WFDYS 가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림 8-4] 제6회 아시아태평양농청년캠프 포스터

[그림 8-5] 2018년 WFDYS 어린이 캠프 포스터

이후 2010년 8월 수어수엘라에서 열린 WFDYS 유소년 캠프에 한국의 농유소년이 처음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2008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청년 캠프에 한국 농청년 대표가 참가하게 되면서 농인 청소년 및 청년의 국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 농청년이 3명이나 WFDYS의 이사로 선출되었다. 현재 국제 교류 경험이 있는 농청년은 현재 한국의 농사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교류 행사에 농인 후배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13세-17세의 농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교육, 국가

교류를 통한 청년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및 각국의 농 문화와 언어의 교류를 목적으로 호주 빅토리아주 필립섬에서 개최된 제6회 WFDYS 주니어캠프에 한국 농 청소년 3명과 한국농아청년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표자 1명이 한국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특히, 2013년 한국농아인협회는 제6회 WFD 아시아-태평양 농청년 대회를 우리나라로 유치하여 고양시에서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농청년들의 국제적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이에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국제교류전문가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8-6] 강원도농아인협회 주관 제6회 아시아태평양 농아청년캠프 대비 국제수어통역인 양성프로그램
※ 출처: 한국농아청년회

4)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 활동

농인의 스포츠와 관련된 공식적인 국제대회는 농아인올림픽(Deaflympic)과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가 있다. 한국은 1984년 국제농아인스포츠위원회(ICS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Sports for Deaf)에 가입하였으며, 198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된 제15회 세계농아인경기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 이후 4년마다 열리는 세계농아인경기대회(현 농아인올림픽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1993년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제17회 대회 당시 개최된 ICSD 총회에서 한국농아체육회 박인기 사무국장이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집행위원에 뽑히면서 한국농인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최초의 메달은 1997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8회 대회의 육상과 배드민턴 종목에서 획득하였다. 이러한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한농아인체육연맹은 우수한 농인 체육인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을 통한 활동 이외에도 농인의 역사를 연구, 보전 및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농역사협회(Deaf History International, DHI)에서 3년마다 개최하는 국제 회의, 전세계농인예술축제 클린 도일(Clin-doeil), 각 국가의 농인 관련 기관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이나 농인영화제 등 국제 교류 기회가 한층 확대되고 있다. 이런 행사들은 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한국 농인의 참여가 확대되어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참고 문헌

한국농아인협회(2016). 한국농아인협회 70년사.

홍기원 외(2007). 국제문화교류진흥을 위한 제도수립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DHI 호주 콘퍼런스 https://dhi2018.com/

세계농인연맹 WFD(World Federation of the Deaf) https://wfdeaf.org/

세계농청소년연맹 WFDYS(World Federation of the Deaf Youth Section) http://www.wfdys.org/

세계농인스포츠위원회 https://www.ciss.org/

국제농역사협회 https://dhi2018.com/about/deaf-history-international/

미국농아인협회 https://www.nad.org/

클린 도일 https://www.Clin-doeil.eu

제9장 4차 산업혁명과 농사회의 변화

(요약)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IT 기술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 곁에 왔다. 인간, 사물, 공간 연결 기반의 인공지능 혁명, 기계의 판단에 의한 산업 최적화 도입을 가능케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야 하는 숙제를 우리 모두에게 던진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되면서 농사회에서는 다음의 두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다. 첫째, 모든 농인들이 최소한 '기능적 문맹' 상태를 단연코 벗어나야 한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읽고 쓰는 문해 능력은 인간됨의 필수 조건이며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신문이나 TV 자막을 해독하지 못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으면 그는 곧 '기능적 문맹'으로 분류된다. 둘째, 농인들에게 수어에 의한 정보접근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수어는 농인의 모어이며, 농인들에게 일차적(기본적) 소통 통로이자 삶 그 자체다. 농인들에게 정보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수어를 매개로 '농인이 행복한 세상'을 향유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그것은 함께하는 청인 세계의 책무이다.

현대 사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평생학습'시대다. 농인 스스로가 평생학습자로 거듭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계급보다 무서운 '정보 격차'를 해소할 도리가 없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신세대 농인에게는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조차도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충격적(파괴적)이다. 모든 농인들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삶의 형식이 몸에 배이도록 스스로를 부단히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아직은 우리의 일상적 삶에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아서 크게 느낌이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 미래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충격적이고 그 변화속도가 엄청 빠르게 다가온다. 엘빈 토플러(A. Toffler)가 ‘미래의 충격’을 제기한 지 40년이나 지났다. 그리고 「제3의 물결」(1981)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 겨우 한 세대가 지나는 시점에서 다시 ‘제4의 물결(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런 시대의 변화가 농인과 농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

1. 4차 산업혁명의 이해

1)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Yuval N. Harari) 교수는 「사피엔스」(2015)에서 인류 역사에서 인간은 세 차례의 혁명을 거쳤다고 한다. 첫 번째가 약 7만 년 전의 인지혁명, 두 번째가 1만 2천 년 전의 농업혁명, 마지막 세 번째가 5백 년 전부터 시작된 과학혁명이다. 18세기 과학혁명이 시작된 이후 불과 3백 년 동안 인류는 세 번에 이르는 ‘산업혁명’을 겪었다.

1차 산업혁명에서는 수력발전, 증기기관, 기계의 발전을 통해 생산성이 극대화되었다. 2차 산업혁명에서는 전기와 생산조립라인을 통해 분업에 의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전자공학과 정보기술을 통한 자동화에 의해서 어렵고 복잡한 작업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생산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 3차 산업혁명을 우리는 ‘컴퓨터 혁명’ 혹은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른다.

21세기의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그 속도와 범위와 깊이, 그리고 시스템 충격 면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모바일 인터넷, 저렴하고 강력해진 센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machine lear

ning)이 그 특징이다. 즉, 3차 산업혁명의 자동화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자율 기술로 변화한다.

1차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이어지는 변화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그림 9-1] 산업혁명의 변화과정

「사피엔스」에서 하라리 교수는 다가올 문명의 역사를 물리학-화학-생물학으로 이어지는 연속체의 다음 단계로 규정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을 이끌어 온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은 「제4차 산업혁명」(2016)에서 이 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 물리학 기술, 디지털 기술, 생물학 기술을 들고 있다. 물론 이 세 분야는 서로 깊이 연관되고 상호 보완적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물리학 기술은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무인 운송수단, 디지털 견본을 사용해 3차원의 물체를 만들어 내는 3D 프린팅,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일상적 현실로 만드는 로봇공학의 진보, 그리고 가벼우면서 강하고 재생 가능한 신소재의 활용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그래핀'(graphene)과 같은 최첨단 나노 소재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면서도 두께는 머리카락의 100만분의 1 정도로 매우 얇고 뛰어난 열과 전기 전도성을 갖추고 있다.

디지털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다. 실물과 디지털의 연

계 기술의 하나인 '사물 인터넷'은 이제 '만물 인터넷'(internet of all things)으로 불린다. 실생활과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센서와 장비들이 놀랄만한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은 우리들 삶에 혁신적 변화를 안겨준다.

생물학적(biological) 기술 혁신은 인간의 생명과 유전자 형질을 단지 기술적 문제로 다룬다. 생명 과학의 기술적 진전은 유전자 염기서열분석을 훨씬 간소화했으며, 최근에는 유전자 활성화 및 그 편집 기술까지도 가능해졌다.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의 발전은 의학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과 바이오 연료 생산에도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

의료 분야에서 유전표지(genetic markers)와 질병 사이에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개인별 맞춤 의료 서비스와 표적치료법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미 IBM 슈퍼컴퓨터 시스템은 단지 몇 분 만에 질병과 치료 기록, 정밀 검사와 유전자 데이터 등을 거의 완벽한 최신 의학 지식으로 비교 분석하여 암 환자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치료법을 권고한다.

3D 제조업은 생체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해 유전자 편집 기술과 결합한 바이오프린팅(bioprinting), 즉 생체 조직 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피부와 뼈, 심장과 혈관 조직을 만들어 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호모데우스」(2017)에서 이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죽지 않는 '불멸'의 기술 문제로 다루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에는 중대한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수반한다.

「세계경제포럼보고서」(2015)는 과학 기술이 이끈 변화가 기존의 주류 사회를 강타해 미래의 디지털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를 구축하는 21가지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 즉,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어느 시점에서 돌연히 큰 변화를 초래하는 지점)를 밝히고 있다. 2025년까지 일어날 티핑 포인트 20개 중 그 가능성이 높은 순서로 일곱 가지를 뽑으면 다음과 같다.

-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는다.(91.2%)
- 인구의 90%가 (광고료로 운영되는) 무한용량의 무료 정보저장소를 보유한다.(91.0%)
- 1조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89.2%)
- 최초의 로봇 의사가 등장한다.(86.5%)

- 10%의 인구가 인터넷이 연결된 안경을 쓴다.(85.5%)
- 인구의 80%가 인터넷상 디지털 정체성을 갖게 된다.(84.4%)
- 3D 프린트로 제작한 자동차가 최초로 등장한다.(84.1%)

가령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처음에 컴퓨터는 큰 방에 둬야했지만 후에 책상으로 옮겨졌고, 이어 사람들의 무릎 위로 자리를 옮겼다. 이제 우리 주머니 속에 모바일 폰이 담겨 있듯이 머지않아 의류와 장신구에 칩이 내장될 것이다. 칩이 내장된 의류나 장신구를 착용한 사람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스스로(자동적으로) 건강관리를 하게 되며 수명 연장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감시의 위험이 뒤따른다.

2) 4차 산업혁명의 사례

주요 산업선도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제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꿔가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분야는 독일이, 가상현실과 로봇 분야는 미국과 일본이, 3D 프린팅은 유럽이, 인공지능은 미국, 드론과 슈퍼컴퓨터 분야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과 새로운 산업 동력의 바탕이 될 빅테이터 분야는 위의 모든 나라가 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홍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기회」(2017)에서 국내외 저명 미래학자, 시장예측전문기업, 언론, 정부기관 등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 9개 분야를 선정했다. 즉, 미래 자동차(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로봇,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가상현실, 차세대 실리콘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우주산업 등 9개 분야다. 여기서는 대표적 사례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과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자율주행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데에 세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최근에 컴퓨터를 새로운 자동차 운전자로 인정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택시, 전기 로보캡(Robocab) 사업자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자동차 모빌리티 시장의 3분의 1이상을 장악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이제 개인 소유 중심의 자동차 사용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세계적으로 공들여 개발하는 미래형 자동차는 네트워크로 연결돼 외부와 통신 기술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다. 4차 산업혁명과 이동의 미래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여유 시간이 늘어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방식이 바뀜에 따라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롤랜드 버거(R. Berger)는 「4차 산업혁명, 이미 와있는 미래」(2017)에서 "미래 생태계에서 우리는 가치 사슬의 끝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Berger, 2017, p.132).

이런 면에서 자율자동차는 흔히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즉, 단순히 차를 타고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모빌리티(mobility) 서비스의 핵심은 네트워크에 있다. 사람과 사람,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이 서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인간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자율자동차는 외부 환경을 인식하는 기술이 종합된 결과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농인들이 이런 네트워크의 일부로 어떻게 함께 하는가이다. 네트워크는 의사소통을 동반한다. 늘 언어적 소수집단으로 청인 중심의 네트워크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었던 농인들은 음성언어도 수어도 아닌 새로운 시대에 컴퓨터와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익혀야 할 것이다. 희망적인 것은 농인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기술이 농인에게 새로운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농인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운전을 하지 않고 수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2) 인공지능과 로봇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국은 2016년이 지능정보사회의 원년이라는 것을 실감케 했다. 알파고는 컴퓨터에 사람이 일일이 가르치지 않고 규칙을 알려준 뒤 필요한 데이터만 제공하면 패턴을 보고 스스로 학습해 최고 수준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기반 기술 혁신은 산업, 고용, 서비스, 삶의 방식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불러 올 것이다.

1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인간의 근육을 대신해 주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뇌를 대신하게 된다.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된 '상호학습 로봇'의 출현은 스스로 일하는 '노동자 알파고'의 출현을 가능케 한다. 상호학습 로봇은 인간의 개입 없이 인터넷망을 통해 로봇들끼리 학습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능력을 키워간다.

노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프리먼(Richard B. Freeman, 하버드대 석좌교수)은 "미래에는 로봇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 했다. 2025년에는 한국 제조업 생산인력의 40%를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럼에도 노동의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턱없이 부족하다. 기술 혁신에서 가장 큰 우려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자리의 절반 이상을 없앨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은 주요 국가에서 앞으로 5년 동안 500만 개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고, 초등학교 입학생 중 65%는 미래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 로봇이 스스로 학습하고 노동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농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것은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지금도 농인들은 음성언어 기반의 청인 사회 속에서 언어적 차이로 인해 직업 기회를 갖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미래 사회에서의 변화는 농인들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으로 1차에서 3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동안 경제사회적 변화는 언제나 더 큰 '불평등'을 초래했다. 따라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 줄 기술혁신과 함께 변화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엄중히 질문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농인에게 빛과 그림자이다. 그런 만큼 분배 정의가 절실히 요청된다.

(3) 디지털 헬스케어

롤랜드 버거(R. Berger)는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2017)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매년 20% 이상 성장해 2020년까지 2천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와 IT의 융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헬스케어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진단, 치료중심에서 사전 진단과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뀐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2015)에 이어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2017)의 저자로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다. 여기 '호모데우스'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을 지칭한다. 생명공학계에서는 2045년 즈음에 인간의 평균수명이 120세에 이를 것으로 보며, 수명연장 기술과 의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가 가능해진다고 본다. 바이오 빅데이터가 의료 기관으로 전송되어 개인별 맞춤 처방을 지원하게 되며, 로봇이 수술도 대체한다는 것이다. 재료공학 발전으로 신소재와 정교한 3D 프린터를 이용해 모세혈관 등 미세 조직을 갖춘 인공 장기를 생산하는 데까지도 이른다.

농인도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한 수혜자 중의 한 집단이 될 것이다. 유전공학을 통한 예방과 원격 의료 진료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농인의 수명도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농인의 수명이 단순하게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어난 수명으로 어떤 삶의 질을 유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숙제이다.

(4) 농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신기술

포베스(Fobes, 2015)는 농인과 난청인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할 4대 신기술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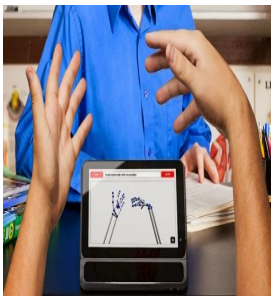
첫째, 모션사비(MotionSavvy)팀이 개발한 '유니(UNI)'이다. 로체스터 기술연구소의 국립농기술연구소(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s National Technical Institute for the Deaf)는 수어(ASL)를 말로, 말을 글자로 바꾸어주는 농인을 위한 세계 최초의 양방향 의사소통 소프트웨어인 '유니(UNI)'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손과 손가락의 동작을 추적하는 특수 카메라를 사용한다. 사람이 이 시스템을 쓰면 쓸수록 소프트웨어는 학습을 하게

되어 변환이 더 정확해진다.

둘째, ‘솔라이어(Solar Ear)’이다. 세계 3억 6천만 농인구 중 절반 이상이 저·중소득 국가에서 살고 있다. 저·중소득 국가의 농인들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은 배터리 공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솔라이어(Solar Ear)는 태양전지를 보청기에 적용하여 2-3년간 쓸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배터리들이 1주일 정도 사용하고 버려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이다.

셋째, ‘ISEEWHATYOUSAY’이다. 이것은 스마트폰에 말을 하면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원거리에 있는 사용자에게 음성언어를 문자로 바꾸어서 전송하는 것이다. 우리가 손으로 문자를 스마트폰에 입력하는 것과 달리 음성언어를 발화하면 음성언어가 문자로 변환되고 이것을 전송하면 농인이 읽을 수 있는 문자 메시지로 전달된다.

넷째, ‘Hayleigh’s Cherished Charms’이다. 이것은 로우 테크(low-tech)로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열 살인 Hayleigh는 자신의 보청기를 머리 뒤에 감출 것이 아니라 예쁘게 디자인해서 착용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보청기를 아름답게 만듦으로써 보청기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었다.



모션사비팀이 개발한 ‘유니’(MotionSavvy UNI)
※ 출처: http://assistivetechnologyblog.com/2014/10/uni-device-that-converts-sign-language.html

솔라 이어(Solar Ear)
※ 출처: https://kopernik.info/technology/solar-ear-hearing-aid

ISEEWHATYOUSAY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cR4rDxnHWDI

Hayleigh’s Cherished Charms
※ 출처: http://www.hayleighscherishedcharms.com/

[그림 9-2] 포베스(2015)가 제안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할 4대 신기술

2. 4차 산업혁명과 농인의 삶

1)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편적 능력

4차 산업혁명은 놀라운 혁신을 초래하게 되겠지만 그에 따라 발생되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존재한다.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2016)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다음처럼 제기한다.

- 상황 맥락(contextual)지능(정신): 인지한 것을 전체 맥락에 비춰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 감성(emotional)지능(마음): 사고와 감정을 조절하고 결합해 자기 자신 및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
- 영감(inspired)지능(영혼): 변화를 이끌고 공동선을 위해 공공 목적, 신뢰성, 박애를 발휘하는 능력
- 신체(physical)지능(몸):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능력

'지성-감성-영감-몸'이 하나로 어우러져 내면적으로 통합되어야겠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안정적 성공을 위해서는 감성과 영감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더 중요할 수 있다.

'다보스포럼 2016'(Davos Forrum 2016)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의제로 공표하면서, 한국도 '네 번째 물결'에 편승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 인류문명은 1차 농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정보혁명을 거쳐 이제 4차 혁명이 도래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정보혁명'이어서 사실은 그냥 '4차 혁명'이라 해도 좋다.

윤석만(2017)은 단지 정답만 찾는 스마트(smart)가 아닌 공동체와 공동선을 염려하는 휴머니티(humanity)가 살아 있는 미래형 생각법 혹은 인간상으로 '휴마트 씽킹'(Humart Thinking)을 제기한다. 그는 최근 저술인 「휴마트 씽킹」(2017)에서 이렇게 말한다.

> 4차 혁명시대를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미래 자원인 휴먼 리소스를 키워야 하고, 그래야 4차 혁명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과거 1차 혁명시대에 토지가, 2차시대에 산업 기술이, 3차시대에 정보혁명이 그랬듯 4차 혁명시대는 교육과 문화가 새 시대의 핵심자원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교육과 문화를 바꿔야 한다(윤석만, 2017, p.19).

4차 혁명시대에는 교육과 문화가 새 시대의 핵심자원이 된다면 농인의 교육과 농 문화의 발전은 농인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핵심 변인이 될 것이다. 교육과 문화는 혁명이나 혁명적 방법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다. 그는 미래 인재의 핵심으로 '인성 역량'을 말한다. 인성은 우리에게 삶의 도구가 아닌 '목적' 자체다. 또한 윤석만은 「휴마트 씽킹」(2017)에서 지금까지는 '아는 것(knowhow)'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how to know, howknow)'의 습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인성 역량'은 유연하게 사고하고 통섭할 줄 알며,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휴머니티'의 역량이다. 이제는 농인의 교육도 말하기, 글쓰기와 같은 기능적인 것에 갇혀있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인성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모을 때이다.

세계적 혁신 기업인 구글(Google)에서는 일하는 원칙으로 '성실과 겸손'을 강조한다. 구글의 복(L. Bock) 부사장은 구글이 추구하는 인재로 첫째가 학습 능력, 둘째가 협동적 리더십과 팔로워십, 셋째가 겸손이고, 넷째는 책임감,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전문지식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전문지식의 중요도가 덜하다. 구글의 '일하는 원칙'이 젊은 농인 세대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21세기 '평생 학습' 시대에서 농인들이 지속적으로 자기학습능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평생 학습'을 통해 농인의 삶의 질은 보장될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농인의 삶

4차 산업혁명은 장애인들에게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농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고 디지털문화와 친숙한 사람에게는 제4의 물결은 축복이다. 하지만 청인 가운데도 나이 들어 디지털 문화와 거리가 먼 아날로그문화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소외와 불안, 불평등 그 자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가 충격적, 파괴적일수록 지구 전체적으로 계층 간·지역 간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는 이러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농인들이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다음 두 측면이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는 모든 농인들이 최소한 '기능적 문맹'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 농교육에서 '9세 벽'은 신화처럼 존재한다. 세월이 지나도 9세 벽이라는 말은 농교육에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신화처럼 되어 버렸다. 지식정보 사회에서 읽고 쓰는 문해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온다. 오늘날 문해 능력의 기준은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문자해독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을 문맹이라 했지만, 지금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신문이나 TV 자막 등의 글 속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기를 적절하게 소개하는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으면 '기능적 문맹'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덧붙여 사물 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능적 문맹'의 의미가 또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유치원에서도 코딩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는데, 바로 컴퓨터 언어를 알고 모름에 따라 문맹이 결정되는 디지털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이러한 기술들은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 기능을 넘어서 인간과 기계가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이런 환경이 된 것이 농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음성언어가 아닌 시각 언어인 컴퓨터 언어를 수어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말을 배우는 것보다 컴퓨터 언어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농인이 4차 산업

혁명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농인들에게 수어에 의한 정보접근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수어는 농인의 모어다. 농인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수어를 우리는 '자연수어'(natural sign language)라고 한다. 2Bi(bilingual, bicultural)접근에서 1차 언어로 '자연수어'의 획득을 왜 그처럼 중시하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수어는 농인들에게 기본적 소통 통로이자 삶 그 자체다. 농인들에게 정보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수어를 매개로 '농인이 행복한 세상'을 향유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이런 해결책 중 하나가 앞에서 언급한 모션사비(MotionSavvy)팀의 유니(UNI)와 같은 소프트웨어이다.

현대 사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하는 '평생학습'시대다. 농인 스스로가 평생학습자로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 사회에서는 계급보다 무서운 '정보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어렵다. 게다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야 할 신세대 농인에게는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조차도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이 급속하게 쓸모없어진다고 하여 '파괴적'이라고 표현한다. 모든 농인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삶의 형식이 몸에 배이도록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농인 사회가 공부하는 일에 힘을 쏟을 때 농 문화는 품위 있게 성숙되고, 농학(Deaf Studies)에서 강조하는 당사자로서 농인의 자기권리 주장도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농인 당사자의 권리주장은 농인이 단순 복지 대상이 되지 않도록 농인이 적절하고 적합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강주현 옮김 (2016). 재레드 다아몬드의 나와 세계: 인류의 내일에 대한 중대한 질문. 서울: 김영사.

김명주 옮김 (2017). 호모데우스: 미래의 역사. 서울: 김영사.

김병하 (2009). “농문화와 농(인)학: 그 현상과 과제”. 세계장애인문화학술대회(서울) 발제(미간행).
김정희・조원영 옮김 (2017).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 서울: 다산북스.
송경진 옮김 (2016).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서울: 메가스터디.
안기순 옮김 (2017).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Utopia for Realists). 서울: 김영사
윤석만 (2017). 휴마트 씽킹. 서울: 시공미디어.
이래경 (2017). 다른 백년을 꿈꾸자. 서울: 책담.
이만열 (2017).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서울: 도서출판레드우드.
이재홍 (2017).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기회. 서울: 메디치미디어.
조현욱 옮김 (2015).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서울: 김영사.
Fobes (2015). 4 Game-Changing Technologies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Johnson, R. E. & Liddell, S. K. & Erting, C. J. (1989). Unlocking the Curriculum:Principles for achieving access in deaf education. Gallaudet Research Paper.
http://assistivetechnologyblog.com/2014/10/uni-device-that-converts-sign-language.html
http://www.hayleighscherishedcharms.com/
https://kopernik.info/technology/solar-ear-hearing-aid
https://www.youtube.com/watch?v=cR4rDxnHWDI

<더 읽을거리>

위의 참고 문헌 중 문명사적 측면에서 미래문제를 다룬 주목할 만한 저술로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2015)와 「호모데우스」(2017)를 추천한다. 그리고 인류의 내일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로, 자신의 강의록을 정리한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M. Diamond)의 「나와 세계」(2016)가 주목을 끌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총.균.쇠」의 저자로 진작에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만열(Emanuel Pastreich(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경희대 휴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의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2017)은 우리에게 더 큰 한국을 만드는 데에 필요한 용기와 지혜를 주는 저술로 주목을 끈다. (*「사

피엔스」, 「나와 세계」, 그리고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오마이뉴스>(책동네)에 게재된 필자의 서평을 참고할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의 기본 텍스트로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의 「제4차 산업혁명」(2016)을 추천한다. 「4차 산업혁명 이미 와 있는 미래」(2017)는 독일의 롤랜드 버거(R. Berger)가 전 세계에서 발표한 많은 보고서 중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 골라 단행본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4차 산업혁명의 약속, 현장의 실천 사례, 2030 7대 메가 트렌드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재홍의 「4차 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기회」(2017)는 4차 산업혁명의 실체와 9가지 미래전략사업으로 미래 자동차, 드론, 인공지능, 초연결 ICBM, 가상현실, 차세대 실리콘 벨리,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팩토리, 우주산업 등을 들고 있다. 이어 2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한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가 한국사회에 얼마나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다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저자 소개(집필장 순서)

강창욱 (기획・총괄) 강남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곽정란 (제1장)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생존학연구센터 객원연구원

황창호 (제2장) 에바다농인선교연구소 소장

김경진 (제3장)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교수

엄미숙 (제4장) 전 나사렛대학교 외래교수

이미혜 (제5장・제6장) 한국복지대학교 수화통역과 외래교수

송미연 (제7장・제8장) 강남대학교 수어통역사

김병하 (제9장)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명예교수

책임 연구원 강창욱

공동 연구원 김경진, 황창호, 엄미숙, 이미혜,
박종미, 김주희, 송미연, 이현화

연구 보조원 김선희, 장민영

담당 연구원 이현화(국립국어원 주무관)

발행인: 송철의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37
인쇄일: 2017년 12월 20일
발행일: 2017년 12월 20일
인 쇄: 우리동네출력소

※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용역비로 수행한 '한국수어 문화학교 운영'의 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